



160 main street  
Stoneham, MA 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ear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 하버드대 교수가 한국 고대사 연구를 포기한 까닭

거대한 고대사 선호 국민정서와 학문적 연구 결과 부딪혀  
재야 민족사학, 국회 등 정치가 개입 연구지원 중단 부추겨  
객관적이고 국제적인 시각에서 고려된 학문 설 자리 잃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하버드대 마크 바이턴 교수가 올해 말로 한국 고대사 연구를 접게 됐다. 그는 세계를 통틀어 한국 고대사를 연구하는 미국인 교수 3인중의 하나다. 지난 2006년부터 한국교류재단과 한국동북아 역사재단의 지원으로 고대 한국사 프로젝트(Early Korea Project, 이하 EKP)를 진행해 왔다.

그는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사 연구 논문을 영어로 번역해 출판하고, 하버드에서 고대사 관련 각종 컨퍼런스 및 강의를 개최해왔다. 미국 역사학계와 학도들은 고대 한국사의 갈증을 이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4년 동북아역사재단의 지원 중단 선언으로 EKP사업은 종료됐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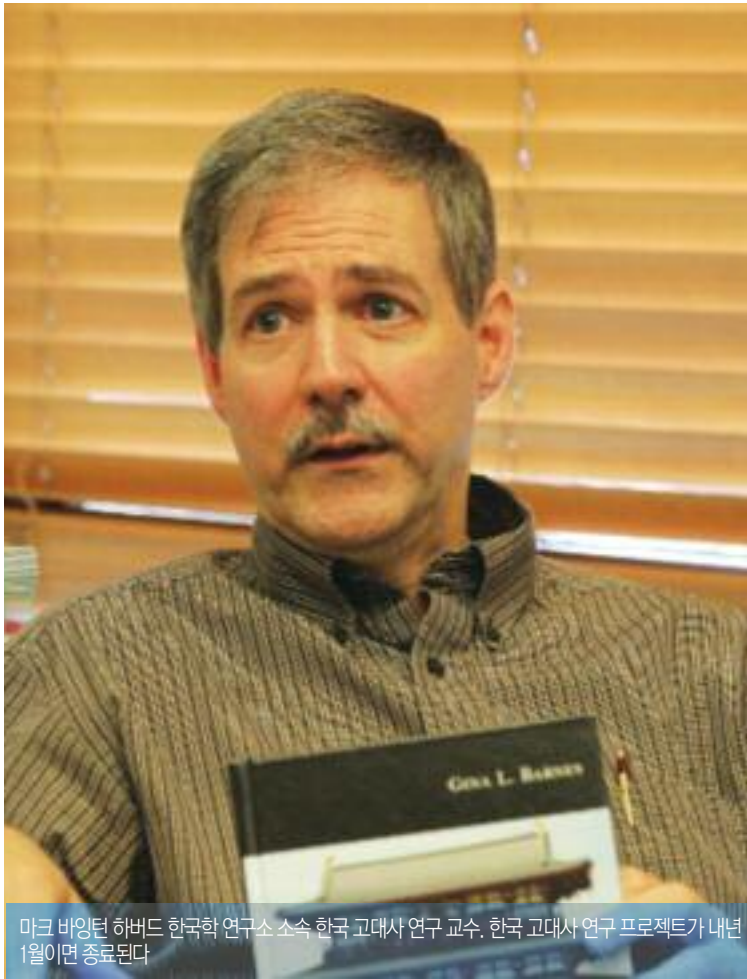
월급의 60%를 지원하던 한국교류재단의 계약도 2017년 1월 종료된다.

미국내 중국과 일본에 관한 서적은 풍부한 반면 한국은 극소수다. 미국 학생들이 한국의 역사에 관심을 갖고 파악하려면 풍부한 자료를 보유한 중국과 일본의 서적을 통해 한국을 바라보게 된다. 왜곡된 일본과 중국의 시선으로 한국을 보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한국 역사를 도둑맞는 일이나 다름없다.

바이턴 교수는 지난 5월 인터뷰에서 “고대 동아시아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고대 한국사에 관심 있어 하지만 연구자료가 희박하다.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한 것은 너무 집중적 연구여서 전체적 맥락을 이해하기 힘들었다. 또 번역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

해하기 힘든 것도 있었다. 그래서 서양 학자들은 잘 번역된 1930년대 일본 학자들의 번역본을 통해 한국 고대사를 보게 된다. 일본사는(식민사관으로) 왜곡되었기 때문에 문제였다” 고 지적했다.

한국학이 좋아 제대로 된 스승도 없이 스스로 한국 고대사를 연구했던 그다. 1983년부터 공군으로 1년간 대구외곽에서 근무한 게 인연이었다. 미국에 돌아온 그는 대학시절 여름 동안 연세여학당 발간 한국 문법책을 사서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웠다. 그는 1986년에서 90년까지 삼국사기를 번역기도 했다. 그런 그를 한국이 키우기 위해 국가적인 안목으로 지원했던 것도 아니었다. 학자금 대출을 통해 하버드에서 석, ▶▶2면으로 계속



마크 바이턴 하버드 한국학 연구소 소속 한국 고대사 연구 교수. 한국 고대사 연구 프로젝트가 내년 1월이면 종료된다

이민법  
상법  
만행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kiujos.com

law@lookjs.com



**JAPAN STOPOVER PACKAGE**

일본 3박 패키지 (항공권 포함) 1인 \$1500 부터

**IACE TRAVEL** 문의전화  
www.iace-korea.com  
1.617.424.8956  
1.866.619.4223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 Estate Services

**에나 정**  
최고의 전문가로서  
부동산, 투자, 세무, 이민  
전문 서비스 제공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상업 · 렌트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JMS, CRS, GRS, SRES, ABR  
**617.780.1675**  
ekjung@ownnewengland.com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JEI** 재능교육  
JEI English JEI Reading & Writing  
JEI Math JEI Problem Solving Math  
Pre-K부터 대학까지

FDart 학문능력 학제  
www.jeilearning.com  
**JEI Burlington**  
11 Adams St. Burlington, MA 01803  
TEL: 781.368.9773  
EMAIL: burlington@jeilearning.com



## 하버드 대학 마크 바잉턴 교수 올해말 한국 고대사 연구 중단

▶▶1면에 이어서

박사학위를 받고도 그는 한국에 진출할 수 없었다. 그는 “몇 년 동안 6-7번이나 지원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한국에 갈 때면 비용을 스스로 부담했다.” 고 밝혔다.

전인미답의 길을 홀로 걸어온 그는 하버드 비즈니스스쿨에서 청강하면서 미국에서 한국 고대사 연구분야를 개척하겠다는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얻어, 하버드에서 EKP를 시작한 후 다시 한국을 찾았다. 한국교류 재단과 동북아역사재단은 그의 하버드 연구 프로젝트에 매력을 느끼고 지원을 시작했다.

프로젝트는 순조로웠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37번의 고대사 강의 시리즈, 9번의 워크숍이 이뤄졌다. 워크숍에서는 46명이 주제발표를 하고 50명이 참가해 토론을 벌였다. 또한 가장 중요하게 한국 주요 학자들의 논문으로 구성된 3권의 고대사 서적, 그리고 3권의 고대 한국프로젝트 서적 3권 등 6권을 발행했다. 현재는 고구려 관계서적은 지난 여름 발간됐으며 한일관계를 다룬 1권의 서적 마감단계다.

호사다마. 그의 프로젝트는 예상치 않았던 곳에서 균열이 생겼다. 물론 논란이 있는 문제였던 것이기는 하지만 그의 서적 하나가 모든 프로젝트를 좌초시킬 지는 몰랐다. 바잉턴 교수는 “한사군에 대한 워크숍과 논문이 위험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덕일로 대표되는 사이비역사학과 이중찬으로 대표되는 극우정치세력이 국회에 그만큼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고 밝혔다.

한사군 낙랑의 위치 평양 주장이 문제  
문제의 발단은 바잉턴 교수가 2013년 영문본 〈한국고대사에서의 한군현〉을 발간하면서 시작됐다. 고대한국사프로젝트(Early Korea Project)의 일환으로 발간된 서적이다. 바잉턴 교수 외 8명의 역사학자들의 논문이 영어

로 소개된 이 책은 낙랑의 위치가 현재의 평양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서적을 접한 이덕일 한가람 연구소장을 필두로 한 재야 민족사학계가 그의 프로젝트를 동북공정을 대변하는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그는 식민사학을 서양에 전달하는 사람으로 오도되어 버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덕일 소장이 중심이 된 〈식민사학해체국민운동본부〉는 “이 책(한국고대사에서의 한군현)의 논리대로라면 한반도 북부는 중국 식민지가 되고 남부는 일본 식민지가 된다”며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 산하 조선사편수회가 정립한 식민사학을 국가기관이 세계 학생과 재외공관에 배포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2013년 6월 국회에 ‘동북아역사외국대책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다. 2014년 3월 〈식민사학해체국민운동본부〉는 동북아역사재단이 미국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를 지원해 2014년에 발간한 〈한국고대사에서의 한군현〉의 내용에 한국 고대사에 대한 식민사관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비난하고, 재단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2014년 9월 감사에 착수해 2007년부터 2013년 2월까지 한국고대사 연구를 지원하면서 2차례나 심사 절차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바잉턴 교수가 중국측 동북공정에 부응했다는 이덕일 소장의 주장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학계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공을 역사학계에 넘겼다.

이를 두고 연합뉴스는 2015년 2월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심사도 없이 25만달러 ‘평평’〉이란 제목으로 보도하며 제목에서 한국고대사 프로젝트를 돈낭비로 몰아버렸다. 이외 상당수 한국언론도 비슷한 논조로 보도했다. 바잉턴 교수는 “2014년부터 계약 연장을 논의하던 동북아역사재단은 국회, 언론 등의 전방위 압박을 받아 돌연 EKP 연구비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고 주장했다.

그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우리는 균형된 사관을 가지고 충분히 합리적인 고고학적 유물 및 역사 문헌 자료를 세밀하게 분석해 나온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과연 그 책을 읽고 비난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아마 지도만 봤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제는 2014년 당시 그의 입장이 주류사학계의 변호를 전혀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는 “EKP는 정말 중요한 일이며 그동안 잘 진행되어 왔는데 한국의 주류 학자들 중에 아무도 나서서 변호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프고 분노할 일이었다” 고 주류사학자들의 침묵을 강하게 성토했다.

유일하게 중국고대사를 연구하는 단국대학 심재훈 교수만 올해 초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EKP지원 중단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심 교수는 “연구자로서 양심을 걸고 동북아역사재단의 EKP지원은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단언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인 특유의 조급함, 냄비근성, 역사왜소 콤플렉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왜곡된 여론을 형성했던 것 같다. 정말 전세계적 망신이다” 라고 그의 페이스 북에 썼다. 심교수는 지난 여름 〈고대 중국에 빠져 한국사를 바라보다〉라는 책을 출간해 EKP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다뤘다.

이와 더불어 올 초부터 젊은 사학자들을 중심으로 거대한 고대사를 주장하는 이른바 ‘국뽕역사’에 대한 학문적 논박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역사 비평에 실린 안정준의 〈오늘날의 낙랑연구〉, 기경량의 〈사이비역사학과 역사 파시즘〉, 위가야의 〈‘한사군 한반도설’은 식민사학의 산물인가〉 세 편의 논문은 주류사학자들의 침묵을 떨치고 재야 역사학계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있다.

역사학자 안정준 박사는 〈오늘날의 낙랑연구〉라는 논문에서 “학계의 대다수 전공자들의 의견이 무시당하고, 정치권과 일부 비전공자들의 주장이 대등하게, 혹은 그 이상 조명되는 이 ‘이상한’ 역사논쟁은 일반 대중들이 지니고 있는 민족주의적 감성에 기대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고 울분을 토했다.

안 박사는 “한사군의 설치와 변천상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문헌기록이 없는데다 이를 뒷받침할 고고학적 발굴이 이뤄지지 않았기에 여러 가지 설이 병립한 것”이라며 일제시대에 발굴한 낙랑고분 70여기, 해방이후 북한에서 발굴한 낙랑고분 1000여기를 통해 발굴된 유적을 바탕으로 재평양설을 주장했다.

위가야박사는 자신의 논문에서 이덕일 소장의 여러 주장을 반박하고 “한사군 한반도설은 중국 사서의 주석가들 이래 조선 후기에 역사지리학을 연구한 실학자들, 그리고 일본인 역사학자들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강화되고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 온 학설일 뿐 일제 식민사학이라 할 수 없다” 고 지적한다.

또한 위대한 고대사 주장의 근본적인 출발점인 “사이비 역사학의 강박관념”에서 나온다고 지적한다. 북한의 몰락시 중국에 대해 한반도의 영토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역사 연구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대사를 고대사로 이해하지 않는다” 고 지적한다. 위박사는 “역사가 현실의 욕구에 복무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역사만 쓰는데 몰두하는 것은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

바잉턴 교수는 “진짜 식민사관은 일본학자들이 한국에 대해서 쓴 것이다. 물론 모든 일본학자들의 연구가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이뤄진 것은 아니며 일부는 좋은 학문적 관점

에서 쓰여진 것도 있다. 과거에는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이뤄졌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누가 그러겠는가?” 라고 반문했다.

중국 주류학자 ‘동북공정’ 인정안해  
E.H. 카의 말처럼 ‘역사는 현실과의 대화다’. 역사는 ‘사실 그대로의 역사’ 뿐만 아니라 현실의 정치학, 사회학, 철학과 교류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여전히 학문적 영역에서의 평가일 뿐이다. 이와 달리 학문의 분장을 하고 역사학을 정치적 목적에 맞도록 불러낸 것이 식민사학이요 동북공정이다. 역사학 고증 이전에 뚜렷한 목적이 있고 거기에 역사를 꿰맞춘다는 것이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바잉턴 교수는 “동북공정은 정치적으로 의도된 움직임이었고 1992년부터 단 5년만 지속됐다. 많은 한국사람들은 여전히 동북공정이 진행중인 것으로 아는데 오래 전에 끝났다. 중국 주류학자들도 동북공정에 참여했던 주양부, 장박천 등 고구려가 중국소유라는 역사를 쓴 학자들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고 밝혔다.

한국 언론은 2003부터 동북공정을 거론했다. 바잉턴 교수는 1999년부터 이 주제에 대해 글을 써왔으며 2002년 한국에 발표했으나 당시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그에 따르면 당시 동북공정은 현존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존하는 위협으로 묘사했다.

이덕일 소장과 일부 국회의원들은 역사적인 논의보다 바잉턴 교수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이덕일 소장은 책에서 바잉턴 교수가 대학 학부시절 컴퓨터를 전공했는데 역사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공격했다. 한국 국회는 바잉턴 교수가 길림대학 유학시절 지도교수였던 위준성 교수가 동북공정에 이론적 방향을 제시했던 사람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바잉턴 교수는 “국회에서는 동북공정에서 자금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분노를 표했다. “내가 1997년부터 98년까지 위준성 교수 밑에서 공부했을 때 동북공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위 교수도 처음에는 합류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강제로 합류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인했다.

그는 “이덕일을 비롯한 많은 한국사람들은 아직도 이것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낙랑이 평양이라고 하면 그것이 동북공정이라 주장하고 있다”며 답답해했다. “책을 읽는 것보다 이덕일 소장의 주장을 믿는 것이 쉽고 이런 감정은 결코 책을 읽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가 길림대학에 합류한 것은 수없이 지원한 한국대학에서 모두 거 ▶▶4면으로 계속



바잉턴 교수의 2013년 영문본 〈한국고대사에서의 한군현〉에는 낙랑의 위치가 현재의 평양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료 과목>**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신경 치료 \*보철 전문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 SAT Plus

##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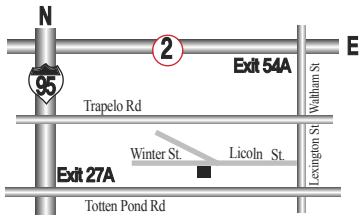
### SAT Plus Fall Schedule 2016

Saturday Class Start September 10, 2016

| Class           | Time               |            |
|-----------------|--------------------|------------|
| PSAT / SAT prep | 9:00 AM – 11:00 AM | 11th Grade |
| SAT prep        | 11:30 AM – 1:00 PM | 10th Grade |
| SAT prep        | 1:30 PM – 3:00 PM  | 9th Grade  |
| SAT I prep      | 4:00 PM – 6:00 PM  | 12th Grade |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바잉턴 교수의 연구실 선반엔 그가 5년간 번역했던 삼국사기가 놓여있었다

## 한국정부, 서양학자에게 아주 나쁜 인식 줄 수 있어

▶▶2면에 이어서

절당한 후였다. 그나마 고구려와 부여의 유물을 연구할 수 있는 길림대학에서 전액장학금을 주며 지원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공부를 접게 됐다. 그를 비난한 국회사 이덕일 등은 한번도 당사자인 그에게 직접 사실확인을 한 적이 없다.

세시간 가까운 인터뷰에서 자신이 준비한 모든 내용을 털어놓은 바잉턴 교수는 “내년 1월이면 이방의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한국을 연구한다면 지원이 없지만 중국쪽을 연구한다면 여전히 미국내에서 자금 지원이 주어진다. 그는 케임브리지 연구소를 설립해 이제 자신의 살길을 찾아야 한다. 그는 내년이면 한국전문가에서 중국전문가로 타이틀을 갈아타게 될지도 모른다. 식민사학 해체 운동본부와 한국국회가 원하던 것이 겨우 이것인가.

국회의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두고 조선일보 이선민 선임기자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 위원회의 부작용으로 “정치가 학문에 개입하는 현상이 표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상고사를 둘러싼 논란에 “이성적 논의보다 정서적 공방이 잦다”는 것이다.

바잉턴 교수는 이렇게 평가한다. “남한 정부는 동아시아를 공부하는 서양학자들에게 아주 나쁜 인식을 주고 있다. 북한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터무니 없는 일을 하고 있다. 좋은 학자들이 설자리를 잃고 강요당하고 있다.”

많은 하버드 졸업생들은 미국의 정재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학부 때 한국 고대사를 들을 기회도 동시에 사라지고 있다.

editor@bostonkorea.com



블루힐스 등산로 보수 정비 작업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

## 서울대 동창회, 지역봉사활동에 참여

### 블루힐스 등산로 보수정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서울대 뉴잉글랜드 동창회가 10월 15일 보스톤 남쪽에 위치한 블루힐스 등산로 보수 정비 활동에 참여했다.

이날 등산로 보수정비 활동은 비영리단체인 ‘블루힐스 친구들(Friend of the Blue Hills)’이 주최한 것으로 이 단체 회원들과 서울대 뉴잉글랜드 동창회 동문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 단체는 봄부터 겨울 초입까지 매월 한 번씩 등산로 정비를 해오고 있다.

2개의 보수정비팀 중 서울대 동문들이 참여한 팀은 비가 올 경우 등산로의 흙이 계속 빗물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등산로 옆에 우회 물길을 만들어 주는 보수작업을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삽, 곡괭이 등을 사용

하여 훼손된 등산로를 일부 걷어낸 후 밑바닥에 바윗 돌을 넣고 그 위에 다시 흙을 덮어 등산로를 단단히 다졌다. 그리고 쇠갈퀴로 산 자락에 덮힌 낙엽을 한쪽으로 쓸고 삼으로 작은 고랑을 파 등산로 옆으로 물길을 만들어 빗물이 등산로를 우회하도록 하였다.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해온 한 회원은 비가 올 경우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등산로를 따라 내려오면 빠른 유속으로 인해 흙이 밑 쪽으로 쓰러내려, 등산로가 울퉁 불퉁하게 되는 등 망가지기 때문에 등산객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정기적으로 보수해야할 필요성을 알려주었다.

블루힐스는 보스톤에서 가까운 I-95 인터스테이트 고속도로에 근접해 있고 190미터 정도로 높지 않아 가족들이 어린이를 데리고 하이킹을 즐

겨하는 곳 중의 하나다. 서울의 남산(262미터)보다 낮은 언덕이지만 보스톤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등 전망이 좋아 인근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다.

한 프로젝트 리더는 “오늘 우리가 정비 보수하고자 하는 등산로는 100년 이상 전부터 우리 선조들이 만들고, 닦아온 길이다. 또한 오늘 우리가 정비 보수하고 있는 이 길은 100년 후의 사람들이 이용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를 들은 한 서울대 동문 참가자는 “마치 존 F 케네디 대통령 연설을 듣는 기분처럼 허름한 차림의 그들이 존경스러워 보였다”고 참가 소감을 말했다. 3시간 여에 걸친 보수 작업이 끝나고 동문들은 단체에서 제공한 피자를 들며 즐거운 교제 시간을 가졌다.

bostonkorean@hotmail.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정관장 정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브렌드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우리가족  
면역력 지킴이**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홍삼의  
주요효능

면역력 개선 / 혈액정화, 고혈압 예방 / 혈당강하, 당뇨 합병증 예방 /  
혈액순환 개선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 가려워복 / 간기능 개선

**240g 홍삼정 구입시  
30g(\$31상당)  
추가 증정**

**FREE  
GIFT**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781-238-0303**

**전화주문 서비스**  
FedEx로 주문 다들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 코리안 어메리칸 위원회 갤러, 반 총장 등 유명인사 총출동

샘윤 전 보스턴 시의원 운영 단체 주관 어워드 만찬 500여명  
성김 대사, 유기돈 49ers 공동소유주, 루이시고 판사,  
포에버21 장도원 회장, 가수 로이킴, 서바이버 권을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샘윤 전 보스턴 시의원 대표로 있는 비영리단체 코리안어메리칸위원회(CKA)가 주관한 갤러 및 서밋에 반기문 유엔총장을 비롯한 미국 주류사회에 진출해 있는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14, 15일 양일에 걸쳐 백악관 주요 스탭과의 만찬으로부터 시작 로널드 레이건 빌딩의 갤러 및 어워드 만찬, 내셔널 서밋 등의 행사가 이뤄졌다. 14일 갤러 만찬에는 500여명이, 15일 내셔널서밋에는 200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갤러에 참여한 인사들은 미국내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는 한인들이었다. 반기문 유엔대사, 성김 전주한미대사, 삼성과 애플의 지적재산권 판결로 알려진 루이시고 판사, 유기돈 49ers 공동 소유주, 미국내 1백대 부자에 포함되는 포에버21 장도원회장, 서바이버우승자 권을, 워싱턴 NBC 뉴스4 투데이의 은양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이날 수상에서는 마틴 월시 보스턴 시장의 수석 보좌관을 맡고 있는 대니얼 고가 차세대 리더 상을 수상했다. 공공부분 상에는 루이시고 판사가, 트레일블레이저 상은 풋볼팀 샌프란시스코 49ers 사장이자 공동 소유주인 유기돈 씨가 수상했다. 유기돈(45) 씨는 유튜브를 구글에 판매하고 미프로풋볼리그 사상 최초의 유색인종 사장이 되는 쾌거를 이룬 한인2세대.

14일 갤러의 특별 연사로 출연한 반기문 총장은 “임기 중 약자들을 위해 여러 면에서 노력하고 있다” 고 말하고 유엔군 내의 대적 여성 고위 지휘관 기용을 한 예로 들었다. 또한 “어느 곳에서나 조용하고 유연하게 의미를 지니며 흐르는 '상선약수'와 같은 삶의 철학을 가졌다고 전하며 차세대들에게 더불어 공생공존하며



코리안어메리칸위원회(CKA)가 주관한 갤러 및 서밋에 반기문 유엔총장을 비롯한 미국 주류사회에 진출해 있는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평화를 이루는 지도자들이 되어달라” 고 부탁했다.

성 김 대사와의 노변담화 시간에서 성대사는 어린시절 영어도 모르는 상태에서 미국 생활을 시작 했지만 부모님의 인내와 격려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고 차세대들을 격려했다.

한편 백악관 주요 보좌관들과의 오찬에서는 코리안 어메리칸이라는 우리의 위치가 아직도 정책 결정, 예산편성 등 여러 면에서 아시안 어메리칸이라는 통칭으로 처리되는 현실을 바로 잡고 합당하게 처우해 줄 것을 건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한반도 주요 현안인 북핵 위기에 대한 논의에서 참석자들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적인 해법을 찾아 달라” 는 정책의견을 전했다.

한미정치력신장연대 김성희회장은 백악관 아세아 국장과의 면담에서 무엇보다 한반도를 위한 특별기도를 주문하고 논의했다.

hsb@bsotonkorea.com

## NE 시민협회 제4차 차세대 리더십 컨퍼런스 개최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시민협회는 11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케임브리지 소재 하버드 법대에서 <제 4차 차세대 리더십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차세대-지도자 되는 길을 주제로 펼쳐질 이번 컨퍼런스에는 보스턴 월시 시장의 수석보좌관 다니엘 고, 보스턴시장 미셸 우, 연방정부 고용차별방지국 (US EEOC) 케네스 안 보스턴 지국장, 그리고 콜롬비아대학 심리학 교수 리사 손 박사가 참여한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티븐 서 시민협회 사무총장 info@kacl-ne.org, 혹은 행사위원장 추경석 kccb030@gmail.com 그리고 이경해 회장(508-962-2689)에게 문의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 시민협회 이경해 현 회장유임

KACL16 시민협회 정기 총회 개최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시민협회는 10월 8일 토요일 뉴튼 소재 보스턴 한인성당 친교실에서 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으로 이경해 현회장의 유임을 인준했다.

시민협회는 또 수석부회장으로 추경석 이사, 부회장으로 양미아, 박영찬 이사, 그리고 신임재무이사로 성기주 변호사를 선출해 인준했다. 신임이사에는 도날드 최 아시안부동산협회 부회장이 소개됐다.

시민협회는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보고하고 2017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사업으로는 차세대 정치인턴 사업, 시민권취득 워크샵, 그리고 차세대 리더십 컨퍼런스 등이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턴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업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 밤10시까지 입니다.

**업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강연에서 엄성준 보스턴 총영사는 &lt;북핵, 북한 문제와 우리의 대응&gt;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비교적 온건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 이성윤 교수 "지금엔 북한 압박에 매진할 때"

평통주최 '안보강연'서 엄 총영사 "핵, 인권, 북한문제 총체적 접근 필요"  
 텅스드 플래처 이 교수 대북 강연 '흡수통일'로 북한 주민 해방시켜야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한세벽 기자 = 미국내 대북 전문가 중의 한 명인 텅스드 플래처 스쿨 이성윤 교수가 “대화를 바탕으로 한 북한과의 신뢰 구축을 향한 정책은 과감히 포기하고 지금은 압박외교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0월 15일 MIT에서 민주평화통일 보스턴협의회 주최 “북한의 대외전략과 한미 대응방향”이란 안보강연에서 강사로 출연한 이성윤 교수는 “북한과의 신뢰구축의 노력은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지만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인해 신뢰 구축은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이렇게 말했다.

평소 북한에 대해 보수적인 견해를 펼쳐온 이성윤 교수는 “북한은 식량 정책에 의한 기아현상으로 고통을 겪

고 있다. ‘통일은 경제적으로 말할 때 대박’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통일은 제2의 해방이고 한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통일이 돼야 기본적인 인권조차도 보장받지 못하고 인권 유린을 받고있는 북한 동포들까지 진정한 해방이 되는 것”이라 주장했다. 결국 북한 정권 붕괴를 통한 ‘흡수통일’의 길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밝혔다.

이 교수에 앞선 강연에서 엄성준 보스턴 총영사는 <북핵, 북한 문제와 우리의 대응>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좀 더 큰 틀에서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비교적 온건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엄 총영사는 “북핵문제는 북한 인

권과 북한 문제 등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무엇보다 국민이 하나되고 단합될 때 북핵 도발을 멈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엄 총영사는 또 “안보와 통일을 위한 재미동포사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밝히며 “한반도 안보와 통일을 위해선 동포사회 내 단합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회에 참여했던 텅스드 플래처 스쿨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김동현 학생은 “북한의 5차핵실험후 북한의 핵위협과 한국에 미치는 그 위험이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자세히 알게되었다.”고 말하고 “대응책으로 국제사회와의 공조하여 북한 핵도발 위협에 구체적으로 압박을 가할수 있다는 내용과 금융제재 또한 대응책재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인상깊었다.”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 박찬욱 <아가씨> 보스턴 독립영화제 가을포커스 상영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편집부 = 보스턴독립영화제는 10월 24일부터 6일간 6개의 작품을 초청해 폴포커스(FALL FOCUS) 영화제를 개최한다.

25일 화요일 저녁에는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가 오후 7시 하버드 스퀘어

소재 브레틀 극장에서 상영된다.

가을 저녁 하버드 스퀘어에서 박찬욱 감독의 영화를 만끽할 수 있는 기회다. 박감독의 작품 이외에도 인권, 스틸러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룬 수작들이 폴포커스에 참여한다. 관심있는 독자들

은 <http://iffboston.org/handmaiden/>를 참조하면 나머지 영화 상영 안내를 볼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 제4차 총영사관 갤러리 전시회 개막

김정임, 유수레 두 작가의 작품 전시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편집부 = 캐나다에 거주하며 활동중인 김정임 작가 (Textile Artist)와 뉴햄프셔에서 활동하는 유수레 화가의 작품이 뉴튼 소재 보스턴 총영사관에서 2017년 1월 31일까지 전시된다.

보스턴 총영사관이 주최하고 한미예술협회 주관으로 이루어진 제4차 전시회가 노스텔지아란 주제로 13일 개막됐다. 13일 총영사관에서는 엄성준 총영사, 김병국 한미예술협회 회장, 유수레 작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막 기념행사가 개최됐다.

엄성준 총영사는 인사말을 통해 갤러리 전시회를 통해 한인들간의 공감대와 친교를 강화해 나갈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노스텔지아(NOSTALGIA) 전시전에는 두 작가가 느꼈던 한국의 정서가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 김정

임 작가는 한국의 보자기에서 영감을 받아 펠트(Felt)라는 소재로 그만의 세계를 표현했다. 유수레 작가는 한국사회 달동네 시리즈를 통해서 파듯했던 달동네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 변화와 개발에 따른 희생의 모습을 표현했다는 설명이다.

김정임 작가는 한국의 보자기에서 영감을 받아 그만의 Textile Art를 표현하였으며, 유수레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달동네 시리즈를 통해 그리움의 정서와 변화와 개발에 따른 희생, 또한 그에 따른 모습을 표현 하였습니다.

총영사관 측은 “이번 전시를 통해서 내가 그리워하고 기억하는 한국은 어떤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ostonkorean@hotmail.com



(위)엄성준 총영사, 김병국 한미예술협회 회장, 유수레 작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막 기념행사가 개최됐다. (아래)총영사관내 전시관 모습

#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 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tsboston.net

## 정진수

CPA / MBA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료(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 미국인들 한국음식과 문화 관심도 높았다

뉴햄프셔 한인회 한국음식 및 문화체험 행사 성황  
한인회관 건축기금, 운영기금도 4천여불 모금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햄프셔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처음 시도한 한국음식과 문화체험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뉴햄프셔한인회는 10월 15일 회관 건립기금 모금을 위한 한국음식 및 문화체험행사를 내슈아 소재 한마음교회 (담임 최지원목사)에서 개최했다.

행사시작 시간 전인 9시부터 방문객들이 찾았으며 11시에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찾아 한국음식을 즐겼다. 방문객 중에는 한시간 거리인 포츠머스에서부터 찾아온 가족도 있어 미국 현지인들의 한국음식과 문화에 대한 관심이 드러났다.

한국음식은 비빔밥, 잡채, 튀김만두, 불고기, 김밥, 볶음밥, 그리고 김치가 전시됐다. 보기좋은 육각형 용기에 아름답게 담긴 비빔밥을 고추장에 비벼서 그 자리에서 비우는 사람을 비롯해

다양한 방문객들이 김밥, 떡, 양념생고기 등을 구입했다. 음식은 오후 2시까지 모두 팔려 매진되는 등 인기를 모았다.

종이접기와 한글로 이름쓰기, 붓글씨 쓰기, 전통게임 등 한국문화체험도 방문객들의 관심 거리였다. 전시장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방문객들이 찾아 관심을 보였다. 한국문화체험은 여러 단체의 도움으로 풍부해졌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협의회의 한순웅회장은 한글 이름쓰기 활동을 지원했고 윤미자 종이문화재단 보스톤지부장은 종이접기작품, 병풍들을 전시하고 설명했다. 서예가 이상희옹은 서예작품을 전시했다. 포츠머스 박선우 태권도장의 미국인 단원들은 태권도 시범을 보였다.

뉴햄프셔 한인들도 음식을 준비하고 홍보했으며 한인 유학생들은 자원봉사로서 도왔다. 조은경 한인회장은

“뉴햄프셔주 한인, 유학생, 그리고 여러 단체들까지 동참하고 후원함으로써 이번 행사는 더욱 빛났다”고 밝혔다. 조회장은 “아침일찍 달려온 한인 동포들과 유학생들, 한국을 사랑하는 미국인들, 그리고 인근 지역사회의 학생들이 행사장 곳곳에서 수고하였다”고 감사를 표시했다.

이번 기금모금행사에는 약 100여명이 참여해 4천불이 넘는 기금을 조성했다. 뉴햄프셔 한인회는 이 행사를 통해 얻어진 모든 수익금은 한인회관 건립기금과 한인회 발전기금으로 적립된다고 밝혔다.

조회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자원봉사한 한인들과 음식을 마련해준 한인들 이름 한명 한명을 모두 거론하며 격려하기도 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공연을 마친 KKM 프로젝트의 뮤지션들. 왼쪽부터, 피아니스트 Chase Morrin, 피아니스트 Chris McCarthy, 가야금 김도연, 드럼 Eli Cohen, 보컬 정원미, 작곡가 홍재현 - 사진 Joseph Lee Photography

## 보스톤 음악과 한국음악의 신선한 만남

한국의 '영적 음악'을 테마로 진행된 전통음악 콘서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청년 음악가 단체 KKM 프로젝트가 지난 10월8일 (토) 자메이카 플레인 소재의 세인트존스 교회(St. John's Episcopal Church)에서 ‘한국 영적음악의 밤’ 공연을 열고 보스톤 음악과의 만남을 시도했다.

이번 공연에서 KKM 프로젝트는 자메이카플레인 소재의 공연제작단체 JP Concerts와의 협력을 통해 보스톤 음악 현장에서의 한국 전통 음악의 저변확대를 도모했다.

이들은 체이스 모린, 크리스 맥카시, 일라이 코헨, 벤 스테프너 등 뉴잉글랜드음악원 출신의 젊은 미국 아티스트들과의 협연을 통해 새로운 모습의 한국 음악을 선보였다.

KKM 프로젝트의 홍재현 작곡가는 짧은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음악을 통해 ‘신’이라는 영적 존재들과 소통해왔다. 오늘 이 공연에서는, 우리의 음악을 통해, 이 자리에 와 주신 여러분의 영혼과 소통하고 싶다”고

전했다.

또한, KKM 프로젝트 가야금 연주자 김도연씨는 “무속음악(exorcism music)을 연주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선 무섭다고 생각한다. 오늘 이 공연을 통해 한국의 무속 음악이 우리 전통음악의 한자락이며, 매우 흥미롭고 극적인 음악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다”고 전했다.

콘서트에 참석한 보스톤 총영사관 이광석 영사는 “이 곳 음악인들과 일반 대중들에게 우리 국악에 담겨있는 정서와 고유 사상을 멋진 연주로 표현해 준 뜻 깊은 기회가 된 것 같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관람소감을 전했다.

KKM 프로젝트는 또다른 모습의 국악을 선보일 공연을 기획 중이다. KKM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kkmproject)에서 확인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1. 한복을 입은 한인 자원봉사자들 2.비빔밥, 잡채 등 한국음식을 판매하고 있는 뉴햄프셔 한인회 박선우 고문 3. 뉴잉글랜드 한국학교협의회 한순웅회장은 한글 이름쓰기 활동을 지원했고 윤미자 종이문화재단 보스톤지부장은 종이접기작품, 병풍들을 전시하고 설명했다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사과 상해 파산 보호 비즈니스/리스 IRS/DOR/UI 신용카드 채무조정 이민법**

전화: (781) 712-1700 CHANG & ASSOCIATES, P.C.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시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내빙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I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onelshe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세사모 회원들과 일반 참가자 20여 명은 세월호 침몰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추모회를 가졌다

## 보스톤에서 세월호 추모집회 가져

보스톤, 뉴욕, 시카고 등 끝나지 않는 추모 '세월호 집회' 노란우산, 종이배 등 퍼포먼스 진행, 시민들의 관심 독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실 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보스톤 엄마 아빠들이 다시 나섰다. 지난달과 이번달 초 시카고와 뉴욕에서 이어진 미국 내 세월호 추모 행사가 보스톤으로 확산된 것이다.

15일 크리스천 허터 공원 (Christian Herter Park)에 모인 '보스톤 세월호를 잊지않는 사람들의 모임 (이하 세사모)' 회원들과 일반 참가자 20 여명은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희생자 추모회와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이금주 세사모 회장의 개회사, 묵념, 추모시 ( '깊은 슬픔' 도종환 시인 作) 낭독, 가두행진과 세사모 회원들이 준비한 퍼포먼스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날 세사모가 준비한 퍼포먼스는 회원들이 가져온 노란우산을 펼치는 '세월호 기억 노란우산 프로젝트'였다. '노란우산 프로젝트'는 희생자 가족에게 위로와 응원을 전하는 의미에서 6월 제주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노란우산 펼치기 퍼포먼스' 후 회원들은 공원을 행진하며 세월호 사고를 알리는 전단지 배부했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노란 종이배를 물에서 건지는 것이었다. 세사모 회원들은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4월 16일을 의미하는 0416 모양의 하드보드지 위에 올려진 노란색 종이배를 찰스강변에 띄우고 그 종이배를 다시 건져 올리며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의식을 가졌다.

앞선 개회사에서 이금주 회장은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난지 2년 반이 지났지만 우리는 아직도 왜

아이들이 고통속에 죽어가야 했는지 모른다"며 세월호의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세월호 사고는 우리 모두가 슬퍼하는 일이지만 그 슬픔을 행동으로 보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며 "여러분의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는 여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관심 있게 지켜보던 미국인 부부 댄과 수잔 씨는 "페리 사고가 일어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피해자 유족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듣고 놀랐다"며 "자신들이 지금 피해자 유족이라면 어떤 느낌일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아이오와에서 참석한 일반참가자 최원석 씨는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없어서 안타까웠다"며 "세월호의 피해자 유족들이 진실 규명과 정의 회복을 위해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행사가 끝난 뒤 이 회장은 "1세대 한인분들은 보수적이라 세월호 모임에 반대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보수 진보를 떠나 많은 분들이 지지하고 성원에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잊지 않고 슬퍼하는 것에서만 끝낼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설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며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추모집회를 정기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밝혔다.

itshunne@bostonkorea.com

## 알기쉬운 미 대선, 유학생 위한 세미나 열려

BU 한인 동아리 그루퍼리안 개최, 열띤 토론 펼쳐  
미 대선은 한국에 큰 영향, 힐러리 지지성향 뚜렷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미국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는 한국인 유학생들의 시선은 어떤 모습일까. 미 대선을 알기 쉽게 이해하고 한국인의 시각에서 미 대선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유학생들의 좋은 호응을 얻었다.

보스톤 대학의 국제관계 및 시사이슈 동아리 '그루퍼리안(GroupIRean)'의 첫 번째 세미나인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한반도 정책'이 14일 보스톤대학 퀘스천 비즈니스 스쿨 222호실에서 개최되었다. 40 여명이 한국인 유학생들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한국에서도 아직 대통령 투표를 해보지 못한 새내기 학생들부터 미국 취업에 관심이 있는 고학년을 까지 다양한 전공과 나이의 학생들이 자리해 적극적인 참여를 보였다.

세미나는 그루퍼리안 멤버들의 프리젠테이션 발표에 이어 질의응답 및 자유주제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프리젠테이션 발표에서는 미국 정세에 어두운 유학생들을 위해 한국의 대통령 선거제와 미국의 선거제의 차이점을 소개하는 것을 비롯하여 두 후보자 소개 및 공약 설명, 각 후보를 바라보는 미국 내에서의 시각 차이와 지지층 소개, 특정 정책에 대한 각 후보의 시각차이등을 알기 쉽게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유학생들은 이번 대선의 가장 큰 관심사로 외교안보문제를 꼽았다. 홍성원 씨(24, BU 공과대학)는 "한국의 정치는 미국의 대외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한국에도 중요한 문제"라고 말하며, "과격한 변화를 추구하는 후보보다 현 상태를 유지시킬 수 있는 후보를 지지하고 싶다"는 의견을 남겼다. 조민현(19, 국제관계 전공)씨도 "미국에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 각 후보의 외교정책들은 득과 실이 많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잘 따져봐야 한다"며 "예기치 못

한 변화에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참가자들의 미 대통령 후보 지지율은 한국 내 여론 동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날 세미나에서 실시한 2차례 모의투표에서는 힐러리 후보가 세미나 시작 전과 후 각각 22표와 25표를 획득했다. 이에 반해 트럼프 후보는 0표에서 1표로 저조한 지지를 얻었다. 지지보류는 각각 11표와 7표였다. 지난 9월 30일 갤럽 인터내셔널이 발표한 45개국 비교조사'에서 한국은 82%가 힐러리 후보를, 3%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그루퍼리안의 공동대표 김보경(보스톤대학 3학년, 국제관계학)씨는 세미나가 끝난 후 "유학생들은 외국에 살면서 점점 한국 이슈에 둔감해지고, 또 외국인의 입장에서 미국의 이슈도 놓치기 쉽다"며 "그루퍼리안을 통해 유학생들이 한국과 미국의 이슈를 서로 토론하며 의견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텍사스 주에서 고교생활을 한 또 다른 공동대표인 김민영(정치학, 국제관계학 3학년)씨는 "이번 대선 후보 지지에 대한 분위기는 텍사스와 매사추세츠가 많이 다르다"며 "힐러리와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견을 균형 있게 소개하여 매사추세츠와는 다른 분위기의 미국 사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었다"고 말했다.

미 대선을 주제로 첫 번째 세미나를 주최한 그루퍼리안의 다음 계획은 북한 문제다. 올해 안으로 북한에 관련된 다큐멘터리 영화를 상영 준비 중이라는 그루퍼리안은 보스톤 대학의 북한 인권 동아리 '링크(Link; Liberty in North Korea)'와 함께 이벤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며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부탁했다.

itshunne@bostonkorea.com

광어,우럭  
사시미에  
한잔 생각나시면  
오빠 스시로  
오세요

185 Harvard Ave. Allston

617 202 3808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보스톤에 처음 오시거나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스톤 일대의 아파트/콘도/  
주택 매매 렌트를 성심 성의껏  
세심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도파드하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고객들의  
희망사항에 맞춰 찾아드립니다.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COLDWELL BANKER  
Century 21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1261 Centre St. Newton, MA 02459  
Office: 617.969.2447 Cell: 857.919.3055  
Email: SeongAe.Kim@NEMoves.com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뉴잉글랜드의 호박농장 12곳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매년 10월 말이 되면 미국 전역의 현관문과 창문 곳곳에 호박등이 달린다. 큰 호박의 속을 도려낸 뒤 도깨비 얼굴을 새기고 양초를 넣어 밝힌 이것을 잭오랜턴(Jack-o' Lantern)이라고 부른다.

할로윈을 상징하는 호박등을 잭오랜턴이라고 부르게 된 유래는 아일랜드 전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설에 따르면 교활한 잭이라는 사람이 마귀를 속여 골탕먹인 뒤 죽었는데, 죄를 지어서 천국에도 가지 못하고 마귀에게 미움을 사 지옥에도 가지 못하게 되었다. 추위와 암흑 속을 방황하던 잭은 결국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마귀에게 사정하여 단 하나의 숲을 얻을 수 있었고, 이 숲의 온기를 유지하기 위해 사탕무 안에 넣어 랜턴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다.

이 전설에 따라 사탕무를 사용하여 잭오랜턴을 만들어오던 아일랜드 이주민들은 미국으로 건너온 이후 사탕무보다 호박이 더 구하기 쉬워 지자 호박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전설처럼 잭오랜턴등을 조각하기 위해서든, 할로윈 분위기를 위해서든, 아니면 먹으려는 목적으로든,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에는 가을을 맞아 수확하러 갈만한 호박밭이 많이 있다. 보스톤닷컴(boston.com)에서 소개한 뉴잉글랜드 호박밭 12곳을 소개한다. 호박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멋진 가을경치를 구경하러 가기도 좋은 곳들이다.

Bishop's Orchards Farm Market & Winery (Guilford, Connecticut)

1871년부터 시작된 비숍 농장에서는 9월 중순부터 할로윈 전까지 호박피킹을 할 수 있는 밭이 대중에게 개방된다. 호박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을 수확물 - 국화꽃, 옥수수, 수세미도 같이 수확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농장에 있는 양조장과 농장가게를 둘러볼 수 있다.

주소: 1355 Boston Post Rd, Guilford, CT  
전화: (203) 453-2338

홈페이지: [bishopsorchards.com](http://bishopsorchards.com)

Lyman Orchards (Middlefield, Connecticut)  
올해로 275주년을 맞이한 이 오래된 농장에서 는 기념 행사가 열린다. 11월 12일에 열리는 어린이 로드 레이스를 비롯하여 일년 내내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된다. 여러가지 농작물에 대한 피킹 이벤트도 진행중인데, 현재 할로윈 시즌을 맞아 두가지 종류의 호박, 조각용과 설탕 호박이 제공되고 있다.

주소: 32 Reeds Gap Rd, Middlefield, CT  
전화: (860) 349-1793

홈페이지: [lymanorchards.com](http://lymanorchards.com)

Pumpkin Valley Farm (Dayton, Maine)  
호박피킹 뿐만아니라 옥수수 밭로, 동물농장, 건초마차 타기 등 다양한 농장과 관련된 활동들을 즐기기에 좋은 곳이다.

주소: 100 Union Falls Rd, Dayton, ME  
전화: (207) 929-4088

홈페이지: [pumpkinvalleyfarm.com](http://pumpkinvalleyfarm.com)

Sandy River Farms (Farmington, Maine)  
갓 구운 쿠키와 파이등을 판매하고 있는 농장마켓으로 유명한 곳이다. 농장마켓에서 허기를 달래고 호박피킹을 한 뒤 옥수수 밭로를 탐험해 보는 코스를 추천한다.

주소: 560 Farmington Falls Rd, Farmington, ME  
전화: (207) 778-3835

홈페이지: [sandyriverfarms.com](http://sandyriverfarms.com)

Cider Hill Farm (Amesbury, Massachusetts)  
1978년부터 시작된 이 농장에서는 호박 뿐만

아니라 가을 시즌에 맞는 과일과 야채들을 수확할 수 있다. 농장에 있는 가게에서 장을 볼 수도 있는데, 즉석에서 만든 사이다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육류와 치즈, 빵등을 구입할 수 있다.

주소: 45 Fern Ave, Amesbury, MA

전화: (978) 388-5525

홈페이지: [ciderhill.com](http://ciderhill.com)

Fletcher Farm (Southampton, Massachusetts)  
플레처 농장에는 호박 밭이 있을 뿐만 아니라 150마리의 소를 키우는 목장이기도 하다. 100에이커 규모의 이 농장은 뉴잉글랜드지역 농업 마크/카봇 크리머리 협동조합의 멤버다.

주소: 22 Gunn Rd, Southampton, MA

전화: (413) 527-6888

홈페이지: [fletcherfamilyfarm.com](http://fletcherfamilyfarm.com)

Kimball Fruit Farm (Hollis, New Hampshire)  
김벨 농장으로 호박을 수확하러 가게 된다면, 사과 또한 잊지말고 챙겨올 것을 추천한다. 이 농장의 35개의 다양한 농작물들은 보스톤 지역의 많은 레스토랑에 납품되고 있다.

주소: 184 Hollis St, Pepperell, MA

전화: (978) 433-9751

홈페이지: [kimballfruitfarm.com](http://kimballfruitfarm.com)

McKenzie's Farm (Milton, New Hampshire)  
호박, 사과, 토마토, 산딸기, 블루베리를 피킹할 수 있는 농장이다. 가끔씩 맑은 날 방문해서 워싱턴 산까지 내다보이는 멋진 경관을 즐기고 오자.

주소: 71 NE Pond Rd, Milton, NH

전화: (603) 652-9400

홈페이지: [mckenziefarm.com](http://mckenziefarm.com)

Escobar's Highland Farm (Portsmouth,

Rhode Island)

농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제공된다. 호박피킹 뿐만 아니라, 8에이커 규모의 옥수수 밭로, 건초마차타기, 목장투어 등이 있다.

주소: 133 Middle Rd, Portsmouth, RI

전화: (401) 683-1444

홈페이지: [escobarhighlandfarm.com](http://escobarhighlandfarm.com)

Morris Farm (Warwick, Rhode Island)  
1915년부터 시작된 이 농장은 3대에 걸쳐서 운영되어 오고 있다. 호박밭을 방문하고, 농장투어에 참여하고 옥수수 밭로를 탐험해보자.

주소: 2779 Warwick Ave, Warwick, RI

전화: (401) 738-1036

홈페이지: [farmfresh.org/food/farm.php?farm=15](http://farmfresh.org/food/farm.php?farm=15)

Sam Mazza's Farm Market (Colchester, Vermont)

호박피킹, 옥수수 밭로, 직접 구워낸 빵 시식 등이 가능하다. 꽃을 재배하고 있는 그린하우스를 방문할 수도 있다.

주소: 277 Lavigne Rd, Colchester, VT

전화: (802) 655-3440

홈페이지: [sammazzafarms.com](http://sammazzafarms.com)

Green Mountain Orchards (Putney, Vermont)  
호박을 비롯한 가을 수확물 들을 피킹한 후 농장에서 갓 만들어진 사이다를 마실 수 있다. 이 농장에 있는 베이커리에서는 파이, 도넛 등을 판매하고 있다.

주소: 130 W Hill Rd, Putney, VT

전화: (802) 387-5851

홈페이지: [greenmountainorchards.com](http://greenmountainorchards.com)  
[sun@bostonkorea.com](mailto:sun@bostonkorea.com)

**Grace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은혜한의원에서**  
희망을 도와드립니다.

- ① 요통, 목통, 관절통, 근육통 등 만성 통증
- ② 두통, 편두통, 어지러움, 메니에르 증후군
- ③ 비뇨, 소화, 불면증, 위장, 스트레스 장애
- ④ 만성 알러지성 비염, 축농증
- ⑤ 소화장애, 변비, 과민성 대장증후군
- ⑥ 골관절염,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 ⑦ 만성 피로 증후군, 만성 스트레스
- ⑧ 만성 질환의 예방, 건강관리
- ⑨ 각종 생활습관병 예방, 건강관리
- ⑩ 각종 생활습관병 예방, 건강관리

**781.862.1842**  
www.graceaom.com

442 Ma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01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름압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쓰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83**  
(한국어문의)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9

**GB Family Physical Therapy**  
**가족 물리치료 병원**

**베시츄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http://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http://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o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 학업 지도 튜터링

####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2015년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mailto: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mailto: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mailto: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 전 레드삭스 투수 커트 실링 정치에 도전

2018년 선거에 상원의원 출마 결심  
스스로 보수주의자, 트럼프 지지자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전 레드삭스 투수였던 커트 실링이 엘리자베스 워렌 연방 상원의원을 상대로 다음 선거에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004년과 2007년에 레드삭스를 월드시리즈 우승까지 이끌었던 실링은 발목 수술 직후 피가 묻은 양말을 신고 등판한 일화가 유명하다.

실링은 지난 18일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연방 상원의원 출마 계획을 말했다. 3시간 동안 진행된 이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는 청취자들로 부터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2018년 선거에서 워렌 의원을 상대로 출마를 결심했다는 실링은, 그러나 먼저 아내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실링은 “난 결심을 굳혔다. 출마할 것이다” 라며 “그러나 먼저 아내인 손다와 이야기를 해야 한다. 나와 아내의 결혼 생활,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실링은 올해 매사추세츠 주민투표 질문 중 하나인 차터스쿨을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워렌 의원과 상반된 의견

을 보였다. 실링은 투수 시절 상대 팀 선수들을 꺾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워렌 의원과의 토론이 전혀 두렵지 않다고 밝혔다.

스스로를 보수주의자이고 도널드 트럼프 지지자라고 밝힌 실링은 올해 초에 ESPN 야구 해설가 자리에서 해고되었다. 페이스북에서 트랜스젠더의 인권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실링은 온라인 라디오쇼를 진행하고 있다.

실링은 선수 생활에서 은퇴한 뒤 38 스튜디오라는 게임회사를 차렸다. 매

사추세츠 주에 있었던 38 스튜디오는 2010년에 로드 아일랜드 정부가 7,500만 달러의 대출에 대해 보증을 서는 대가로 로드 아일랜드로 이전했으나 2년이 채 되지 않아 파산했다.

이를 두고 로드 아일랜드의 지나 레이몬드 주지사는 주민들이 상처를 받았으며 실링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실링은 라디오 청취자들에게 “내가 무엇 때문에 사과를 해야 하느냐” 고 오히려 반문했다.

로드 아일랜드 정부는 실링을 포함하여 38 스튜디오 대출 관련 협상에 관여한 주요 인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최근에 실링에 대하여 혐의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jsi@bostonkorea.com



레드삭스 투수였던 커트 실링이 연방 상원의원에 출마한다



테이크 아웃에 주로 사용되는 스티로폼 용기가 캠브리지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 캠브리지 식당, 스티로폼 용기 사용 금지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캠브리지 식당에서 스티로폼으로 된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도시에 합류했다. 20일부터 캠브리지에서 1회용 스티로폼 용기에 음식이나 음료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캠브리지 시 정부는 스티로폼은 자연적으로 분해가 되지 않고 재활용이 어려운 데다가, 몇몇 연구 결과 스티로폼 용기에 음식이나 음료를 담을 경우 건강에 유해한 화학 물질이 스며들 수 있기 때문에 금지 시킨다고 밝혔다. 캠브리지 식당에서 금지되는 품목은 물이나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스티

로폼 컵과 함께 주로 테이크 아웃 주문에서 많이 사용되는 1회용 용기다.

캠브리지는 스티로폼 용기를 금지하는 대신에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조리되지 않은 육류나 생선, 달걀 등을 포장하는 데에는 여전히 스티로폼 제품이 사용될 수 있다.

캠브리지 시의회는 스티로폼 용기 금지 법안을 작년에 통과시켰다. 캠브리지 외에도 서머빌과 브루클라인에서 비슷한 법안이 시행 중이다.

jsi@bostonkorea.com

# 서울설렁탕

##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저가오농복, 서울설렁탕의 미션, 국밥, 보쌈, 두육과 함께 각종 두육류 즐기세요!

서울설렁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BeefSoupSoul.com

Seoul or Seoul in Allston  
158 Cambridge St, Boston  
617.873.8888  
SeoulFoodSeoul.com

## “고객의 이익을 늘 앞자리에 두겠습니다”

### 스티븐 손

SINCE 2001  
수석부사장, 브로커  
부동산전문, 리얼터

주책,론도,사업체,건물,투자

617.290.0623 | Sson@ownnewengland.com  
Son2323@gmail.com

## "HOT" 비즈니스 매물 정보!

RT.128 & I-95 안쪽에  
모든 장비 갖춘 세탁소:  
부부 운영 Net \$100K이상 \$150K(강추)

Waltham 불안의 픽업 스토어:  
많은 확대 가능성!  
신규 또는 확장에 적격 \$149K(필건)

# 마리화나는 위험하지 않다고? 반드시 그렇지 않다

마리화나 특히 청소년 뇌 발달에 위험  
10명 중 1명 꼴로는 중독, 마약 중독 입문  
술, 담배 유해성 강조에 비해 안이한 인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경경 기자 = 매사추세츠 주 내 마리화나 합법화 여부가 11월 8일 주민투표로 결정된다. 불과 투표일까지 14일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찬성의견은 반대의견을 15%정도까지 따돌리고 앞서있다.

마리화나 합법화 추세는 미국 내에서 상당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미 미국 내 5개 주에서 오락용 마리화나를 합법화 했고, 의학용 마리화나 사용을 허한 주까지 모두 합치면 총 23개에 달한다.

미국 뿐만 아니다.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이러한 마리화나 합법화는 다른 무엇보다 마리화나가 해롭지 않다는 인식이 확대된 것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마리화나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판단은 위험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8일 보스톤글로브는 마리화나의 위험성, 특히 청소년 유해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보도했다.

마리화나가 다른 마약에 비해 유해하지 않다고 인식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미미한 중독성에 있다. 이에 대해 보스톤 아동 병원 청년기 물질남용 프로그램 (Adolescent Substance Abuse Program)의 디렉터 닥터 샤론 레비는 “마리화나가 중독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레비에 따르

면 마리화나를 사용한 11명의 청소년 중 최소 1명이 중독되었으며, 그중 몇몇은 마리화나를 시작으로 중독성이 더 강한 마약에 입문하게 되었다.

레비는 자신의 환자 중, 10학년때부터 하루에 몇번씩 마리화나를 피우기 시작한 18살 고등학생의 이야기를 예로 들었다. 이 학생은 마리화나를 피우기 시작한 이후 고등학교에서 퇴학당하고 부모님의 돈을 훔치게 되는 등 탈선의 길로 접어들었다. 레비는 “그 학생과 학생의 가족들은 마리화나 중독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하며 “(이러한 인식 때문에) 우리는 마리화나 합법화의 부작용을 아직 받아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마리화나가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 자체가 위험하며, 이는 특히 청소년들에게 위험할 수 있다. 마리화나가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리화나 흡연이 유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의 약물 남용 조사연구(The National Survey on Drug Use and Health)에 따르면 12세에서 17세까지의 담배와 알코올의 소비는 지난해 대비 감소한 반면, 마리화나의 습관적 소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버드 메디칼 스쿨의 중독의학 센터의 부교수 조디 길맨(Jodi Gilman)은 “고등학교에 가서 ‘담배와 알코

올이 유해한가’라고 질문하면 모든 학생들이 손을 들지만, ‘마리화나가 유해한가’라는 질문에는 손을 드는 학생은 없다”고 말했다.

길맨은 마리화나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며, 이를 통해 마리화나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려는 노력을 하고있다. 작년, 18세에서 25세 사이의 마리화나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의 뇌의 보상시스템의 차이에 대한 연구를 출판 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한 그룹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마리화나 흡연이 기억력 감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내기도 했다.

길맨은 이 연구에 대한 출판 이후 엄청난 양의 혐오 메일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마리화나가 암이나 심장병과 같은 질병의 발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인지능력과 심리적인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 증명된바 있다. 마리화나의 주요 성분 중의 하나인 테트라하드로카나비놀(Tetrahydrocannabinol (THC))은 뇌의 수용체에 결합하여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세포 내 변화를 주도하는 이 수용체가 마리화나와 결합하면 뇌 또는 척수 등에서 활성화 되는데, 이로 인해 환각작용, 기억력 손상, 운동능력 저하, 통증 감소등이 나타나게 된다. 즉, 특정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THC는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평범한 사람이 마리화나를 장기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일상생활에 서서히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국에는 섬세하게 설계된 일상 시스템의 균형을 깨트리게 된다.

THC가 인지시스템에 미칠수 있는 악영향은 일찍이 쥐 실험을 통해 증명된바 있다. THC에 반복적으로 노출

된 쥐들에서 뇌의 수용체가 사라졌으며, 긍정적인 활동에 대한 자연적 반응이 무뎌지고 같은 정도의 효과를 위해서 더 높은 양의 THC에 노출되어야 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실제로 마리화나에 포함된 THC의 양은 1960년대에 비해 2000년에 15배 증가했다.

현재 마리화나를 둘러싼 찬반논란은 과거 미국에서 있었던 담배를 둘러싼 논란과 유사하다. 1950년대에는 미국인들의 거의 절반 정도가 담배를 피웠다. 그에 따른 위험성은 눈에 띄게 보일 만큼이 아니었지만, 서서히 공중보건에 대한 우려가 흡연을 권장하던 기업의 힘을 전복시켰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1975년과 2000년 사이 미국에서 암으로 인해 죽어갈 수 있었던 800,000명을 구할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sun@bostonkorea.com



마리화나는 담배뿐만 아니라 캔디 등 각종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을 사시거나 파실때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해 일 하겠습니다.

**집을 사고 팔면 언제든지 승진(GINA)과 승원(PETER)을 찾아 주세요.**

**TEL) 978.866.3248(최승진), 617.780.7839(주승원)**

**gchol@ownnewengland.com, pju@ownnewengland.com**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 클린턴 토론 3연승 승세 굳히기...문제는 대선 이후

(서울=뉴스1) 최종일, 정이나, 윤지원 기자 = 미국 대선 최종 TV토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대선 결과에 불복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미국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시킨다고 비난했고, 공화당 내에서는 한계선을 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선을 20일 남겨두고 부동층 공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던 19일 토론에서 여러 주제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이전보다는 정책에 좀더 초점이 맞춰진 토론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에도 토론에서는 클린턴이 앞섰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 ◇대선 결과 불복 시사

CNN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는 라스베이거스 네바다주립대에서 클린턴 후보와 치른 3차이자 최종 TV토론에서 선거 결과 수용 여부에 대해 "나는 그때 그것(결과)을 검토하겠다. 지금은 어떤것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자인 크리스 월러스 폭스뉴스 앵커가 재차 입장을 묻자 트럼프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그때 가서 말하겠다는 것이다. 나는 당신들을 불안하도록 만들것이다"고 말해 파란을 일으켰다.

이에 클린턴은 트럼프의 답은 "소름끼친다"며 240년 미국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트럼프는 상황이 자신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마다, 모든 것이 조작됐다고 주장한다"고 꼬집었다.

클린턴은 또 "그의 발언과 그 의미를 분명히 잡고 넘어가자"며 "그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폄하하고 있다. 우리의 주요 2개 정당 중 하나의 후보가 이 같은 입장을 취하다니 끔찍하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켈리언 콘웨이 트럼프 캠프 선대본부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실제로는 선거 결과를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유로 "그가 이길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클린턴은 과거에 트럼프가 자신이 출연했던 리얼리티 TV쇼 '어프렌티스'를 에미상이 부당하게 외면했다고 불평한 적이 있다고 꼬집어 냈다. 이에 트럼프는 "나는 그걸 받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대선 결과 수용 발언 거부하는 공화당 의원들마저 분개하게 만들었다. 이날 토론 뒤 공화당 소속의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애리조나)은 트럼프의 발언은 "도리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린제이 그레이엄 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은 트럼프가 패배한다면, 그것은 "그가 후보로서 실패했기 때문이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성추행 의혹 '모두 거짓말'

이전 2차례 토론보다 정책에 조금 더 집중했던 이날 토론에서 트럼프는 자신을 둘러싼 일련의 성추문 의혹 제기의 배후에는 클린턴 캠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모든 의혹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클린턴 캠프는 "천박하다"고 비난하며 "나보다 여성을 더 존중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클린턴은 지난번 토론에서 트럼프가 여성에 대해 원치않는 접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자 피해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초 공개된 2005년 음담패설 동영상에서, 트럼프는 여성의 뜻에 반해, 그들을 더듬는 것을 자랑했다.

클린턴은 "도널드는 여자를 하찮게 만들면 자신이 더 큰 사람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는 그들의 존엄성과 자존심을 공격한다"며 "나는 그것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알지 못하는 여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하락세를 보이는 지지율을 반전시키겠다는 희망을 갖고 토론에 임했다.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자, 트럼프는 선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지지자들에게 필라델피아 등 소수인종이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선거일에 조작을 감시하라고 촉구해 우려를 낳고 있다.

이날 두 후보는 대법원장 선임, 낙태, 총기 규제, 이민, 러시아 사이버 공격 배후설, 시리아 사태, 경제 해법 등을 놓고 90분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사안에 따라서는 격분하는 모습도 보였다.

클린턴은 부유층에 세금을 인상해 은퇴자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트럼프는 인상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을 찾으려고 할 것이라고 공격했다. 이에 트럼프는 "이런 고약한 여자같은"이라고 맹비난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전 두차례 토론 때보다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 자격이 있음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였지만 상대를 모욕하고픈 충동을 참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날 트럼프는 수백만의 가짜 유권자가 등록됐다고 의혹도 제기했다. 또 이메일 문제를 거론하면 후보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트럼프는 "(국무부 기밀 이메일을 잘못 관리한) 클린턴은 이번 선거에 참여하면 안된다. 이는 선거가 조작됐다는 증거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한국, 방위비 더 내야"

이날 트럼프는 안보무임승차론을 재차 거론하며 한국과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독일이 충분한 방위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우디, 일본, 한국은 매우 부유하고 강력한 국가들"이라며 "이들 나라와의 합의를 재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클린턴은 트럼프가 핵무기에 대해 너무나 무신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도 비난했다. 클린턴은 트럼프는 "무척이나 무신경한 사람이다. 심지어 핵무기에 대해서도 그렇다. 그는 보 다 많은 국가들이 이걸 갖는 것을 지지한다. 한국과 일본, 심지어 사우디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총평에서 "이날 클린턴은 공직 생활을 수차례 변호해야 했고 트럼프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공격했다"며 "하지만 클린턴은 거의 당황해하지 않았으며, 트럼프의 조롱에 초연해지기 위해 단호하게 노력했다"고 평했다.

이날 클린턴과 트럼프는 지난 2차 토론 때처럼 악수를 하지 않고 토론에 곧바로 임했다. 미국의 대통령 후보들은 TV토론 전에 악수를 하는 것이 관례이다. 토론이 끝났을 때에도 악수는 없었다.

이날 토론 뒤 CNN 여론조사에서는 52%가 클린턴이 승리했다고 봤다. 트럼프는 39%였다. 클린턴은 지난 2차 토론(57%대 34%)과 1차 토론(62%대 27%) 때도 트럼프를 앞섰다. 트럼프 바로미터로 불리는 멕시코 폐소와 가치는 토론 직후 6주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투자자들은 클린턴이 승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이날 토론에 트럼프는 검은색 정장에 빨간색 넥타이를 매었다. 클린턴은 아이보리색 바지 정장을 입었다. 발언 시간은 클린턴이 좀더 쓴 것으로 나타났다. CNN은 클린턴의 발언 시간은 총 41분 46초이며, 트럼프는 35분 41초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allday33@news1.kr



힐러리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오른쪽)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19일 라스베이거스 네바다주립대학에서 3차 TV토론을 치렀다

**골프 레슨**

**US GTF 최성조 프로**  
Master Golf Professional  
aj.usgtr@gmail.com

**857.600.6755**

**HAPPY 해피돌상**

고급의 진품상자에 100% 원산지  
100% 원산지, 100% 원산지, 100% 원산지  
100% 원산지, 100% 원산지, 100% 원산지

문의 617.248.3131 Happydol@gmail.com

**RE/MAX**

**Eileen Park (마일린 박)**  
REALTOR®  
RE/MAX Unlimited

주백 | 콘도 | 커머셜  
점심점 도와드리겠습니다

Tel: 617.935.3241 |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420 Harvard Street, Brookline MA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youngdentistrypc.com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 애플, 27일 맥 신제품 공개 유력... 연휴시즌 전 발표

(서울=뉴스1) 황윤정 기자 = 미국 IT전문 매체인 리코드는 18일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오는 27일 맥 신제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맥 신제품 발표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지난달 애플이 맥용 운영체제(OS) 최신 버전인 시에라를 공개했지만 아직 신제품은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애플은 본격적으로 연휴 시즌에 돌입하기 전에 신제품을 내놓을 것이 유력하다.

애플은 상당 기간 맥 모델에 큰 변화를 주지 않았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엔 공개되는 신제품에 많은 수요가 몰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

번에 공개될 맥북 프로는 2012년 6월 이후 4년 만에 등장한 것이다.

맥 신제품 공개행사는 샌프란시스코보다는 쿠퍼티노에 위치한 애플 본

사나 인근에서 개최될 것이 유력하다. 이에 대해 아직 애플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yung@news1.kr



애플이 오는 27일 맥 신제품을 발표할 계획이다

## 美 세일에 OPEC 감산 빛 바래... "유가 50~60불 장기화"

(서울=뉴스1) 황윤정 기자 = 국제 유가가 배럴당 50달러에서 60달러 사이에 장기간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저유가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 미국 셰일오일 업체들은 비용 효율화에 힘써왔다. 이에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합의의 효과도 다소 빛이 바랄 것이라는 전망이

다. 지난달 말 OPEC 회원국들은 알제리에 모여 산유량을 제한하는데 잠정 합의했다. 이에 배럴당 40달러 초반에 머무르던 국제유가는 현재 50달러를 넘어선 상황이다. 그러나 박스권 유가 흐름이 또다시 장기화되며 대형 석유 기업들의 재정적 고통의 시간도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

◇"유가 50~60불 장기화될 것"...

셰일오일이 하방 위험

18일 영국 런던 'Oil and Money' 컨퍼런스에 모인 주요 원유시장 참여자들은 '50달러~60달러 유가' 장기화 전망에 대부분 공감하는 모습이었다.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의 앤드류 굴드 임원은 오는 2020년까지 국제유가가 크게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미국 셰일오일 생산이 늘어나며 유가에 하방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높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파티흐 비를 회장은 "미국 셰일오일 등 고비용 산유국들이 증산에 나설 것"이란 점을 지적했다.

그는 최근의 유가 랠리에 안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배럴당 60달러 부근의 유가 수준은 미국 셰일오일

산업에게 매우 큰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형 석유 트레이딩 업체인 비틀, 군보르, 머큐리아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들도 내년 유가 전망치를 55달러와 58달러 사이에서 제시했다.

◇'현 유가 장기화 전망' 속 셰일업체 '비용 효율화'도 지속

저유가가 지속되는 동안 대형 석유 기업들의 고통도 가중됐다. 엑손모빌, 셰브론, BP 등의 기업들은 지난 2분기 나란히 실적 저하에 직면했다. BP의 밥 더들리 CEO는 "석유업계는 그간 너무 비대해졌고 너무 많은 비용을 지출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우량 프로젝트를 면밀히 선별해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셰일오일 업계가 매우 성공적으로

## 테슬라, 생산중인 모든 차에 새 자율주행 장치 장착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전 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신제품 모델3를 포함해 현재 생산중인 모든 자동차에 자율주행 하드웨어 장치가 탑재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테슬라는 성명서를 통해 새로운 자율주행 장치를 탑재한 모델S

와 모델X을 이미 제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새로운 자율주행 장치에서는 일시적으로 1세대 자율주행(오토파일럿) 장치에서 이용가능했던 기능 중 일부가 빠질 것이라고 테슬라는 전했다.

hemingway@news1.kr



비용 효율화를 이뤘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코노코필립스의 라이언 램스 CEO는 퍼미안 분지, 바켄 이글포드 등지의 신규 유전 프로젝트들은 배럴당 40달러의 유가 수준에서도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유가 수준이 장기화될 것이

라는 전망 속에서 회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은 '비용 절감'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배럴당 50달러 이하 수준에서 회사의 손익분기점이 형성될 수 있도록 비용 효율화를 계속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g@news1.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치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 레스토랑 창업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 ✓ 치킨 관련 전문업체
- ✓ 소스 공급 및 요리 기술 전수
- ✓ 영업 노하우 전수

치킨 가게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 20년 경력의 파랑돌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스턴에서 레스토랑 운영중이므로 인제돈 맛과 실습 가능.  
주방기술자파문에 파문고생하시는 분, 더 이상 마음고생하지 파치고 파랑돌로 연락주세요.  
검증된 노하우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치킨 메뉴를 추가하고 싶으신 분**  
**식당을 준비하시는 분**  
**새로운 메뉴를 추가하고 싶으신 분**



모든 제품은 한국 파랑돌공장에서 안정적 공급이 됩니다.  
안심하고 장사에만 전념하실 수 있습니다.

|         |         |                |
|---------|---------|----------------|
| 치킨양념 소스 | 참깨 소스   | 파전 파우더         |
| 치킨간장소스  | 불고기 소스  | 프렌치프라이 시즌닝     |
| 치킨 파우더  | 순두부 시즌닝 | 부대찌개 소스        |
| 치킨 염지제  | 순두부 다대기 | 갈비 소스, 자육복음 소스 |
| 떡볶이 소스  | 사면 육수   | 김치찌개 소스        |

전화: 857.237.4985(문자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메일: farandoleusa@gmail.com  
웹사이트: www.farandole.co.kr  
한국공장: 경기 안산 단원 성곡 638-4 102동 파랑돌

**레스토랑 주소: 175 Massachusetts ave, Boston, MA 02115 (버클리 음대 맞은편)**

파랑돌 공장 전경





# 수잔 안 부동산

**"TOP PRODUCER"**  
**#1 Agent Million Sales**

Cell: 339.224.1512

안수잔의 '고객 만족 최우선' 서비스

- 집 빠르게 팔고 사고
- 최고가격, 최고 서비스
- 건물 투자 상담





**가격인하**

**Newton Centre, Newton \$ 1,349,900**  
보기도문 전망좋은 투자 지역, 뉴턴 센터 지하철 도보 7분거리.  
방5개, 화장실 4.5개. 3개의 출입구. 하숙하기에 좋은 위치.



**Newton 2 Family \$749,900**  
27구 세들어 있음, 총 수입 약 55,000,  
대지 면적 6555 sq.ft, 년Tax \$5664



**Newton \$1,300,000**  
27구입주, 연수입\$84,500, 대지면적9229sq ft,  
업데이트 많이 되어 있음.  
렌트하기 좋은 위치( T 근처), 보스턴칼리지



**Newton \$1,999,000**  
2013년 새집, 최고 학군, 주거면적 5857sq ft,  
대지면적 10990 sq ft, 방5개, 화장실5.5개  
Energy Star, Finished Basement,  
Newton South High school



**Burlington \$ 589,000**  
2013년 새집, 방3개, 화장실 2.5개,  
주거 면적 2000sq ft, 대지 면적 4775 sq ft.  
H mart 상권 근처.



**Boston Fenway \$ 364,000**  
방 1개, 화장실1개, 주거면적 576sq ft,  
콘도 fee \$ 298 (Heat, Hot water포함)  
보스턴 중심의 대학가, T Station, 공원, 박물관.



**Winchester \$1,390,000**  
2013년 새집 최고의 학군 방4개 화장실 4.5개  
주거면적 4000sq ft, 대지면적 17548sq ft,  
마루 바닥, 최고의 학군, 편리한 교통

**"TOP 에이전트가 TOP으로 모입니다"**

**Centre Realty Group**  
1280 Centre St, Newton Centre, MA  
460 Main St, Watertown, MA

# "돈도 실력, 너희 부모를 원망해라" 정유라씨 SNS 글 논란

이대 특혜 입학 뒷이야기  
돌아 심정 밝힌 듯

형 특혜 논란 등으로 주변에 뒷이야기  
가 돌아 정씨가 이에 대한 심정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potgus@news1.kr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60)의 딸 정유라씨(20)가 과거의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것으로 보이는 글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유연'이라는 이름으로 쓴 이글에는 '능력이 없으면 너희 부모를 원망해라', '있는 부모 가지고 감 놔라 배 놔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어야 불만이면 종목을 갈아타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어 이 글은 '말 타는 사람 중에 친한 사람 없어', '그냥 인사하는 애들 그 수준이야 뭘 새삼스럽게 xx병 도져서 난리들이야?', '서로서로 욕하는 것들이 친한 척하는 거 보면 토나와', '네까짓 더러운 것들이랑 딸 섞기 싫어서 그래, 주제를 알럼 난 너한테 관심도 없는데' 라는 내용으로 이어졌다.

정씨는 지난해 '정유연'에서 '정유라'로 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글은 지난 2014년 12월 3일 작성됐으며 당시 정씨의 이화여대 체육특기생 전

말타는사람중에친한사람없어.나친한사람딱네명있어  
니네들은니네들이잘알고있다싶이  
생까기민망해서 그냥인사하는 애들그수준이야 뭘새삼스럽게  
지랄병이도져서 난리들이야 뭘파? 그땀유치한거  
니네들끼리나해쳐먹어 나이쳐먹고 할짓업니?언니?사람부터되라  
개만도못한넌아 니네도 뭘통수예다대고 서로서로욕하는것들이  
친한척하는거보면토나와 니네끼리서로 똥고변갈아가면서  
쳐떨어주는건 뇌들자운데 개뽕치게 나골어들어서  
내가누구욕했다고지랄이지마 니네 욕할만큼 니네들은  
나한테가치도없고 니네한테 그만한관심도없으니까  
착각하지말아줄래?지방흡입지랄도 좀그만해줄래?  
넌안하고뭘하니돼지야?남애들가지고 지랄하느라  
시간이업나보구나 ♫ 능력이없으면 니네부들원망해  
있는우리부모가지고 감놔라배놔라하지말고 돈도실력이어야  
불만이면 종목을 갈아타야지 남애욕하기바쁜니까짓넌들이아무리  
다른거한들 어디성공하겠니?나도니네상대하기싫고 나눌기바쁘고  
내가승마장에 주평이때번데려가는것도 니까짓더러운것들이랑  
말섞기 싫어서그래^^;; 주제를알럼 난니한테관심도없는데뇌들은왜  
짜고쳐먹고 개지랄들이니 ㅋㅋ 니가  
남자잘표여내는거참잘알겠으니까  
니아는오빠들한테연락오게하지마라 ㅋㅋ  
내가개만만하니?난개들한테 욕못해서안하는줄알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지난 2014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SNS글 내용

## 이대 총학"총장 사임 이후에도 정유라 특혜 의혹 밝혀야"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이 19일 사퇴한 가운데 학생들은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와 관련해 남아있는 의혹들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는 20일 오후 3시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 회피성 총장 사임은 어떤 비리 의혹도 잠재울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총학생회는 이사회와 최경희 전 총장이 최순실씨 딸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해 책임지고 규명할 것과 교육부가 이화여대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총학생회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의 부정입학과 학사 특혜 의혹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며 "총장의 책임 회피성 사임은 어떤 비리 의혹도 잠재울 수 없고 정부와 교육부 역시 감사가 아

닌 조사로 이를 무마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은혜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은 "이화여대의 문제는 최경희 총장의 사임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최 총장의 사임을 통해 이화의 비리를 척결하고 비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민주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린 이화여대 동아리연합회 연대사업국장은 "이화여대는 1993년 입시 관련 감사 이후 종합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며 "교육부는 지금까지 사태가 이대 사태 만들어낸 것을 잊지 말고 종합 감사를 실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potgus@news1.kr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이 전격 사퇴했다

bill chun MD

## 전병렬 산부인과

“여성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임산부 산전후 관리 및 분만**

- 임신진료
- 초음파 검사
- 출산 케어

**전 연령대 여성들을 위한 포괄적 진료**

- 자궁암 검사 및 예방 주사
- 부인과 대소수술
- 각종 성병 검사, 치료
- 각종 피임법 및 갱년기 장애

지금 전화하세요 **781.787.3003**  
다음날 예약 진료 가능

**Women's Healthcare of Woburn**

444 Washington Street, Suite 100  
Woburn, MA 01801  
[www.billchunmd.com](http://www.billchunmd.com)

# H MART

BURLINGTON WEEKLY SALE OCT. 21 - OCT. 27, 2016

## KOREAN SPICY CHICKEN DISH

Spice up your life, or at least your lunch with this spicy chicken stir fry. H마트가 공개하는 닭갈비 양념장 비법으로 매콤한 닭갈비를 맛있게 볶아드세요!

Share it [facebook.com/hmartofficial](https://facebook.com/hmartofficial) Learn to cook it [pinterest.com/hmartusa](https://pinterest.com/hmartusa)

###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http://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                                                                                                        |                                                              |                                                          |                                                           |                                                                 |
|--------------------------------------------------------------------------------------------------------|--------------------------------------------------------------|----------------------------------------------------------|-----------------------------------------------------------|-----------------------------------------------------------------|
| <b>FF/SAT/SUN ONLY 21/22/23 ONLY</b><br>California Fuyu Persimmon<br>캘리포니아 단감<br><b>\$11.99</b><br>box | Purple Sweet Potato-Hawaii<br>보라색 고구마<br><b>\$1.99</b><br>lb | Fuji Apple<br>후지 사과<br><b>\$1.49</b><br>lb               | JINGA Tofu<br>전가네 두부<br>Firm/Soft - 16oz<br><b>\$0.99</b> | Oriental Sweet Potato<br>고구마 Medium Size<br><b>\$1.49</b><br>lb |
| Loots Root<br>연근<br><b>\$1.88</b><br>lb                                                                | Crown Broccoli<br>크라운 브로콜리<br><b>\$0.88</b><br>lb            | Packed Garlic<br>팩 마늘 5cm/pkg<br><b>2\$3</b><br>pkg./for | Kabocha<br>단호박<br><b>\$0.88</b><br>lb                     | Ginger<br>생강<br><b>\$0.88</b><br>lb                             |

###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                                                                                             |                                                                                                        |
|---------------------------------------------------------------------------------------------|--------------------------------------------------------------------------------------------------------|
| <b>FRESH</b><br>Boneless Pork Loin for Cutlet<br>돈까스용 돼지고기<br><b>\$4.99</b><br>lb           | <b>U.S.D.A. CHOICE</b><br><b>FRESH</b><br>Beef Rib Eye Steak<br>뽕등심 스테이크<br><b>\$15.99</b><br>lb       |
| <b>FRESH</b><br>Beef Flank Steak<br>앞치마 양지 육계장<br><b>\$6.99</b><br>lb                       | <b>FRESH</b><br>Chicken Drumstick<br>치킨 드럼스틱<br><b>\$1.49</b><br>lb                                    |
| <b>FRESH</b><br>Sliced Pork Single Rib Belly for BBQ<br>연등갈비용 냉동 삼겹살<br><b>\$4.99</b><br>lb | <b>FRESH</b><br>Marinated Tenderized Sliced Pork CT Butt Steak<br>양념 돼지 볶음 스테이크<br><b>\$4.99</b><br>lb |

###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                                                                                       |                                                                                               |
|---------------------------------------------------------------------------------------|-----------------------------------------------------------------------------------------------|
| <b>FRESH</b><br>White Perch (UG Mix) 통어<br><b>\$1.99</b><br>lb                        | <b>FRESH</b><br>Headless White Shrimp<br>머리없는 흰새우<br><b>\$6.99</b><br>lb                      |
| <b>FRESH</b><br>GLOBAL Unagi Kabayaki<br>글로벌 우なぎ<br><b>\$4.99</b><br>5oz/pkg          | <b>FRESH</b><br>TONGTONGBAY Half Cut Swimming Crab<br>동통베이 절반 꽃게<br><b>\$9.99</b><br>pkg./for |
| <b>FRESH</b><br>WEST BAY Carving Squid<br>웨스트 베이 문둥물 오징어<br><b>\$3.99</b><br>1 lb/pkg | <b>FRESH</b><br>SUHYUP Oyster<br>순협 냉동 굴<br><b>\$6.99</b><br>2kg/for                          |

### SMART CARD Get smart and save more & big.

|                                                                             |                                                                                       |
|-----------------------------------------------------------------------------|---------------------------------------------------------------------------------------|
| HARU HARU Medium Grain Milled Rice<br>하루하루 미어 쌀<br><b>\$12.99</b><br>15 lbs | KOKUHO Extra Fancy Medium Grain Rice (Yellow)<br>국부향 (황보우)<br><b>\$9.99</b><br>15 lbs |
| CJ Cooked White Rice<br>CJ 백미 백식 7.4oz x 12ea/box<br><b>\$13.99</b>         | DONGSUH Maxim Coffee Mix<br>(영남) 맥스 커피믹스 100ball/box<br><b>\$10.99</b>                |

### 농협 NongHyup 한국 농특산물 특별판매전

H마트가 농협과 함께 다양한 한국 최상의 제품들로 한국산 농수산물 특별판매전을 경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오셔서 맛보고 100% 믿을 수 있는 우리 농수산물들을 구매하세요.

OCT. 21 - OCT. 30, 2016 Only at Hmart Burlington

|                                                                                         |                                                                                              |                                                                                       |                                                                                          |                                                                                              |
|-----------------------------------------------------------------------------------------|----------------------------------------------------------------------------------------------|---------------------------------------------------------------------------------------|------------------------------------------------------------------------------------------|----------------------------------------------------------------------------------------------|
| 삼양 불닭 볶음면<br>SAMYANG Spicy Fried Chicken Noodle<br><b>\$5.99</b><br>4.4oz x 5ea / pkg   | YAMASA Soy Sauce<br>야마사 간장<br><b>\$2.99</b><br>12.7oz                                        | KADOYA Pure Sesame Oil<br>가도야 참기름<br><b>\$14.99</b><br>68oz                           | CJ 떡볶이 떡볶이/로면<br>CJ Bbq Classic Dandelions / Onion Pickles 1.75 - 2 lbs<br><b>\$6.99</b> | HALOREUM Canned Bal Top Shell<br>해로움 상패용 통조림<br><b>\$4.99</b><br>14.1oz                      |
| PENGUIN Canned Mackerel Pike<br>펭귄 정지 통조림<br><b>2\$5</b><br>14.1oz                      | SHIRAKU Japanese Style Sanukiya Udon Noodles<br>시라쿠 사누키 우동<br><b>\$3.99</b><br>2.75 lbs      | HOUSE Vermont Curry<br>하우스 베르몬트 커리<br><b>2\$5</b><br>8.8oz                            | DONGWON Canned Lunch Meat<br>동원 런치미트 통조림<br><b>\$2.99</b><br>12oz                        | 롯데 코알라 쿵작<br>LOTTE Koala Snack<br><b>\$3.99</b><br>100g                                      |
| BINGRAE Banana Flavored Milk Drink<br>빙그레 바나나맛 우유<br><b>\$5.99</b><br>6.8oz x 6ea / pkg | SANGARIA Refreshing Drink<br>상가리아 레쉬닝 드링크<br><b>\$4.99</b><br>All Flavors - 203ml x 6 ea/pkg | COOKING LAND Stainless Steel Basket<br>쿡킹랜드 스테인리스 스테인레스 바구니<br><b>\$2.49</b><br>8.5oz | Fashion Leggings<br>패션용 레깅스<br><b>\$5.99</b><br>All Colors/size                          | TIGER Electric Water Heater<br>타이거 전기보일러<br><b>\$139.99</b><br>100L-150L / 4.2 - 5.3 Gallons |

During the selling process, there may be shortages in specific items. Item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PM 5:00 - 10:00 PM**  
 HAVIT BURLINGTON STORE: 43 Middlesex Turnpike, Burlington, MA 01803 / TEL: 781-221-4020 / STORE HOURS: Sun - Thu 10am - 9pm / Fri - Sat 10am - 10pm

# 與 내부, 최순실 의혹 등 "털고가자" 목소리 커져...위기감

나경원 "말하는 사람이 적지만 생각하는 사람 많다"

(서울=뉴스1) 서송희 기자 = 최순실씨로부터 비롯된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 등에 대해 야당의 성토가 이어지는 가운데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20일 여러가지 논란에 대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의혹을 털고 가야 한다'는 당내 의견을 묻는 질문에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적을 뿐이지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나 의원은 "이런 상황을 우리가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정운영시스템도 바뀌어야 할 것은 바꾸고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상식적인 물음에 대해서는 답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인 출신인 나 의원은 우 수석

증인출석 논란에 대해서도 "우 수석 입장에서 수사 전에 사퇴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수사를 하니까 지금 상황이 더 복잡해진 것 같다"며 "저로서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미리 정리가 됐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원유철 의원도 MBC라디오에서 "국민들께서 가지고 있는 의혹에 대해선 신속하고 명확하게 해소돼야 된다"고 주장했다.

단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해선 "야당이 정치공세라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지켜보고 검찰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특검이든지, 국정조사든지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비주류(비박) 의원을 중심으로 최근 논란에 대해 새누리당이 감싸는 모습을 보여선 안된다는 의견

을 내놓고 있다.

국회부의장인 심재철 의원은 전날(19일) 최고중진연석간담회에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이화여대의 특혜 의혹과 관련 "각각 특감(특별감찰)에 착수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여당에서는 처음으로 특감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병국 의원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들을 앞장서서 막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 국민들에게 엄청난 실망을 줬다"면서 "막는다고 해서 막아질 부분이 아니다. 이런 것을 빨리 털고 갈수록 대통령이 부담을 덜고 남은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권 잠룡들도 진실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요즘 세상에 의혹을 덮는다고 덮을 순 없다. 검찰이 제대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히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전날(19일)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어떤

경우에도 선출되거나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개입·작용할 때 항상 문제가 됐다"며 "국민적 의혹이면 풀고 가야지 풀고 가지 않으면 갈수록 더 큰 짐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 역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만약 권력 남용이나 비리가 있었다면 최순실씨뿐만 아니라 누구든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면서 "국민의 의혹이 많은 만큼 청와

대가 국민이 속 시원하게 해명을 잘 해야 한다"라고 청와대를 압박했다.

이에 정계 관계자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26%를 기록하는 등 민심이반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이같은 흐름이 새누리당에까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birakoca@news1.kr



새누리당 정병국, 나경원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중진의원 연석간담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 눈덩이처럼 커지는 '최순실 의혹', 檢 수사는 이제 걸음마

'K스포츠 사업·자금 종착지=최씨 소유 회사' 설득력 ↑  
檢, 재단설립 절차 담당한 문체부 직원 소환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현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최서원으로 개명)를 둘러싼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에 비해 검찰 수사가 더디게 진행된다는 지적이다.

최씨가 권력형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K스포츠 재단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검찰은 이제야 두 재단의 설립절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여당 내 비박계까지 나서 미르·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의혹 규명을 촉구하고 있으나 검찰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를 소환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검찰은 관계자 조사 후 재단 관계자들을 불러 설립 경위에 대해 조사한다는 입장이다.

K스포츠재단은 최씨의 딸이자 승마선수인 정유라씨(정유연에서 개명)의 승마 훈련 지원을 위해 설립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최씨가 한국과 독일에 설립한 '더블루케이'와 '비텍 스포츠 유한회사'라는 두 회사가 K스포츠재단 자금의 이용 창구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두 회사의 설립인이 최씨라는 점과 정관, 설립주조지 등이 같아 의혹은 더 가중되는 상황이다.

최씨는 K스포츠재단 설립 하루 전인 올해 1월12일 서울 강남구에 '더블루케이'를 세웠다. 설립 목적은 '체육 분야 인재 육성 및 지도자 양성'으로 K스포츠재단의 취지와 유사하다.

더블루케이의 법인 등기부에는 최씨 이름이 없으나 최씨가 실제 소유주이며, '회장'으로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현재 이 사무실은 문을 닫은 상태다.

최씨가 이 회사의 실제 소유주라는 정황은 더 있다. 이 회사는 그후 2월29일 독일에도 같은 이름의 현지 법인을 세웠는데 사업 보고서의 유일한 주주로 최서원이 올라있다.

독일 법인의 경영자인 고영태씨는 한국 법인의 이사다. 한국 법인에 '해외협력지원본부'라는 독일법인팀을 운영한 만큼 한국과 독일에 있는 이회사는 '쌍둥이' 법인이며, 최씨가 소유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라는 것이다. 펜싱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고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들고 다녀 유명해진 가발을 만든 업체 대표로 알려져 있다.

더블루케이 외에도 최씨 모녀가 지난해 7월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페이퍼컴퍼니 '비텍 스포츠 유한회사'도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비텍이 국내 대기업에 거액의 투자를 요구했다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올해 1월 K스포츠재단이 '2020년 도쿄올림픽의 비인기 종목 유망주를 육성하겠다'며 대기업에 80억원의 투자를 요청했는데, 사업 주관사가 바로 비텍이었다.

호텔업과 컨설팅업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비텍은 지난 6월 현재에 3성급 호텔을 인수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 호텔이 정씨의 해외 훈련시 숙소로 사용된다는 의혹도 있다.

이 같은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케이, 비텍의 연결고리가 등장하면서 3개 회사 간 자금 흐름이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정씨가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연일 불거지고 있다. 정씨가 입학한 해에 이화여대가 승마를 체육특기생 종목으로 처음 포함했고, 정씨가 학점 취득과정에서도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최경희 총장은 19일 총장직을 사임했다.

야권은 최씨를 둘러싼 의혹 해소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현재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에서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 계획'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다고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확인할 수는 없다"면서 "죄명과 범죄 혐의를 가지고 수사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cho84@news1.kr



최순실씨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더블루K'. 이 회사는 K스포츠재단 설립 전부터 만들어져 활발히 활동하다 최씨와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비리 의혹이 본격화된 지난 9월 돌연 사무실을 폐쇄했다

## 민주당 "최순실 게이트 수사 진척 없다" 대검 항의방문

'20대 총선사범 편파기소'도 항의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했다.

'최순실 게이트·편파기소 대책위원회'는 20일 오후 2시 대검찰청을 방문했다. 이들은 김주현 대검차장 등 검찰 고위 간부들을 만나 최순실 게이트 수사상황과 20대 총선 선거사범 기소결과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위원장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청사에 들어서기 전 "최순실 게이트를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하지만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의혹은 더욱 확산되고 있어 그 부분(수사 상황)을 확인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에서 잘 대응하겠지만 야당이 편파기소된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정확한 이야기를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항의방문에는 전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의 박범계·박주민·금태섭·안호영 의원이 참여했다.

kukoo@news1.kr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순실 게이트 편파기소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더민주 의원들이 20일 오후 최순실씨의 국정개입 의혹 관련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항의방문을 하고 있다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Premier Realty Group

AGENT  
WANTED

PREMIER REALTY  
GROUP과 함께 할  
에이전트를  
모십니다



**나 원 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신 보 경** Realtor  
Direct: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NEW LISTINGS

Residential



Single Family

5 Duston Lane Acton MA  
6,547s.f. 9.13 Acres 5 Bed  
4.5 Bath  
Asking **\$1,499,000**

Residential



Condo

26 Boylston Rd. Unit 1 Newton MA  
좋은위치 2 Bed 1 Bath 970 s.f.  
Condo 2 parking spaces  
Asking **\$449,000**

Residential



Condo

10 Nantasket Ave. Brighton MA 2 Units.  
Brighton Center에 위치. 2016년 Gut  
renovated Condos, 2bed 2bath및 Garage,  
파킹, T-Stop과의 거리는 0.3 마일 이내  
Asking **\$691,000, \$999,000**

Commercial



한식&일식 식당

Plymouth 센터에 위치, Full liquor,  
Lots of foot traffic, great exposure,  
recently renovated.  
Asking **\$700,000**

LISTINGS

1. Full Plant 클리너 : 렉싱턴에 위치, 부동산 포함 **\$1.39M SOLD**
2. Full Plant 세탁소 : Marlborough 좋은 위치, Asking **\$65,000**
3. Full Plant 세탁소 : 보스턴 북부 인근, Asking **\$150,000**
4. Full Plant 세탁소 : Tewksbury 큰 Mall 안에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30,000**
5. 드림오프 스토어 : Sharon에 위치, **\$40,000**
6. 드림오프 스토어 : Norwell에 위치, **\$20,000**
7. 보스턴 인근 일식당 : Asking **\$225,000 SALE PENDING**
8. 렌트 : 701 Hammond St. Unit 2, Brookline **\$3,400 RENTED**
9. Single family : 22 Wilow park, Wellesley **SOLD**
10. Condo : 20 Hosmer st. unit 1, Watertown **SOLD**
11. Multi family : 23-25 Baker St., Belmont **SOLD**
12. 미림 식품 : Allston **SOLD**
13. Single Family : 64 Oak St. Newton **SOLD**
14. Condo : 47 Homer ave Unit 5-3 Cambridge **SOLD**
15. Condo : 47 Gordon St. Unit1 Allston **SOLD**
16. 렌트 : 12-16 Ellery St. Unit 603 Cambridge **RENTED**
17. 렌트 : 11 Hibbert St. Lexington **RENTED**
18. 렌트 : 156 Porter St. Unit 236 East Boston **RENTED**
19. Single Family : 6 Sorens Way Bedford **SOLD**

Commercial



한식&일식 식당

보스턴 서쪽, Full Liquor  
연매상: 1.7M, 좋은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799,000**

Commercial



일식당

Beer and wine 포함  
Lawrence 지역,  
좋은위치  
Asking **\$190,000**

Commercial



컨비니언스 스토어

Cambridge에 위치  
Asking **\$140,000**

Commercial



비즈니스 콘도

Brookline  
현재 세탁소영업중.  
좋은 렌트수입  
Asking **\$509,000**

Commercial



한국식당

보스턴 남부에 위치  
Full liquor, 안정적인 수입,  
넓은 파킹  
Asking **\$140,000**

Commercial



세탁소

보스턴 북부 세탁소  
안정적인 매출  
Asking **\$180,000**

나원태: 617.642.3156  
신보경: 508.361.6064

제이슨전: 617.642.5670

# 2007년 11월 무슨일 있었나…회고록 진실공방 쟁점 총정리

송민순-文측 사사건건 다른 증언…文은 "기억 안나"  
기권 결정 시기, 북한 답변 쪽지, 文 역할 등 쟁점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이른바 '송민순 회고록' 파문과 관련된 노무현정부 핵심 인사들의 진실공방에서 최대 충돌 지점은 2007년 유엔의 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시점과 북한에 문의 여부다.

송 전 장관은 자신의 결의안 찬성 입장이 묵살되고 북한에 사전 문의, 정부가 기권표를 던지는 데 있어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당시 대통령비서실장)가 중추적 역할을 했다는 취지로 회고록에 썼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표 측은 이미 정부의 입장을 '기권'으로 결정한 상태에서 북한에 사후 통보를 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2007년 11월 15일, 16일, 18일, 그리고 20일

2007년 11월 당시 정부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대해 고심에 빠져 있었다. 2003년에는 표결 불참, 2004년 기권, 2005년 기권, 2006년 찬성을 했었고 당시는 남북대화로 '해빙무드'였다.

송 전 장관은 그해 11월15일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자신은 결의안에 '찬성'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백종천 안보실장은 남북관계를 이유로 '기권'을 주장했다고 적었다.

그러자 자신은 찬성과 기권 입장을 병렬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자고 했지만 문재인 실장이 다수 의견대로 기권으로 합의하자고 해서 이날 회의는 파행했다는 것.

송 전 장관은 또한 다음날인 16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엇갈리는 찬성·기권 입장을 청취하고 "입장을 잘 정리해보라"고 지시했고 결론은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18일에 노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은 회의에서 역시 토론이 오가다 김만복 국정원장이 "그러면 북한 의견을 확인해보자"고 제안했고, 자신은 반대했지만 문 실장이 이를 수용해 북한에 사전 문의가 이뤄졌다고 송 전 장관은 회고했다.

송 전 장관은 북한은 당연히 결의안에 찬성하면 남북관계가 나빠질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왔고, 결국 20일 정상회담 참석차 방문한 싱가포르에서 노 대통령이 백종천 안보실장으로부터 북한 답변이 담긴 '쪽지'를 받고 "그냥 기권으로 가자"고 결정하고는 북한에 묻지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 전 대표 측은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 입장이 결정됐다고 다른 증언을 한다.

문 전 대표 측에 따르면 15일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다수 참석자가 기권

을 주장했고 송 전 장관만 끝까지 찬성 입장을 고수하자 이런 격론을 보고받은 노 대통령이 16일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

16일 노 전 대통령이 찬성·기권 토론 과정에서 "이번에는 (이재정) 통일부 장관 의견(기권)대로 합시다"라고 기권 입장을 결정했다는 것이 문 전 대표 측의 주장 요지다.

문 전 대표 측은 대통령의 기권 결정에도 불구하고 송 장관이 승복하지 않자 18일에 안보관계장관회의가 다시 열렸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고, 결정된 입장을 남북 채널을 통해 '사후 통보' 했다고 밝힌다.

그러나 당시 결의안 기권 입장을 청와대가 발표했던 상황을 보면 문 전 대표 측의 주장에 의문은 남는다.

천호선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싱가포르 현지에서 21일 언론에 "어제(20일) 저녁 늦게 대통령께서 송민순 장관과 백종천 실장으로부터 결의안 문제에 대한 종합적 상황과 기권 방안에 대한 우선적 검토 의견을 보고 받고 이를 수용해 정부 방침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20일 저녁 늦게 노 대통령이 '기권이 우선'이라는 보고를 받고 재가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이는 송 전 장관의 회고에 무게가 실린다.

그러나 천호선 전 대변인은 회고록 파문이 확산하자 전날(18일) "노 대통령이 16일 회의에서 기권을 결정했지만 주무 장관인 송 장관이 계속 반발하자 표결 전까지 시간을 갖고 의견을 들으신 것"이라며 "20일 저녁 대통령이 송 장관을 최종 설득하면서 21일에 최종 발표된 것"이라고 밝히며 자신의 기억은 문 전 대표 측과 같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폭로전문사이트 위키리스크는 당시 노무현정부가 결의안 관련 입장 결정을 표결 2시간 전에야 이뤄졌다는 우리 정부 관계자의 말이 담긴 문서를 공개했다. 이는 문 전 대표 측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병호 국정원장은 이날 정보위 국감에 출석, 문 전 대표가 당시 북측의 의견을 물어보자는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제안을 수용한 것이 맞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이 원장은 11월 18일 김 전원장의 제안을 수용해 20일 기권 입장을 최종 결정했다는 송 전 장관의 회고록 내용이 맞다고 본다는 입장을 언급했다.

◇宋 盧 '쪽지' 받은 상황 구체적 기술…文측 '없는 일'

당사자들 간 증언이 엇갈리는 부분 중 다른 하나는 송 전 장관이 말하는 북한의 입장이 적힌 '쪽지'다.

송 전 장관의 회고는 이렇다. 11월 20일 저녁 싱가포르에서 노 대통령의 연락을 받고 숙소 방으로 올라가보니 백종천 안보실장이 대통령 앞에서 쪽지를 들고 있었다.

쪽지에는 북한의 답변이 적혀있었고 자신이 백 실장에게 "(북한이) 이렇게 나를 줄 모르고 물어봤느냐"고 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백 실장은 자리를 떴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송 전 장관에게 "북한에게 물어볼 것도 없이 찬성 투표를 하고 당신에게 사표를 받을까 하는 생각도 얼핏 들었다"며 말을 흐렸다.

그리고 21일에 천호선 대변인이 "노 대통령이 외교장관과 안보실장으로부터 보고받고 기권 방침을 결정했다"고 언론에 설명했다.

그러나 문 전 대표 측의 이야기는 다르다. 같은 자리에 있었다고 지목된 백종천 실장은 대북 동향이 담긴 쪽지를 보고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북한에 우리 입장을 사후에 통보했다는 문 전 대표 측 주장에 따르면, 북한의 답변이 담긴 쪽지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문건에 대해 이병호 국정원장은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쪽지에 관해서는) 계속 찾아보고 좀 더 검토해본 후 추후 기회가 있을때 답변하겠다"고 답했다.

◇文 역할은 어땠을까…지금은 '기억 안나'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결의안 기권 결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뜨거운 감자다.

송 전 장관은 문 전 대표가 북한에 사전 문의하자는 김만복 국정원장의 제안을 '수용'하는 중추적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다.

15일 회의에서 격론 끝에 자신이 "꼭 그렇다면 찬성-기권 입장을 병렬해 대통령에게 결심을 받자"고 하자 문 전 대표가 "왜 대통령에게 그런 부담을 주느냐. 다수 의견대로 기권으로 합의해 보고하자"는 회고록 대목에서 드러난다.

그러나 문 전 대표 측은 15일 회의는 백종천 실장 주재 회의였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결정 권한이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있다.

문 전 대표가 애초 결의안에 어떤 입장을 견지했는지도 미궁 속에 빠지고 있다.

송 전 장관 회고록에는 문 전 대표 개인의 입장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지만, 기권 결정을 하는데 개입했다는 뉘앙스가 담겨있다.

문 전 대표 측근인 김경수 의원은 "문 전 대표 측은 찬성입장이었지만 토론 과정에서 다수결에 따라 정리된 기권에 따랐다"(16일 기자회견)고,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문 전 대표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결정된 결론

을 따랐다"고 했다.

문 전 대표 그룹에서조차 다소 말이 달리 나온 것인데, 문 전 대표 본인은 이 점을 포함해 현 진실공방 전반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이렇게 당사자들 간 증언이 계속 엇갈리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대통령기록물 열람,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새누리당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문

재인 대북결재사건 진상규명' 위원회는 19일 회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외교 안보 부처들에 당시 상황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요청하기로 했다.

야권 일각에서도 대선 전 털고 가자는 차원에서 대통령 기록물 열람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비공식 회의나 사적 대화는 기록물로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논란의 진위를 가리지 못한 채 공방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eriwhat@news1.kr



'송민순 회고록' 파문이 노무현정부 외교·안보라인 핵심 인사들 간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왼쪽)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문재인, '北결재' 파문에 또다시 위기 향후 행보 주목

대권행보 제동…文, 연이틀 직접 나서 대응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일명 '송민순 회고록'으로 불거진 노무현 정부 당시 북한인권결의안(이하 결의안) 표결논란이 여야 격돌로 번지는 양상 속 논란의 중심에 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회고록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는 2007년 유엔(UN) 결의안 표결 당시 북측에 의견을 물은 뒤 기권했는데, 문 전 대표는 이 과정에서 직접적 개입을 한 것으로 지목됐다.

지난 14일 문제가 불거진 뒤 문 전 대표와 문 전 대표 측은 당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강하게 맞대응을 하는 중이다. 문 전 대표 측 김경수 의원은 당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회고록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보냈다. 당시 우호적이었던 남북관계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지난 대선 때 문 전 대표가 발표했던 북측 인권개선 촉구 내용이 포함된 인권선언에 관한 내용이었다.

15일에는 문 전 대표가 직접 나섰다. 문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노무현 정부에게서 배워라', '뒷이 중헌디?'라는 제목의 글을 각각 오전과 오후에 게재했다. 문 전 대표는 두 글을 통해 이러한 문제가 일어난 것은 노무현 정부 당시 의사결정과정에서 그만큼 민주적이었기 때

문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나는 가장 좋은 전쟁보다 가장 나쁜 평화에 가치를 더 부여한다"면서 현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16일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강한 어조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전날(15일) 자신에게 "사실상 북한의 인권탄압에 동조하며 북과 내통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내통이라… 대단한 모욕이네요"라며 "당대표란 분이 금도 없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이제 좀 다른 정치하십시오"라고 했다.

정치권은 문 전 대표가 지난 6일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을 발족시킨 이후, 발빠른 대권행보를 이어가던 상황에서 이번 '송민순 회고록' 파문으로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문 전 대표는 싱크탱크 발족 이후 벤처사업가들과의 도시락 간담회, 제주 태풍 피해 농가 현장방문, 4대 기업 경제연구소 소장들과의 간담회 등을 진행했지만 파문 이후 일정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날 현재 문 전 대표 측 주요인사들은 일제히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다.

cho11757@news1.kr



# 무제한 BBQ 스페셜

All You Can Eat!  
맛있는 배부름~~

다양하고 신선한 고기를 마음껏 즐기세요!

## COURSE "A" \$25.95

불고기/차돌배기/치킨 테리야키/치킨 불고기/불닭/돼지 갈비  
대패 삼겹살/돼지 통살/돼지 불고기/참치구이/돈까스/치킨캐스  
야채/계란/순두부찌개/단장찌개/계란찜/공깃밥/안주 튀김

## COURSE "B" \$28.95

COURSE "A" 포함

갈비/LA갈비/통삼구이/특대찌 삼겹살/매운 흑돼지 삼겹살  
새우구이/푸꾸미구이/오징어구이/새송이버섯/비밀구이  
오살불고기

## LUNCH SPECIAL \$18.95

불고기/치킨불고기/차돌배기/돼지 삼겹살/돼지불고기  
돼지갈비/치킨 테리야키/불닭/오징어구이/순두부찌개  
단장찌개/계란찜/공깃밥/파전



영업 시간

화-목 : 오전 11시 30분 - 오후 10시  
금, 토 : 오전 11시 30분 - 오후 11시

단체모임에 좋은  
Private Room 제공  
(90-120인)



특징하고 맛있는  
수라 BBQ와 함께  
소주 한잔 어떠세요?

수라 BBQ 보스턴

781.391.5606

27-29 Riverside Ave. Medford, MA 02155

(구) 청기와 식당 위치



CJ대한통운 BOSTON 대리점  
계약 해지 공고

CJ 대한통운에서 MA지역 위탁 운영중인 BOSTON 대리점을  
여래와 같이 계약 해지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동안 CJ대한통운을 애용해 주신 고객 여러분께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고객 여러분을  
찾아뵙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 아 래 -

해지 일자: 2016년 10월 03일  
업소명: KOREA EXPRESS BOSTON INC  
(CJ 대한통운 BOSTON 대리점)  
대표자: 정 대 훈

2016년 10월 03일 이후 이사를 관련 문의는 CJ 대한통운  
미국법인으로 연락주시면 성실생외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TEL: 201.643.1043 / 1045 / 1049  
E-MAIL: ms.cho@cj.net  
ss.shim@cj.net  
ea.kim@cj.net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백성편과 통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마이론 맨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형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여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진정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sa Turka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통 현  
교정 전문의

# 우병우 불출석 사유서 제출... '동행명령' 발동될까

禹 "관례, 檢 수사" 이유로 불출석 통보  
野 동행명령 공조할 듯...與 뚜렷한 수 없어 고심

(서울=뉴스1) 김영신, 서미선 기자 = 21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이 참석하지 않겠다는 사유서를 19일 국회에 제출하면서 강제적 조치인 '동행명령'이 현실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당장 야당은 우 수석의 불출석 통보에 강하게 반발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버르고 있어 21일에 여야 간 극한 충돌이 빚어지며 정국이 또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 분위기다.

우 수석은 이날 오후 "본인은 대통령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비서실장이 당일 운영위 참석으로 부재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이 있다"며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는 내용의 사유서를 운영위에 제출했다.

청와대가 예고했던 대로 비서실장

이 국회에 출석하면 민정수석이 대통령령을 보좌하기 위해 청와대에 남는다는 '관례'와 우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를 들어 불출석을 통보한 것이다.

이에 야당은 즉각 맹폭을 가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 수석이 검찰 수사를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했는데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우 수석은 진작 사퇴해야 할 당사자"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본인 문제에 관해서는 직접 국회에 출석하는 것이 관례인데 우 수석과 청와대는 상식에 반하고 비정상적으로 국민과 등지는 길을 선택했다"며 "국감 불출석에 동의할 수 없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정숙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역시 뉴스1과의 통화에서 "우 수석이 핵심 중 핵심인데 뚜렷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청와대 국감이 무슨 의미냐"고 지적했다.

우 수석이 불출석을 통보하면서 이제까지 경우의 수 중 하나로 거론되던 '동행명령'이 발동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대한 법에 따르면 국회 국정감사·국정조사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증인이 위원회가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해당 증인이 국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동행명령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국회 모욕죄로 5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을 받는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우 수석 동행명령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하고 민주당과 공조하겠다고 밝혔는데, 우 수석이 불출석을 통보하고 민주당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만큼 동행명령 문제가 당일 운영위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운영위에서는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이 과반이다. 여당이 우 수석 동행명령에 동의할 리는 없다하더라도, 표결에 부처지면 야권 공조로 가결될 수밖에 없다.

이때 새누리당이 동행명령을 막으

려면 국회법상 '안전조정' 제도(위원회의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면 안전조정을 구성해 최장 90일 간 해당 안전에 대해 조정)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새누리당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야당의 미르·K스포츠 관련 증인채택 요구를 안전조정위를 통해 무산시킨 바 있다.

더욱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우 수석의 출석을 여러차례 촉구한 상황에서 동행명령을 막기 위한 안전조정위 동원에 부담감이 상당하다는 전언이 나온다.

당초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우 수석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었으나 회동이 취소됐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화통화에서 "아직 야당들로부터 동행명령에 대해 이야기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21일 상황을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동행명령 요구가 들어오면 여소야대 정국과 국회법 테두리 내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난망하다"고 말했다.

eriwhat@news1.kr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 경찰, 백남기씨 유족에 6차 공문 "영장은 무효" 반발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경찰이 백씨의 빈소를 방문해 유가족에 부검을 위한 6차 협조공문을 전달한 가운데 백남기투쟁본부는 "영장은 무효"라고 반발했다.

장경석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은 20일 낮12시56분쯤 백씨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 병원을 방문해 26분간 유가족 법률대리인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으며 부검을 위한 유족 측 대표를 선정하고 협의 일시와 장소를 경찰에 22일까지 통보해달라는 내용의 6차 협의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백남기투쟁본부는 장 수사부장이 떠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백씨를 둘러싼 여러 논란은 이미 종식된 것으로 선언한다"면서 "빨간우의 가격설 등 가공의 사실을 근거로, 병사라는 허위진단서 내용을 근거로 청구된 영장은 무효다"고 밝혔다.

유족 측 대리인단장 이정일 변호사는 "빨간우의 가격설이 영장에 담겼냐고 물었더니 '기재돼 있다'는 답을 들었다"며 "근거가 없어 불필요한 것 아니냐는 말엔 '사인이 명확하더라도 부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대답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 수사부장은 유가족 법

률 대리인과의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영장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유족 측에서 전향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대리인은) 이 사안에 대해 유족에 전달한 뒤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기본적인 입장은 지난번과 변함없이 부검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29일부터 5차례에 걸쳐 유족 측에게 협의요청 공문을 보냈다. 흥완선 서울 종로경찰서 서장과 장 수사부장이 각각 13일과 17일 빈소를 직접 찾아 부검협의를 설득하기도 했다.

법원이 발부한 백씨 부검영장 유효기간은 이달 25일까지다.



장경석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이 17일 오후 서울대교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부검을 위한 5차 협의요청공문을 유족 측에 전달한 후 건물을 나서고 있다

## 손학규, 왜 컴백하자마자 민주당 탈당...새판 · 개헌 위한 각오

'문재인 대세론'에 운신 폭 좁아져...개헌 매개로 세규합 나설듯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정계 은퇴를 선언한지 2년3개월여만인 20일 정계복귀를 선언함과 동시에 민주당을 떠났다.

손 전 고문의 정치재개가 가시화하면서 그가 민주당으로 바로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은 지배적이었지만 당적을 유지한 채 외부에서 활동할 것이라는 관측도 많았다.

하지만 그가 민주당 탈당 의사를 밝히면서 모든 행보의 방향은 △개헌 △개헌을 고리로 한 '새판짜기' △정계 개편이 될 듯하다.

이런 맥락에서 탈당은 그의 각오가 심상치 않음을 시사해준다.

손 전 고문은 이날 오후 4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7월31일 정치를 떠난다는 말씀을 드린 그 자리에 다시 섰다"며 "정치와 경제의 새판짜기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며 "국회의원, 장관, 도지사, 당대표를 하면서 얻은 모든 기득권을 버리겠다. 당적도 버리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앞서 손 전 고문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커피숍에서 이찬열·양승조·전혜숙·김병욱·정춘숙 등 '친손(손학규)계' 민주당 의원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손 전 고문의 탈당을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결국 '뜻'을 꺾지 못했다.

손 전 고문의 탈당에는 '문재인 대세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가 내년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만큼 문재인 전 대표가 있는 민주당에서는 당내 경선 통과도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또 개헌을 매개로 한 제3시대 개편을 위해서는 당적을 유지하는 것이 운신의 폭을 좁게 할 것이라는 우려도 탈당의 한 요인으로 보인다.

손 전 고문 측은 이날 뉴스1과 만나 민주당 탈당과 관련해 "모든 걸 내려놓고 (새로) 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일정이 구체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행(行)에 대해서는 "고려할 이유가 없지 않나"고 선을 그은 반면 개헌과 관련한 제3시대 개편에 대해서는 "오늘내일 쉬신다니까 이후에 말이 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향후 손 전 고문은 제3시대에서 세규합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근 개헌에 불을 지피고 있는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나 정의화 국회의장과의 향후 만남에도 주목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민주당이 하나나 문재인인 상황에서 복귀할 순 없었을 것이고 손 전 고문은 개헌에 목매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며 "개헌을 매개로 야권과 정치권의 이합집산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parksj@news1.kr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2년 3개월만에 정계복귀를 선언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Farandole COUPON**

양념 치킨(Mild Glaze Bites) small \$12.95  
크리스피 치킨(Crispy Bites) small \$12.95

**Buy One Get One Free**

유효기간: 2016년 10월 31일까지  
월리버리(\$20이상 주문)/take out/테스트방 방문

\* 주문할 때/배달 시 Farandole를 검색하세요  
\* 모든 메뉴의 최소주문액 \$20 이상입니다. \* 다들 Farandole가 좋아한다는 걸 알고요.

Farandole  
MIDWEST KOREAN CUISINE

주소문난 치킨 레스토랑  
(구)inboston이  
파랑들로  
여러분께 가까이 갑니다.

모든 메뉴: Yelp에서 Farandole를 검색하세요  
배달 가능지역: Allston(B.U.), Cambridge(M.I.T., Harvard), Longwood, Brookline village 등

영업시간: 11:30am-11pm  
배달주문시간: 4pm-10:15pm

주문전화: **617.982.7118**  
(배달리 올대 맞은편)

**175 Massachusetts ave, Boston, MA 02115**



**Gina Chung works hard to see that you get the service you deserve.**

Free Checking  
Mobile Banking  
Retirement Services  
Mortgages  
Commercial Real Estate  
C&I Lending

Please come by our Allston Branch and see how Gina can serve you.

**East Boston Savings Bank®**

181 Brighton Avenue  
800.657.3272 ebsb.com

Member FDIC Member NCUA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Clara Paik**  
617.921.6979



**김형진**  
781.956.0409



**주승원**  
617.780.7839



**박성종**  
617.304.7001



**William Glanton**  
978.394.2017

**안녕하세요?**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Opportunities를  
찾으시는 손님들이나  
파시기 원하시는 손님들은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Berkshire Hathaway  
Home Services &  
Commercial Division에서는  
미주 각주에서 들어 오시는  
큰 회사로 오시는 손님들을  
직접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와 로드아일랜드에만  
20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저희 회사의 연결망에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백영주 올림**



**Allen Quinn**  
978.897.2781



**이현주**  
401.935.3397



**제니스 리**  
978.806.6023



**Madeline Chen**  
781.491.3228



**Kevin Curry**  
978.852.2969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 보스톤 뉴스타가 버크셔 해서웨이로 다시 태어납니다!



**Steve Son**  
617.290.0623



**Shell Yu**  
781.526.2416



**OT Kim**  
617.620.8242



**Gina Choi**  
978.866.3248



**Al Magurn**  
508.733.2949



## OFFICE LOCATIONS



*Good to know:*

**18 Offices in Maine, Massachusetts & Rhode Island**  
Find your next home with us online at [bhhsneprime.com](http://bhhsneprime.com)



**Maria Koral**  
978.973.6043



**Nancy Marcis**  
713.817.6970



**Clif LaPorte**  
978.424.3045



**Leslie Luppold**  
508.423.1535



**Johanna Parlon**  
978.501.4753

# 패트리어츠 키커 고스코우스키의 부진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지난 10년 동안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에서 가장 꾸준하게 최고의 활약을 펼쳤던 선수 2명을 꼽으라면 쿼터백 탐 브래디와 키커 스티븐 고스코우스키를 꼽을 수 있다. 브래디가 워낙 유명한 선수이고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쳤다면, 고스코우스키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팀 내에서 꼭 필요한 선수이다.

브래디가 올해 4경기 출장 금지 처벌 이후 다시 화려하게 부활했다면, 고스코우스키는 시즌 초반 6경기 동안 팬들의 고개를 가웃거리게 만들고 있다. 고스코우스키는 NFL 최고의 키커로 활약을 해온 선수지만, 올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이전의 고스코우스키와 사뭇 다르다.

고스코우스키는 최근 3년 동안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어떤 상황에서건 고스코우스키가 필드에 나서는 필드골은 성공이었다. 패트리어츠는 고스코우스키가 안정적으로 필드골을 성공시켜 주었기 때문에 근소한 점수 차의 박빙의 경기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고스코우스키가 고전하고 있다. 고스코우스키의 지난 시즌 기록들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5년에 필드골 성공률이 91.7% 이상이었다. 필드골 성공률이 82.9% 밑으로 내려갔던 적은 부상으로 8경기에만

출전했던 2010년과 NFL에 데뷔하던 루키 시즌에 76.9%였다.

그런데 올해는 완전히 다르다. 고스코우스키는 현재 필드골 성공률이 75%에 불과하다. 기록상으로 고스코우스키는 NFL 데뷔 이후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고스코우스키는 필드골 뿐만 아니라 터치다운 이후 주어지는 엑스트라 포인트도 놓치고 있다. 이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모습이 올해 보여지고 있다. 고스코우스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패트리어츠 스페셜 팀의 캡틴을 맡고 있는 매튜 슬레이터는 고스코우스키의 슬럼프에 대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스티븐은 진정한 프로다.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고, NFL에서 충분히 오랫동안 활약해 왔다. 자기가 익숙한 방식으로 해왔던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 스티븐은 그런 일을 겪고 있는 것이다. 나는 많이 걱정하지는 않고 있다. 스티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극복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고스코우스키는 지난 2시즌 동안 NFL 최고의 키커였다. 2014년에는 94.6%의 필드골 성공률을, 2015년에는 91.7%의 필드골 성공률을 보였다. 그



10년 동안 꾸준한 활약을 보였던 스티븐 고스코우스키가 올해 들어 갑자기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러나 올해는 6경기 동안 벌써 필드골을 3번이나 실패했다.

특히 실패한 3번의 필드골을 보면, 50야드 이상의 거리에서 실패한 게 1번에 불과하다. 1번은 30야드대에서, 다른 1번은 40야드대에서 필드골에 실패했다.

올해 아직까지는 고스코우스키의 킥 때문에 패트리어츠의 승패가 바뀐 경기는 없었다. 그러나 풋볼에서는 언제든지 3점짜리 필드골 때문에 경기를 역전할 수도,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놓칠 수도 있다.

고스코우스키에게 부상이나 다른

문제가 있다고 알려진 것은 없다. 결국 올해 잔여 경기를 지켜봐야겠지만, 패트리어츠는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필드골 실패로 경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고스코우스키의 부진을 해결해야 한다.

jsi@bostonkorea.com

## '13안타 폭발' 컵스, 다저스 대파...2승2패 승부 원점

클리블랜드, 토론토 제압하고  
19년만에 월드시리즈 진출

(서울=뉴스1) 이재상, 권혁준 기자 = 화려한 시카고 컵스가 LA 다저스를 완파하고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컵스는 1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스타디움에서 열린 2016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7전 4선승제) 4차전에서 다저스를 10-2로 대파했다.

전날 패배를 설욕한 컵스는 시리즈 전적 2승2패로 다시 균형을 맞췄다. 5차전은 21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컵스는 앤서니 리조가 5타수 3안타 3타점, 에디슨 러셀이 5타수 3안타 2타점으로 맹타를 휘둘렀다. 선발 존 랙키는 4이닝 2실점으로 5회를 채우지 못했지만 이후 불펜 투수들이 5이닝을 무실점으로 묶었다.

다저스는 선발 홀리오 유리아스가 3⅓이닝 4실점으로 무너지면서 흐름을 내줬다. 불펜진 역시 대량 실점했고, 타선도 침묵했다.

컵스는 4회초 무사 1,2루에서 윌슨 콘트라스의 적시타로 선취점을 뽑았다. 계속된 찬스에서 제이슨 헤이워드의 내야 땅볼로 한 점

을 보탠 컵스는 러셀의 2점홈런으로 4-0까지 벌렸다.

컵스는 5회초 리조의 솔로포로 한 점을 더 보탤었다. 5회말에는 랙키가 연속 볼넷을 내주며 흔들렸고 저스틴 터너에게 2타점 적시타를 맞았다. 하지만 마이크 몽고메리가 나머지 타자들을 처리하면서 추가 실점 위기를 넘겼다.

컵스는 6회초 다시 한 번 대량 득점에 성공하며 승부를 갈랐다. 1사 1,3루에서 텍스터 파울러의 적시타가 터졌고, 리조의 2타점 적시타와 하비에르 바예즈의 희생플라이 등으로 대거 5득점하면서 10-2까지 벌렸다.

컵스는 몽고메리가 6회까지 막았고, 이후 C.J. 에드워드, 트레비스 우드, 페드로 스트롭, 헥터 톤돈을 투입해 경기를 마무리지었다.

앞서 열린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5차전에서는 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토론토 블루제이스를 꺾고 19년 만에 월드시리즈 진출에 성공했다. 1948년 이후 68년 만에 우승에 도전한다.

클리블랜드는 19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로저스 센터에서 열린 2016 메이저리그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 시리즈(ALCS·7전 4선승제) 5차전에서 3-0으로 이겼다.

1~3차전을 승리한 뒤 4차전을 내쫓던 클리블랜드는 5차전을 가져가면서 4승1패로 월드시리즈에 진출했다.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선수들이 토론토 블루제이스를 꺾고 월드시리즈에 진출한 뒤 환호하고 있다

1948년 두 번째 우승 이후 68년 만에 정상에 노리는 클리블랜드는 LA다저스-시카고 컵스의 승자와 맞대결을 벌인다. 현재까지 다저스가 2승1패로 앞서고 있다.

클리블랜드는 막강한 마운드의 힘을 앞세워 토론토 타선을 잠재웠다.

선발 라이언 메릿이 5회말 1사까지 무실점으로 막아냈고, 브라이언 쇼-앤드류 밀러-코디 앨런이 효과적인 이어던지기로 승리를 지켜냈다.

클리블랜드는 1회 2사 1루에서 마이크 나폴리의 1타점 적시타로 기선 제압에 성공했고, 3회와 4회 각각 카를로스 산타나와 코코 크리스프가 솔로포를 터뜨려 3-0까지 달아났다.

기회를 잡은 클리블랜드는 빠른 투수 교체 등 효율적인 투수 운영을 통해 월드시리즈 진출을 확정지었다.

starburyny@news1.kr

# POSPay

worldpay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아직도 카드를 긁고 계십니까?  
고객님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십시오!



본촌: Aston



돼지곰: NJ



Mr. Sushi: Arlington



VIP Nails: RI



Queens Nails



Great Nails: GA



My Cleaners: CT



Classic Cleaners: Boston



Professional Cleaners: GA

<고객 절약 사례>

본촌: 20% 절약  
돼지곰: 16% 절약  
Mr. Sushi: 19% 절약  
VIP Nails: 22% 절약  
Queens Nails: 24% 절약  
Great Nails: 37% 절약  
My Cleaners: 41% 절약  
Classic Cleaners: 13% 절약  
Professional Cleaners: 23% 절약

[www.pospay24.com](http://www.pospay24.com)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 Divine Healing Conference 신유 전도 집회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누가복음 4:40)



세계적인 신유전도자  
박동희 장로  
총회신학대학교 대학원(Th.M.)  
주월 성결교회 장로  
중앙신유선교회 회장

한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일본, 필리핀, 미얀마, 러시아, 스페인, 독일 등에서 2,200회 이상 인도한 신유집회를 통해 불임, 심장판막, 담석, 장암, 위암, 자궁암, 자폐증, 간염, 소경, 병어리, 귀머거리, 앓은뱅이, 중풍병자, 당뇨, 축농증, 백내장, 녹내장, 심장병, 부인병, 결핵 등 불치의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신유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차게 일합시다.



멕시코 북부 빅토리아 산속마을에 살고있는 99세 부터  
걷지 못한106세의 할머니가 기도를 마친 후 걷기  
시작하다.

80세 맹인이 평생 처음  
으로 빛을 보다.

10월 28일 오후8시 (금), 29일 오후7시 30분 (토), 30일 오전 11시 30분 (주일)

보스톤 주님의 교회 285 Lake St. Waltham 617-966-9608



## 크라우저 앤 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 / 국제법 전문 로펌 Specializing in Immigration / International Law



Henry Crouser  
변호사

스티브 서  
변호사

### 전문 분야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원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기자 비자(O-1, P-1)
- 취업이민 (EB-2, EB-3, EB-4)
- 종교비자 (R-1)
- 투자이민 (EB-5)
- 투자비자 (E-2)
- 교수 및 연구직 (EB-1, NIW)
- 가족초청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재판

VISIT US AT :

[www.stevesuh.com](http://www.stevesuh.com) / [www.suhlalwyer.com](http://www.suhlalwyer.com)

**Crouser & Suh PLLC**

1309 Beacon St. Suite 300, Brookline, MA 02446

Tel: 617.566.7979 Fax: 617.566.7982

Email: [info@stevesuh.com](mailto:info@stevesuh.com)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신문) ▶수표 보내주실 곳: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뜰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신용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렉싱턴 소재 한인식당  
웨이터/웨이추레스 구합니다.  
T. 781-860-0171 (Kay)

벨몬트 픽업스토어에서 카운터 보실분  
구합니다.  
T. 617-631-4915, 617-484-6062

세탁소에서 프레스 하실분 구합니다.  
T. 617-955-7932



##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보스톤에 있는 미용실 매매합니다.  
좋은 장소, 가격 협상 가능.  
T. 617-818-5596



## 룸렌트 및 매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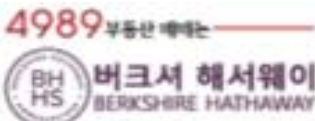
광고 문의 617-254-4654

뉴햄프셔 네슈아 한식/일식 식당 매매.  
좋은 위치, 9년째 성업 중  
T. 603-882-8644 (오후 4시 이후)

##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617-969-사구팔구  
www.bhhsneprime.com



## 메사추세츠주 태권도 협회 Massachusetts State Taekwondo Association



고문단장: 안 남 열



고문: 이 강 원



고문: 구 정 회



고문: 조 형 구



회장: 정 제 형



부회장: 허 훈



부회장: 리치안



사무총장: 전 명 호



회계: 김 희 용

웹사이트: 강 창 남  
시범단장: 홍 순 우  
경기위원장: 강 민 석  
심판위원장: Michael Agosti  
홍보부장: Maureen Maher-Killelea

[www.masta.us](http://www.masta.us)



2016년 메사추세츠 주 태권도 협회원 가입현황  
\*단체회원(\$200/년): 정제형, 허훈, 리치안, 홍순우,  
김희용, 전명호, 강민석  
\*정회원(\$100/년): 강창남

370 Boston Tpk., Shrewsbury, MA 01545  
Phone 508-792-5534 . FAX 508-767-0113

# 한인 업소록

## Korean Business Directory

### 긴급 주요 전화

|                   |                              |
|-------------------|------------------------------|
| 가정폭력상담소(Ex. 33)견인 | 617-338-2352<br>800-632-8075 |
| 고등교육위원회           | 617-727-7785                 |
| 고등교육정보센터          | 800-442-1171                 |
| 공중위생국             | 617-624-6000                 |
| 구세군               | 617-536-7469                 |
| 국제청               | 800-829-1040                 |
| 날씨문의              | 617-976-6200                 |
| 로간국제공항            | 800-235-6426                 |
| 미아찾기              | 888-477-6721                 |
| 백메이역              | 617-345-7958                 |
| 보스턴공립학교           | 617-635-9000                 |
| 보스턴수도             | 617-989-7000                 |
| 보스턴시청             | 617-635-4500                 |
| 보스턴총영사관           | 617-641-2830                 |
| 사우스익              | 617-345-7958                 |
| 사회보장국             | 800-772-1213                 |
| 성폭행               | 781-237-9110                 |
| 성폭행               | 617-492-8300                 |
| 시간문의              | 617-637-123                  |
| 아동보호              | 617-748-2000                 |
| 아동학대              | 800-792-5200                 |
| 알고리즘/마약           | 617-445-1500                 |
| 여성학대              | 617-248-0922                 |
| 온전연허              | 617-351-4500                 |
| 웰페어               | 617-348-8500                 |
| 자원봉사              | 800-522-8086                 |
| 적십자               | 800-564-1234                 |
| 전화신청 (Verizon)    | 800-941-9900                 |
| 전화교환신고 (Verizon)  | 617-555-1515                 |
| 택시                | 617-343-4475                 |
| AAA               | 800-222-4357                 |
| FBI               | 617-741-5533                 |
| MBTA              | 800-392-6100                 |
| NSTAR가스           | 800-572-9300                 |
| NSTAR 전기          | 800-592-2000                 |
| RCN케이블TV/전화       | 800-746-4726                 |

### 한인회

|            |              |
|------------|--------------|
| 뉴잉글랜드 한인회  | 781-933-8822 |
| 뉴햄프셔 한인회   | 603-767-1356 |
|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 401-368-0467 |
| 메인한인회      | 207-756-0092 |
| 버몬트 한인회    | 802-734-2521 |

### 주요 단체

|                 |              |
|-----------------|--------------|
| 국제대한교도연맹        | 978-407-7554 |
| 국제결혼가정선교연합회(NH) | 603-898-8201 |
| 뉴잉글랜드골프협회       | 617-438-9763 |
| 뉴잉글랜드공군전우회      | 978-902-8305 |
| NE교역자협의회        | 978-394-3060 |
| 뉴잉글랜드문인협회       | 978-688-3137 |
| 뉴잉글랜드산악회        | 774-270-1948 |
| 뉴잉글랜드시민협회       | 508-962-2689 |
|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 978-394-3060 |
| 뉴잉글랜드해병대전우회     | 617-833-1360 |
| 대매사주세태대권도협회     | 603-894-5425 |
| 민주평통보스톤협의회      | 413-535-0916 |
| 보스톤 대한체육회       | 781-326-9009 |
| 보스톤산악회          | 978-569-3256 |
| 보스톤한미노인회        | 978-994-5490 |
| 재미파학기술자협회       | 857-998-7043 |
| 재한인인회           | 339-298-7187 |
| 세탁인협회           | 508-826-5270 |
| 이복5도도인연합회       | 978-514-3399 |
| 한인학교단체협의회       | 781-424-5269 |
| F한인경제인협회        | 401-481-4900 |
| 한국인양아동회(메인)     | 207-878-5652 |
| 625참전유공자회       | 978-725-9597 |
|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 781-367-5993 |

### 동창 향우 동호회

|            |              |
|------------|--------------|
| 건국대학교동창회   | 401-738-8735 |
| 경기고등학교동창회  | 508-995-7242 |
| 경기여고동창회    | 781-861-0437 |
| 경북고동창회     | 617-921-8799 |
| 고려대학교 교우회  | 617-795-1779 |
| 뉴잉글랜드 산악회  | 774-270-1948 |
|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 978-474-4780 |
| 보스턴 산악회    | 978-569-3256 |
| 보스턴한인사회관   | 617-789-4964 |
| 산사랑        | 774-270-1948 |
| 서강대동문회     | 617-599-9869 |
| 서울고 동문회    | 617-792-2635 |
| 서울대학교동창회   | 978-821-9434 |
| 서울신학대학교동창회 |              |
| 성균관대동창회    | 802-734-2521 |
| 영광중고등학교동창회 | 508-541-6969 |
| 이화여고동창회    | 617-277-0730 |
| 이화여대동창회    | 978-390-1552 |
| 중앙대학교동창회   | 603-622-8883 |
| 강원도민회      | 617-875-1801 |
| 충청향우회      | 678-717-8800 |
| 한양대동문회     | 781-708-3160 |

### 언론

|                 |              |
|-----------------|--------------|
| 보스톤코리아          | 617-254-4654 |
| 한인회보            | 781-933-8822 |
| 한국일보(뉴욕)        | 718-482-1111 |
| Grapevine Times | 781-548-9945 |

### 종교

|              |              |
|--------------|--------------|
| 기독교          |              |
| 구세군 물든교회     | 617-792-8780 |
| 그린랜드 연합 감리교회 | 603-430-2929 |
|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 617-913-3074 |
| 나사렛사람의교회     | 781-439-1840 |
| 낮아짐교회        | 781-832-2014 |
| 뉴잉글랜드감리교회    | 617-969-0507 |
| 뉴튼 아름다운 교회   | 617-869-8159 |
| 갈보리교회        | 413-789-9888 |

|             |              |
|-------------|--------------|
| 구세군물든교회     | 617-792-8780 |
|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  | 203-459-8517 |
| 그리니치한인교회    | 203-861-1134 |
|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 603-430-2929 |
| 나사렛사람의교회    | 781-439-1840 |
| 내슈아한마음교회    | 603-888-8040 |
| 뉴잉글랜드감리교회   | 617-969-0507 |
| 뉴잉글랜드한미교회   | 413-567-9142 |
| 뉴튼 아름다운 교회  | 617-869-8159 |
| 뉴햄프셔감리교회    | 617-990-7619 |
| 뉴햄프셔장로교회    | 603-437-5134 |
| 뉴햄프셔한인교회    | 603-264-6799 |
| 라이코스교회      | 978-387-1115 |
| 라이스한인침례교회   | 508-926-8236 |
| 로드아일랜드성동교회  | 401-353-0983 |
|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 401-944-0520 |
| R생명의길장로교회   | 401-821-2311 |
| 메리맥 교회      | 978-806-1363 |
| 목양교회        | 617-223-1690 |
| 무지개교회       | 207-774-1617 |
| 밀알한인교회      | 978-244-0691 |
| 렉싱턴 풍성한교회   | 617-953-0856 |
| 버클랜드 침례교회   | 617-864-5948 |
| 보스턴 국제교회    | 617-459-6479 |
| 보스턴 감리교회    | 781-393-0004 |
| 보스턴 사랑의교회   | 617-285-8870 |
| 보스턴 사랑제일교회  | 978-844-2404 |
| 보스턴 은혜장로교회  | 781-715-0571 |
| 보스턴 새로남교회   | 617-947-6765 |
| 보스턴 새생명교회   | 978-777-1800 |
| 보스턴 생명의 교회  | 978-578-6987 |
| 보스턴서부장로교회   | 781-894-3958 |
| 보스턴 성결교회    | 781-275-8233 |
| 보스턴 한울교회    | 781-396-1004 |
| 보스턴 소망교회    | 781-686-5526 |
| 보스턴시온성교회    | 978-758-4541 |
| 보스턴산익교회     | 781-279-3270 |
| 보스턴 온누리교회   | 781-933-7044 |
| 보스턴웨슬레감리교회  | 781-393-0004 |
| 보스턴 장로교회    | 508-435-4579 |
| 보스턴 제일교회    | 617-458-2733 |
| 보스턴 주님의교회   | 617-966-9608 |
| 보스턴 중앙교회    | 617-230-5004 |
| 보스턴빌드그림교회   | 857-636-9985 |
| 보스턴 한인교회    | 617-739-2663 |
| 보스턴 한우리교회   | 978-454-0454 |
| 보스턴한인연합교회   | 617-923-9581 |
| 북부보스톤감리교회   | 978-470-0621 |
| 비전교회        | 617-308-2391 |
| 새빛교회        | 781-652-0001 |
| 새메루살렘교회     | 774-249-0022 |
| 선한목자장로교회    | 904-400-9386 |
| 성요한 교회      | 781-861-7799 |
| 순복음 보스톤교회   | 617-413-5372 |
|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 413-789-4522 |
| 스프링필드제일교회   | 413-781-2477 |
| 시온감리교회      | 401-739-8439 |
| 안디옥 교회      | 978-534-3394 |
| 열방교회        | 617-620-3352 |
| 에이여 베렐교회    | 978-274-2369 |
| 엘허스트 한인장로교회 | 781-436-6495 |
| 엘허스트 시온교회   | 413-549-9200 |
| 올스톤한인교회     | 617-642-7403 |
| 우스터 교회      | 508-799-4488 |
| 우스타장로교회     | 781-354-1843 |
| 워십프로피터 교회   | 918-876-2815 |
| 임마누엘 연합교회   | 978-394-3060 |
| 자연교회        | 603-437-6151 |
| 좋은땅교회       | 978-930-6613 |
| 지구촌방주교회     | 617-838-6434 |
| 케임브리지한인교회   | 617-491-1474 |
|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 781-861-3877 |
| 켄시영성장교회     | 617-770-2755 |
| 하바드 한인선교회   | 617-441-5211 |

### 불교

|             |              |
|-------------|--------------|
| 문수사         | 781-224-0670 |
| 서운사         | 508-755-0212 |
| 심광사         | 617-787-1506 |
| 원불교         |              |
| 원불교보스톤성당    | 617-666-1121 |
| 천주교         |              |
| 보스턴 한인천주교회  | 617-558-2711 |
|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 | 401-499-8258 |

### 간판

|       |              |
|-------|--------------|
| 초이스간판 | 617-470-1083 |
|-------|--------------|

### 건강식품

|               |              |
|---------------|--------------|
| 보스턴 정관장브랜드스토어 | 781-238-0303 |
|---------------|--------------|

### 건축

|                  |              |
|------------------|--------------|
| 글로벌건축            | 617-645-6146 |
| 김원태 건축사          | 617-620-8242 |
| 미남건축             | 508-650-8844 |
| 선아건축             | 508-230-5878 |
| 솔로몬 DRYWALL      | 978-761-0623 |
| 신.중축 루팡사이딩 청문    | 617-999-9616 |
| 아놀드 건축           | 617-833-1360 |
| 파인한건축            | 617-688-6833 |
| 한샘㈜              | 781-487-0101 |
| ECO Construction | 781-608-2971 |
| E/Y 건축           | 617-590-3472 |
| J.C건축            | 781-738-7871 |
| J&D 인테리어         | 617-645-6661 |
| LEE'S건축          | 617-538-0558 |

### 골프 개인

|         |              |
|---------|--------------|
| 골프레스    | 617-458-2733 |
| 골프스쿨    | 617-775-5527 |
| 남궁연골프교실 | 978-474-4780 |
| ABC골프   | 603-401-7990 |

|           |              |
|-----------|--------------|
| 최현주 골프 레슨 | 339-223-4700 |
|-----------|--------------|

### 공인 회계사

|          |              |
|----------|--------------|
| 김양일 회계사  | 617-901-0707 |
| 김창근 세무사  | 781-935-4620 |
| 노성일공인회계사 | 781-863-2232 |
| 이현주 회계사  | 781-944-2442 |
| 이명원 회계사  | 617-455-8073 |
| 정진수회계사   | 508-584-5860 |
| 한미선회계사   | 617-792-2355 |
| 한성애회계사   | 617-283-7151 |

### 꽃

|       |              |
|-------|--------------|
| 미스틱화원 | 617-666-3116 |
| 대교플라워 | 617-875-0648 |
| 앤더슨꽃집 | 781-894-1843 |

### 금융 / 모기지

|            |              |
|------------|--------------|
| 인디펜던트(퓨영역) | 617-777-2929 |
| 에이저 리      | 781-591-2722 |
| 이중수파인스     | 617-799-6158 |

### 냉동 / 에어컨 / 히팅

|             |              |
|-------------|--------------|
| JK 플러밍      | 978-303-7000 |
| Nirvana Air | 508-473-3429 |

### 노래방

|       |              |
|-------|--------------|
| 진 노래방 | 617-782-9282 |
|-------|--------------|

### 도서관

|           |              |
|-----------|--------------|
| 뉴햄프셔한인도서관 | 603-644-1991 |
| 보스턴공립도서관  | 617-539-5400 |

### 당구장

|        |              |
|--------|--------------|
| 올스톤당구장 | 617-782-0969 |
|--------|--------------|

### 동물병원

|           |              |
|-----------|--------------|
| 김문소 동물병원  | 978-851-3626 |
| 온상래 동물병원  | 978-343-3049 |
| 제임스김 동물병원 | 978-658-5282 |

### 떡 / 잔치 / 반찬(주문)

|       |              |
|-------|--------------|
| 형제떡집  | 978-975-3303 |
| 장음식주문 | 781-648-0584 |
| 한아름   | 617-547-8723 |

### 미용실

|                       |              |
|-----------------------|--------------|
| 가위소리                  | 617-782-8111 |
| 그레이스스킨케어              | 978-468-0039 |
| 그레이스커팅클럽              | 617-331-1011 |
| 딘오 헤어살롱               | 617-206-4560 |
| 뷰티풀 헤어살롱              | 857-284-3879 |
| 세리 미용실                | 781-676-7374 |
| 압구정동열굴방               | 617-437-0378 |
| 웨스트메인헤어               | 508-734-0446 |
| 티케이헤어디자인              | 508-768-7675 |
|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 978-772-7886 |
| 헤어 스크린                | 617-787-1735 |
| 헤어 센스                 | 617-773-1220 |
| 헤어 Collage            | 617-354-4660 |
| 미용실 코리아LEE            | 617-913-3559 |
| AYER BEAUTY SALON     | 978-772-6555 |
| 최희희 헤어(Biss Image)    | 617-818-5596 |
| 헤어앤드 그레이스아실롱          | 508-879-7777 |
| MIN-AH MAKEUP         | 978-617-7122 |
| Scotty's of Lexington | 718-861-1277 |

### 돌상 대여/폐백

|      |              |
|------|--------------|
| 해피돌상 | 617-249-3131 |
| 폐백   | 978-688-0929 |

### 방송국

|           |              |
|-----------|--------------|
| 앤티비보스톤사업국 | 617-955-9112 |
|-----------|--------------|

### 변호사

|                   |              |
|-------------------|--------------|
| 김광식특허변호사/변리사      | 617-239-0839 |
| 김성곤 변호사           | 781-438-6170 |
| 김성희 변호사           | 617-884-0002 |
| 김연진변호사            | 617-742-7707 |
| 김성곤 변호사           | 781-438-6170 |
| 김성희 변호사           | 617-884-0002 |
| 김연진변호사            | 617-742-7707 |
| 박현종특허변호사          | 978-474-8880 |
| 성기주변호사            | 617-504-0609 |
| 스티브 지 변호사(이민법)    | 203-852-9800 |
| 워드랜드/엑커맨변호사       | 203-324-6155 |
| 장우석 변호사           | 781-712-1706 |
| 정선진변호사            | 617-230-0005 |
| 피터전변호사            | 203-386-0503 |
| JOHN DOWNEY 법률사무소 | 647-964-5809 |
| STEVEN S. KIM 변호사 | 617-879-9979 |
| Joy Lee 변호사       | 617-624-0292 |
| Young Lee Danesh  | 617-367-4949 |

### 병원

|                |                    |
|----------------|--------------------|
|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 978-475-5656       |
| 내과 송근민         | 617-696-7600       |
| 하버드뱅크(이재웅)     | 617-421-2282       |
| 한서동내과          | 401-722-0305       |
|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 401-726-0600       |
| 이윤노산부인과        | 508-427-3000       |
|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 978-687-2119       |
|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정신과  | 617-566-1055       |
| 심리상담 김자향심리치료사  | 781-769-8670 x6080 |

|                   |              |
|-------------------|--------------|
| 양미아헤일리카운셀링        | 508-728-0832 |
| 임나경심리상담소          | 617-738-9622 |
|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 781-365-1876 |
| 닥터스통증병원           | 617-731-1004 |
| 성진우척추신경전문         | 978-688-6999 |
| 추 남남 D.C.         | 617-230-4250 |
| Hana Rehab Clinic | 617-566-1199 |
| 보스턴컨스테드카이로        | 617-277-0648 |

### 치과

|                       |              |
|-----------------------|--------------|
| 김동원치과                 | 978-689-9363 |
| 김정규 치과                | 860-623-2601 |
| 브라이언윤치과               | 978-655-1583 |
| 신영록 치과                | 617-265-5606 |
| 안 치과                  | 781-647-8000 |
| 엑셀패밀리덴탈               | 617-471-6970 |
| 이영환치과                 | 508-987-8228 |
| 이요셉치과                 | 781-431-7295 |
| 케임브리지덴탈               | 617-492-8210 |
| 케임브리지덴탈/엑스            | 617-871-1482 |
| 퀸지소아치과                | 617-471-2184 |
| 손영권치과                 | 978-459-0594 |
| 프로스펙트덴탈그룹             | 617-576-5300 |
| 한은애교정치과               | 781-894-1127 |
| 아이콘덴탈                 | 781-861-8978 |
| ASHLAND FAMILY DENTAL | 508-881-7272 |
| 장승혁보철임플랜트             | 781-489-1470 |
| 전문치과                  | 401-729-2711 |
| Smart Dental          | 781-322-4914 |

### 기타

|            |              |
|------------|--------------|
| 메모리리빙원(병리) | 203-330-8080 |
| 문히어름 보정기   | 781-573-3277 |

### 보석

|       |              |
|-------|--------------|
| 국제보석상 | 617-523-2553 |
| 메타판보석 | 617-298-6661 |
| 우리보석  | 781-272-2400 |

### 보험

|             |              |
|-------------|--------------|
| 이문항 보험      | 781-325-3406 |
| 조종은 종합보험    | 781-255-1134 |
| 베스트코치산인종합보험 | 617-782-8800 |
| 윤광현 생명보험    | 978-390-4738 |

### 비디오

|            |              |
|------------|--------------|
| 나비스(촬영/편집) | 617-756-5744 |
|------------|--------------|

### 부동산

|             |
|-------------|
| 뉴스타부동산(손득한) |
|-------------|

# 전립선 비대증, 40대부터 조심해야 하는 전립선 대표질환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중앙대학교병원' ... "전립선 비대증과 심혈관계 질환 연관성 높으므로 고지혈증 예방과 혈압 및 당뇨 조절해야"

이번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40대부터 조심해야 할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중앙대학교병원의 도움을 받아 알아보기로 한다.

보통 노화가 되면 다른 장기들은 작아지는데, 전립선은 특이하게도 노화가 되면서 탱글탱글 커진다. 전립선은 요도를 감싸고 있는 기관이라 전립선이 커지면 요도를 압박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요도가 좁아지고 오줌줄기가 약해져 방광 기능에 영향을 미쳐 배뇨

장애가 야기되는 질환이 바로 전립선 비대증이다.

◎ 40대부터 조심해야 하는 전립선 대표 질환, 전립선 비대증 : 전립선은 방광 밑에서 요도를 감싸고 있는 밤알 크기의 기관으로 남성에게만 존재하고, 정액의 일부를 생산한다. 전립선에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40대 이전 젊은 연령 층에서는 만성 전립선염이 있고, 50대 이후 중장년층에서

는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이 있다.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이 점점 커져 요도를 압박하게 되면서 각종 배뇨증상을 야기하는 전립선의 대 질환이다.

◎ 전립선 비대증 의심 증상 : ① 소변발이 약하다. ② 소변을 자주 보고, 소변이 마려우면 참기 어렵다. ③ 자다가 깨서 소변을 본다. ④ 소변을 보다 쉬었다 다시 보게 된다. ⑤ 화장실에 가서 바지 내리고 한참 있어야 소변이 나온다. ⑥ 소변 보고 나서도 개운하지 않다. ⑦ 소변을 볼 때 아프거나 쓰리다.

◎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 어떤 검사를 하게 되는가? : 증상이 어느 정도 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상 점수표 작성, 항문을 통한 전립선 촉진(직장수지검사), 소변검사, 전립선특이항원 피검사(PSA), 요속검사, 잔뇨량 측정, 배뇨일지 등이 기본적인 검사이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요역학 검사, 전립선초음파 검사, 경정맥요조영술, 방광요도경 검사, 요세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는? : 심하지 않으면 별다른 처치 없이 두고 보기도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1년에 한번은 기본적인 검사를 하여 관리를 하는 것을 권장한다.

적극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크게 약물 치료와 수술적 치료, 최소 침습적 치료가 있다. 약물 치료는 전립선 요도를 벌여지게 하거나 전립선을 작게 만들어 주는 약물이 있는데, 수술을 피하는 장점이 있지만 약을 끊으면 다시 재발



토마토, 콩, 마늘은 전립선내 활성요소를 억제하는기능이 있어 전립선 건강에 중요한 음식이다

하므로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해야하는 단점이 있다. 수술 적 치료는 개복하여 커진 전립선을 적출해내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내시경으로 전립선 요도를 보면서 전립선을 깎아내는 방법도 있다. 최소 침습적 치료로는 레이저 전립선 절제술이 많이 시행된다. 치료법은 환자마다 최적의 치료가 다를 수 있어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식의 치료법 결정은 수술 만족도 감소로 귀결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전립선 비대증을 예방하는 방법은? : 전립선 비대증과 심혈관계 질환의 연관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비만, 운동부족,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심장에 무리가 가는 음식 섭취 등은 전립선 비대증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고지혈증의 예방과 혈압 및 당뇨를 조절해야 하며 금연, 체중 조절, 운동이 필요하다.

식탁에서 육류의 양을 줄이고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 과일 그리고 생선 등의 섭취를 늘려 나가도록 하며, 지방 중에서는 몸에 이로운 불포화지방산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 그외에도 토마토, 콩, 마늘은 전립선내 활성요소를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전립선 건강에 중요한 음식이다. 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고 연령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권하며, 걷기운동이나 수영 등이 권장된다. 하지만 건강 상태에 개인차가 매우 심하므로 자신의 신체연령에 맞는 운동 전략이 필요하다. 걷기 운동은 하루 40분~1시간, 일주일 3~4회 이상을 권한다.

◎ 자전거는 전립선 건강에 안 좋을 까? : 흔히들 자전거가 전립선 질환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운동의 장점도 많아 사이클링 후 배뇨 증상이나 회음부 불쾌감, 하복부 불쾌감이 없다면 굳이 마다할 필요는 없다. 오래 타면 회음부의 압박에 의한 불쾌감이 발생하므로, 중간 중간에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다. 또한 회음부 보호를 위한 안장을 사용하거나 안장의 각도나 위치를 자신에 맞게 조정해 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종료 후에는 자극받았던 회음부를 풀어주기 위해 반신욕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카이로프랙틱이란?”** : 우리 몸은 남녀노소 모두 33개의 척추신경을 가지고 있으며 뇌로부터 이 신호를 통해 신호를 몸 구석구석까지 전달하게 전달해야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충격, 과로, 교통사고나 잘못된 생활 습관 등으로 척추가 어긋나게 되면서 척추신경 압박 및 압통으로 뇌로부터의 신호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여 우리 몸에 통증과 같은 이상이 생깁니다. 이러한 척추의 어긋난 곳을 정확하게 찾아 가장 안전하게 바로잡는 것이 바로 카이로프랙틱입니다.



**원장 : Dr. 유정호, D.C.**  
(Dr. Jeongho Yoo, D.C.)

- Graduated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Member of Gonstead Seminar of Chiropractic
- Member of Gonstead Methodology Institute
- Certified International Board of Extremity Chiropractors
- 한양대학교 졸업 및 ROTC 47기
- Active license in MA(#3524)

## 진료과목

- 척추계통 : 목 / 통 / 허리 / 골반 통증, 디스크 질환
- 사지계통 : 어깨, 무릎, 손목, 발목, 허리결 통증
- 신경/순환 계통 : 손발 저림, 좌골신경통, 두통, 어지러, 소화불량
- 교통/직장/운동 사고: 물리치료와 병행하여 후유증 해소
- 어린이/학생/성인 자세 관련 통증 및 척추측만 교정

## 개인기밀 특별실

- 카이로프랙틱 상담
- 방일 이후 정기 상담 (9:00pm-12:00am)
- 7월18일 - 11월18일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주요보험: 삼성생명PPO, 현대기아, 한국/유한/여흥/교보생명/보합 등 다수

## 진료시간

월-금(M-F) : 9am-8pm  
토(Sat) : 10am-12pm  
일(Sun) : Closed



**보스턴 건스태드 카이로프랙틱**

**Tel. 617.277.0648**

77 Pond Ave, Suite 101, Brookline, MA 02445  
Email: boetongonstead@gmail.com  
Web: www.bostongonstead.com



## '인페르노', 39개국 박스오피스 1위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영화 '인페르노'가 지난 주 개봉한 54개 국가 중 39개국에서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하며 돌아온 로버트 랭던 시리즈의 본격적인 흥행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19일 국내 개봉에 앞서 해외에서 먼저 개봉한 '인페르노'는 전체 54개 개봉국 중 39개국(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러시아, 스위스, 헝가리, 인도, 케냐, 나이지리아, 폴란드, 스웨덴, 터키, 브라질, 이집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등)에서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인페르노'는 약 5000만 달러(한화 약 562억 원)의 흥행 수익을 거두며 다시 시작된 시리즈의 열풍을 실감케 했다. 그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개봉한 '인페르노'는 동시기 개봉작 중 예매율 1위를 차지하며 영화에 대한 관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특히 '인페르노'의 이와 같은 기록은 할리우드 대작들의 대거 개봉으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국내 극장가에서 압도적인 흥행을 예고한 것으로 전망돼 앞으로의 성적에 귀추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

'인페르노'는 다음 주부터 전 세계적으로 큰 규모의 시장을 자랑하는 미국, 중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 개봉할 예정으로, '랭던' 시리즈의 흥행 열풍에 힘을 더욱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인페르노'는 기억을 잃은 하버드대 기호

학자 로버트 랭던이 전세계 인구를 절반으로 줄이려는 계획을 세운 천재 생물학자의 죽음 이후 남겨진, 단테의 '신곡'에 얽힌 단서를 추적하는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 영화다.

댄 브라운의 시리즈가 모두 영화화가 되지 않은 것처럼 이전 시리즈들과는 달리 '인페르노'는 실제 전 인류의 고민인 인구 과잉에 대한 현대적 주제로 현실감 있는 이야기를 전한다.

특히 원작에 강하게 매료된 론 하워드 감독과 톰 행크스는 "꼭 하고 싶은 작품"이라고 밝힐 만큼 이번 작품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두 번째 관람 포인트는 바로 시리즈를 대표하는 캐릭터, 천재 기호학자 로버트 랭던이 시리즈 사상 최고의 위기를 겪게 된다는 것이다.

비범한 기억력과 암호 해독에 있어 천부적인 능력을 지닌 로버트 랭던은 이번 시리즈에서 정체불명의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은 후 기억을 잃게 된다. 최악의 상황에 빠진 로버트 랭던은 보티첼리의 '지옥의 지도' 속 숨겨진 암호를 찾아 인류의 생존을 건 추리를 시작한다.

마지막 관람 포인트로는 랭던의 추격전이 시작되는 피렌체, 베니스, 이스탄불 등 유럽 도시의 배경, 기억과 환상을 오가는 강렬한 비주얼 등을 볼 수 없는 환상적인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이다.

aluem\_chang@news1.kr

## '푸른 바다의 전설' 전지현, 상상 속 인어가 현실로 '매혹적'

(서울=뉴스1스타) 권수빈 기자 = 인어로 변신한 전지현의 모습이 공개됐다.

SBS 새 수목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극본 박지은/연출 진혁) 측은 19일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전지현, 이민호의 애절한 모습이 담긴 '인연 티저'를 공개했다.

영상에는 서로를 그리워하는 듯한 전지현과 이민호의 모습이 담겨 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파도가 출렁이는 바위에 앉아 먼 바다를 바라보는 이민호의 모습과 슬픔에 젖은 전지현의 감성적인 대사를 더했다. 해안가에 정신을 잃고 쓰러진 이민호와 바위 사이에서 경계심 가득하게 몸을 움츠리고 있는 전지현의 모습은 궁금증을 고조시킨다.

아울러 인어로 변신한 전지현의 모습은 시선을 땔 수 없게 만든다. 전지현은 상상 속에만 존재하던 인어가 현실화된 매혹적인 모습

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바닷속을 자유롭게 유영하며 신비로운 인어의 자태를 뽐내고 있다. 이와 함께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는 대사는 무언가 사연이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짧게 담긴 과거 장면에서는 연꽃 사이에 외롭게 앉아 있는 전지현의 모습이 있다. 상처가 잔뜩 난 채 겁에 질린 모습으로 나무 막대기로 자신을 톡톡 건드리는 사람들의 손길을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다. 이러한 수모를 견뎌내고 이민호를 향해 헤엄쳐 가고 있어 두 사람의 로맨스에 기대가 더해진다.

'푸른 바다의 전설'은 멸종 직전인 지구상 마지막 인어가 도시의 천재 사기꾼을 만나 벌어지는 로맨스를 그린다. 내달 16일 첫회가 방송된다.

ppbn@news1.kr



## 이효리 "내년 썸 앨범 나오지 않을까"

(서울=뉴스1스타) 권수빈 기자 = 이효리가 새 앨범 계획을 밝혔다.

이효리는 19일 공개된 마리끌레르 11월호 화보를 통해 오랜만에 근황을 전했다.

이번 화보에서 이효리는 오버사이즈 블랙 니트에 부티, 내추럴한 헤어로 그의 삶처럼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완성했다. 꾸밈 없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잔잔한 여운을 남겼다.

그는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을 묻는 질문에

"지금은 내 몸이 건강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며 "아름다움을 위해서 채우기 보다는 비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중"이라고 답했다.

또 이효리는 "서두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음악 작업 중"이라며 "내년 썸에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앨범 계획을 공개했다.

ppbn@news1.kr



# 한주간



# 시청률 순위

2016년 10월 10일 ~ 2016년 10월 16일

## Nielsen Media TV 자사와 주간시청률

|    |      |                      |       |
|----|------|----------------------|-------|
| 1  | KBS2 | 주말연속극(월계수양복점신사들)     | 27.5% |
| 2  | KBS1 | 일일연속극(별난가족)          | 22.2% |
| 3  | MBC  | 창사특별기획(옥중화)          | 21.5% |
| 4  | KBS2 | 일일드라마(여자의비밀)         | 18.5% |
| 5  | KBS2 | 월화드라마(구르미그린달빛)       | 18.3% |
| 6  | KBS1 | KBS9시뉴스              | 16.7% |
| 7  | MBC  | 일밤1부(미스터리음악쇼복면가왕)    | 14.6% |
| 8  | MBC  | 일밤2부(리얼입대프로젝트진짜사나이2) | 13.9% |
| 9  | KBS2 | 해피선데이                | 13.5% |
| 10 | KBS1 | 한국인의밥상               | 13.1% |

## Tbo Play 주간시청률

|    |      |                  |
|----|------|------------------|
| 1  | MBC  | 창사특별기획(옥중화)      |
| 2  | SBS  | TV소설(저 하늘의 태양이)  |
| 3  | KBS2 | 주말연속극(월계수양복점신사들) |
| 4  | SBS  | 아침연속극(사랑이오네요)    |
| 5  | MBC  | 주말드라마(불어라미풍아)    |
| 6  | SBS  | 일일드라마(당신은선물)     |
| 7  | MBC  | MBC아침드라마(좋은사람)   |
| 8  | KBS2 | 일일드라마(여자의비밀)     |
| 9  | MBC  | 일일연속극(다시시작해)     |
| 10 | KBS1 | 일일연속극(별난가족)      |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    |                           |        |
|----|---------------------------|--------|
| 01 | 우주를 줄게                    | 볼빨간사춘기 |
| 02 | 내가 저지른 사랑                 | 임창정    |
| 03 | 숨                         | 박효신    |
| 04 |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 한동근    |
| 05 | 어떻게 지내                    | Crush  |
| 06 | 내 옆에 그대인 걸                | 다비치    |
| 07 | 러시안 룰렛 (Russian Roulette) | 레드벨벳   |
| 08 | 그대라는 사치                   | 한동근    |
| 09 | 세 단어                      | 젝스키스   |
| 10 | 돌아오지마 (Feat. 용준형 Of 비스트)  | 헤이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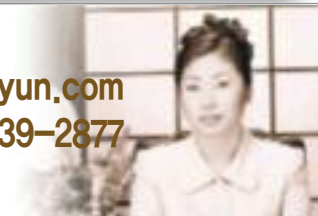
## 숫자 퍼즐 (Sudoku)

|   |   |   |   |   |   |   |   |   |
|---|---|---|---|---|---|---|---|---|
| 5 |   | 7 |   | 1 |   |   | 2 | 9 |
| 3 | 8 |   | 5 |   |   |   |   |   |
|   |   | 1 | 7 |   |   |   |   |   |
|   |   | 9 |   | 4 | 3 |   |   |   |
| 1 |   |   |   | 6 |   |   |   | 8 |
|   |   |   | 1 | 5 |   | 7 |   |   |
|   |   |   |   |   | 6 | 9 |   |   |
|   |   |   |   |   | 5 |   | 1 | 7 |
| 6 | 7 |   |   | 2 |   | 8 |   | 3 |

10월 23일 - 10월 29일

# 재미로 보는 주 간 운 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 쥐띠 | 마음을 그때그때 전해야

●운수:주위의 도움을 사양하지 마세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니 때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금전:열심히 하느냐고 하는데도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 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게는 한만큼 얻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애정: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이나 고마운 마음을 그때그때 전하세요. 84, 72, 60, 48, 36년생은 25, 29일 길일. 24, 27일 주의.

### 소띠 | 좋은 마음으로 보면

●운수:웬지 모르게 기분이 가라앉게 됩니다. 신나는 음악을 듣거나 재미있는 것을 보면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전:당장은 금전문제에 대한 뾰족한 해답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하면 답이 보일 것입니다. ●애정:립다립다 하면 어떤 행동을 해도 다 밍게 보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보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26, 29일 길일. 25, 28일 주의.

### 범띠 | 막혔던 일들이 풀리고

●운수: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분위기가 바뀌면서 막혔던 일들이 풀립니다. ●금전:인맥을 활용하는 기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신의 인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득의 결과의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애정:꼭 붙잡고 있던 손을 놓으면 떨어져 큰 일은 줄만 알지만 그 손을 놓는 순간 날개가 있어서 비상할 수 있습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24, 27일 길일. 26, 29일 주의.

### 토끼띠 | 힘과 지혜가 있어야

●운수:강한 사람이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가는 사람이 강한 것입니다. 오래가는 사람이 되려면 힘과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금전:가까이에 금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직히 속사정을 표현해야 제대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애정:자신이 먼저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보세요. 상대도 편안하게 느끼고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23, 28일 길일. 27, 29일 주의.

### 용띠 | 분주하게 뛰어다녀야

●운수: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일이니 분주하게 뛰어다녀야 할 것입니다. ●금전:일이 성사되기 전에는 입을 꼭 다물어야 합니다. 오히려 다 된 일이 막판에 틀어질 수 있습니다. ●애정:불만족한 감정을 표현하는 데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불평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88, 76, 64, 52, 40, 28년생은 23, 29일 길일. 25, 28일 주의.

### 뱀띠 | 현실가능성을 먼저 고려해야

●운수:꿈을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금방 사라질 무지개라면 곤란합니다. 현실가능성을 먼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금전:주먹구구식 일처리나 어설픈 인기응원은 절대로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일처리를 해야 돈도 들어오고 살 길이 열립니다. ●애정:정말 듣고 싶은 말을 듣지 못하고 엉뚱한 말만 듣게 될 수 있습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27, 28일 길일. 23, 29일 주의.

### 말띠 | 대인관계가 훨씬 편해질

●운수: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고 인정해보세요. 전보다 대인관계가 훨씬 편해질 것입니다. ●금전:완벽하게 하려다가는 끝이 없는 법이니 매사에 너무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빈틈을 주는 것이 오히려 잘 풀리게 합니다. ●애정:누구나 어느 날 불쑥 다가오는 마음이 생기고 순간적으로 무조건 빠져들어 갈 수 있습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23, 28일 길일. 24, 25일 주의.

### 양띠 | 시야를 넓혀야

●운수:우물 안 개구리는 바깥세상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는 것만 가지고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시야를 넓혀보세요. ●금전: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지나간 손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련두지 말고 빨리 잊어버리세요. ●애정:꼭 육체적으로 힘들게 해야 고문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이 더 큰 고문이 됩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4, 27일 길일. 25, 28일 주의.

### 원숭이띠 |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운수:단 하루라도 모든 걱정이나 근심은 접어두고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좋은 생각도 떠오릅니다. ●금전:당장 눈에 보이는 이득이 돌아오는 일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큰 열매를 맺는 나무를 심는 것이라 생각하세요. ●애정:부부화합에 힘써야 합니다. 부부가 화합하고 가정이 편안해야 일도 순조롭게 풀리는 것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5, 29일 길일. 23, 26일 주의.

### 닭띠 | 얼마든지 기회가

●운수:실망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인생이 다 끝난 것이 아니니 아직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금전:실패를 여기서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 노력하라고 신호를 주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시 도전하면 얻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애정:좀 더 신경을 써주어야 하겠습니까. 현재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6, 29일 길일. 24, 27일 주의.

### 개띠 | 가능성이 안 보이면

●운수: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일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 또한 다 지나갈 것이니 잘 극복해야 합니다. ●금전:가능성이 안 보이면 포기하도록 하세요. 이미 손해 본 것이 복귀하려고 애를 쓰다가는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애정:좋아하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받아줄 수도 없다면 빨리 정리하세요. 점점 더 부담이 됩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3, 27일 길일. 25, 28일 주의.

### 돼지띠 | 새로운 도전이 필요

●운수:자신에게 주어진 일에만 충실해야 합니다. 다른 일에 신경 쓰다가는 정작 자신의 일은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금전:새로운 도전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의 방법만으로는 원하는 것을 이루거나 유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애정:항상 타이밍이 문제입니다. 한쪽은 이미 끝났는데 다른 한쪽은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서로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4, 28일 길일. 25, 26일 주의.



## 방탄소년단, 美 빌보드 소셜 50 차트서도 1위

(서울=뉴스1스타) 박건욱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200 한국 신기록 수립에 이어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 월드 디지털 송 차트, 소셜 50 차트를 석권했다.

18일(현지시간)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월드 앨범 차트와 월드 디지털 송 차트, 소셜 50 차트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빌보드 소셜 50은 온라인 SNS에

서 가장 인기 있고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를 선정하는 차트로, 트위터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팔로워나 조회수와 같은 수치들을 집계하고 분석해 산정하는 차트이다.

앞서 미국의 저스틴 비버와 리아나, 테일러 스위프트 등 해외 유명 팝스타들이 해당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 관

계자는 “한국 가수가 빌보드 소셜 50 차트 1위를 한 것은 방탄소년단처럼 온라인 상에서 팬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내면서 인기를 얻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새 앨범 타이틀곡 ‘피 땀 눈물’로 인기몰이 중이다.

kun1112@news1.kr



## '한끼줍쇼' 강호동, "이경규와 스타일 안 맞아 부담"

(서울=뉴스1스타) 권수빈 기자 = 강호동과 이경규와 함께 하는 방송을 걱정했다.

19일 밤 11시 방송된 JTBC '한끼줍쇼'에서는 강호동이 이경규와 함께 방송을 하는 것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는 모습이 공개됐다.

촬영 장소에 온 강호동은 이경규와 함께 해서 다행이라고 했지만 제작진과 사전 미팅 때는 "원래 맞는 스타일은 아니다. 이경규가 부담이다"고 말

했다.

10년 전 이경규는 강호동의 결혼식 주례를 봐줬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다. 그럼에도 강호동은 편하지는 않은 모습으로 "경규형이 계셔서 불편한 것도 많은데 든든한 것도 있네"라고 했다.

또 강호동은 "경규형과 절친이고 스승과 제자 사이다. 막상 같이 해보려고 하니.. 형님이 잘 해주시겠조"라며 약간의 걱정을 드러냈다.

ppbn@news1.kr

## '라디오스타' 김수용 "김국진♥강수지, 최소 사실혼"

(서울=뉴스1스타) 강희정 기자 = 김수용이 김국진, 강수지의 열애에 대해 말했다.

19일 밤 11시10분 방송된 MBC '황금어장 라디오스타'는 강수지, 김완선, 김수용, 박수홍이 출연한 가운데 '불

타는 라스' 특집이 꾸며졌다.

이날 김국진은 어머니에게 강수지와 관계를 밝혔다고 말했고, 이를 들은 후배 박수홍, 김수용은 놀랐다. 박수홍은 "제가 아는 김국진 형은 원래 그런 얘기를 어머니에게 할 사람이 아니

다. 얘기를 했을 정도면 마지막까지 고려한 것"이라고 얘기했다.

이를 들은 김수용은 "어머니에게 얘기할 정도면 최소 사실혼"이라고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다.

hjk0706@news1.kr



# 천지보살

운명사주궁합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 태양자동차

Body & Repair / States Inspection

---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형, 미국, 일본, 한국

### STATES INSPECTION

## 사고가 났습니까?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 617.868.2500

#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mail: eunautobody@yahoo.com

##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R.A. & N.Y.) • B04048 • GDT • L1853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 건축 & 시공

2014 OTK De-Com Group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특수주택과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대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통풍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각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New name for &TV

**TBO**  
PLAY  
RATINGS

**티보 시청률**

TBO Play는 한국 방송 및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티보플레이 10월 1째주 시청률 BEST10

- |    |     |                 |
|----|-----|-----------------|
| 1  | MBC | 옥중화             |
| 2  | KBS | TV소설(저 하늘의 태양이) |
| 3  | KBS |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
| 4  | SBS | 사랑이 오네요         |
| 5  | MBC | 불어라 미풍아         |
| 6  | SBS | 당신은 선물          |
| 7  | MBC | 좋은사람            |
| 8  | KBS | 여자의 비밀          |
| 9  | MBC | 다시시작해           |
| 10 | KBS | 별난가족            |

## 티보플레이 10월 1째주 신규 방송

- |   |     |        |
|---|-----|--------|
| 1 | KBS | 노래가 좋아 |
| 2 | CJ  | 노래의 탄생 |

## 티보플레이 10월 1째주 최신 영화

- |   |    |          |
|---|----|----------|
| 1 | 대결 | 이주승, 오지호 |
|---|----|----------|

## '구르미' 박보검♥김유정, 아픔 딛고 사랑 이뤘다

(서울=뉴스1스타) 명희숙 기자 = '구르미' 박보검, 김유정이 사랑을 이뤘다. 하지만 김유정을 지키기 위한 진영의 희생이 있었다.

정약용(안내상 분)는 이영이 쓰러졌다는 이야기는 들었다. 독살시도였다는 사실을 알았고, 홍라온(김유정 분) 역시 이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했다.

정약용은 "탕약에는 이상이 없었다. 그래서 기미한 사람들도 무사한 거다. 독은 약사발 결면에 묻어있었다. 그래서 빈궁의 은가락지 색이 변했다"며 깨어난 이영에게 설명했다.

이영은 홍라온이 궁에 왔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홍라온에게 "오래오래 모른척 해줄테니 내 곁에 있어라. 내가 다 나을 때까지 만이라도"라며 여전한 애정을 보였다.

이영은 어머니의 죽음의 진실을 밝혀냈고 김현에게 짓궂음을 치루게 했다. 그는 체포되던 중 손자 김윤성의 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또한 홍라온의 죄를 모두 사면해줬다.

조하연(채수빈 분)은 세자빈의 작위를 거둬달라고 청하며 궁을 떠났다. 이영은 왕 자리에 올랐다. 그는 백성들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며 홍라온과 사랑을 지속했다. 홍라온은 그의 이야기를 책으로 남기며 후세에 전했다.

reddgreen35@news1.kr



## '쇼핑왕 루이' 서인국♥남지현, 드디어 첫키스?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쇼핑왕 루이'의 '몽실 커플' 서인국과 남지현의 풋풋한 첫키스가 드디어 공개된다.

18일 MBC 수목드라마 '쇼핑왕 루이'(극본 오지영, 연출 이상엽) 측이 공개한 사진에는 루이(서인국 분)와 복실(남지현 분)이 다정하게 서로를 바라보며 입맞춤하기 직전의 떨리는 순간이 담겨 있다.

루이와 복실의 첫 키스신은 부산 보수동 책방 골목의 멋스러운 배경과 어우러져 더욱 특별한 순간으로 남았다. 이미 예고편을 통해 공개되며 시청자들의 설렘 지수를 한껏 끌어올린 루이와 복실의 첫 키스가 '몽실 커플'의 로맨스 진전의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쇼핑왕 루이'는 복잡한 소비의 도시, 서울 한복판에 떨어진 온실 속 기억상실남 쇼핑왕 루이와 오대산 날다람쥐 넷맹녀 고복실의 과란만장한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로, 매회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인기몰이 중이다. 8회는 오는 19일 밤 10시 방송된다.

aluem\_chang@news1.kr



**TBO**  
PLAY

보스톤군과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무제한 시청 월:

**\$39.99**

이동 고객 특별 할인

타 방송사에서 티보 플레이로  
같이 타사는 분에 한해  
월 \$30로 특별 우대해 드립니다

KBS, MBC, SBS, SBS Plus, tvN, XTV, The Best Undernand, ybo

**이정선 부동산**

**kw BOSTON-METRO**  
KELLERWILLIAMS

**CHUNG S. LEE**

Mobile: 781.883.5984  
Office: 617.535.7851  
Fax: 617.542.0016  
chunglee7@gmail.com  
chunglee.kwrealty.com

607 Boylston Street, Suit 500  
Boston, MA 02116

**H MART** 와 함께하는



# 한국 농특산물 특별판매전

**OCT. 21st - OCT. 30th, 2016 Only at Hmart Burlington**

H마트가 농협과 함께 다양한 한국 최상의 제품들로 한국산 농수산물 특별판매전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오셔서 맛보시고 100% 믿을 수 있는 우리 농수산물을 구매하세요.

**TRADITIONAL KOREAN MARKETPLACE**

Hmart and Nong Hyup brings Korea's finest products to America. Create your own healthy dinner table with products from Nong Hyup.



BURLINGTON 43 Middlesex Turnpike, Burlington, MA 01803 TEL. 781-221-4570 STORE HOURS Sun - Thu: 8am - 9pm / Fri - Sat: 8am - 10pm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MART**

## 신영의 세상 스케치

567회

##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하늘은 파랗고 바람이 시원한 10월의 하루  
생각만으로도 가을이 좋다. 지난 한국의 여  
름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폭염의 무더운 날  
이었음을 한국에 도착해 가족과 친구들 그리  
고 지인들에게서 들어 절감하게 되었다. 그  
무덥던 여름도 지나고 이제 시원한 가을이 왔  
다. 지난여름 찜통 같았던 그 폭염의 날을 기  
억조차 떠올리기 싫어 도망쳐 나오듯 해서 만  
난 시월의 하루인 것이다. 그래서일까, 이 가  
을을 농칠새라 한국의 주말은 시내 한복판뿐  
만 아니라 산으로 바다로 들로 울긋불긋 쌍쌍  
으로 무리 지어 가을 단풍 속에 색칠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곡 /롤프 러블랜드  
가사 /한혜경  
노래 /김동규(바리톤)

눈을 뜨기 힘든 가을 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무얼 할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가끔 두려워져 지난 밤 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매일 너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너를 확인해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너라는 걸  
네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10월이 되기 전부터 듣기 시작하는 노래가  
하나 있다. 성악가(바리톤) 김동규씨가 들려  
주는 이 노래는 가슴을 뭉클하게 하기도 가  
슴을 쓸어내리기도 한다. 참으로 무어라 딱  
히 표현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고독 사이'에서  
만나는 음률같은 그런 느낌의 가을 노래다.  
이 노래를 들으며 내 가을은 시작된다. 듣고  
들어도 싫지 않은 싫증나지 않는 노래이기도  
하다. 10월 중순 경, 이맘 때쯤이면 개인적인  
일(상담학 특강)로 한국에 다녀온 한다. 몇  
차례 있는 그 특강 핑계 덕분에 친지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간다.

보통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 하지 않던  
가. 그런데 재미있게도 내게는 꽃피는 봄의  
계절보다도 오색단풍이 물들고 낙엽이 떨어  
져 흩날리는 계절 가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가을이면 가슴이 뛰고 무엇인가 새로  
운 열정이 살아나는 것이다. 이렇듯 가을은  
내게 늘 꿈을 꾸게 하고 살아가는 이유를 일  
깨워주는 계절이기도 하다. 친구들과 만나  
즐거울 수대로 시간을 보내다가도 그 분주한  
곳으로부터 잠시 떠나 깊은 사색에 머물 수  
있는 계절이 가을인 까닭이다. 그래서 나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계절 나를 가만히 들여  
다볼 수 있는 계절인 것이다.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는 가을 노래를  
들으며 그저 성악가 김동규 씨의 구수하고 평  
안한 마음으로 듣는 노래라고만 생각했다.  
문득 이 곡은 누가 지었으며 또 이 곱고 아름  
다운 가사는 누가 썼을까 하고 궁금해서 여  
기저기 들춰보았다. 그랬더니 참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 곡은 유명한 유  
럽의 연주그룹 시크릿 가든(Secret Garden)  
의 작곡가 겸 건반연주가인 롤프 러블랜드가  
작곡한 곡이라는 것이다. 원래 이 노래는 연  
주곡으로 만들어져 가사는 없고 멜로디 뿐이  
었는데 우리말 가사를 붙인 것이란다. 원 제  
목은 'Serenade to Spring'란다.

그런데 봄의 노래가 가을 노래로 바뀐 사  
연이 무엇일까 궁금해졌다. 작사가 한씨는  
처음에 '5월의 어느 멋진 날에'로 하려 했었  
다고 한다. 한씨는 2001년 이 곡에 가사를 붙  
여달라는 기획사의 부탁을 받은 후 호주에 가  
있었다고 한다. 호주는 서울과 날씨가 반대  
여서 여름에 서울에서 떠났지만 호주는 초겨  
울의 날씨였다고 한다. 그리고 호주는 10월이  
봄이다. '10월의 멋진 날에'의 가사는 호주에  
서 10월에 썼다고 한다. 한씨는 고심 끝에 가  
사를 완성한 후 10월에 있을 이 노래의 녹음  
을 위해 메일로 서울의 기획사에 보냈다고 한  
다.

바리톤 김동규 씨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  
에'의 노래를 들으며 시월을 또 맞고 보내고  
있다. 10월에는 모두가 시인이 된다. 결실의  
계절 시월을 맞으며 오색찬란한 자연과 만나  
고 무르익어가는 들녘의 곡식들을 마주하며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를 만나고 피조물  
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감사와 감동과 고백이 시가 되고 노  
래가 되어 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10월에  
는 모두가 넉넉하고 풍성한 누림의 시인이 되  
는 것이다. 이 노래의 노랫말처럼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너라는 걸' 고백  
하는 것이다.

## 한담객설閑談客說: 흠속에 저 바람속에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가을이 깊어 간다. 내게 가을은 바람이다. 가을바람이 설렁 불  
적에, 단풍잎도 소리내어 흔들린다. 이는 바람에 한창인 붉은  
잎사귀가 떨어질까 아쉽다.

책을 자주 잃어 버린다. 아무리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도 나오  
지 않는 거다. 이사 갈 때 눈에 띄일지 모르겠다. 질레트의 이  
사移徙의 법칙이라던가. '지난 번 이사 때 잃어 버린 물건은  
다음 이사갈 적에 다시 나타난다.' 라 했다. 내가 업그레이드  
한다. '잃어 버린 책은 다음 이사갈 적에 나타난다.' 그렇다  
고, 책을 찾으려고 이사가고 싶지는 않다.

오래 전부터 다시 읽고 싶던 책을 구했다. 이여령교수가 썼던  
책이다. '흠속에 저 바람속에.' 만나는 순간, 너무 반가워 가  
슴까지 울렁였다. 수십 년 전에 읽었고, 충격과 전율을 고스란  
히 기억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열일을 제치고 단숨에 읽어 내려  
갔다. 아아, 잊고 있던 기억이 새록새록 저장된 파일에서 되살  
아 나오기 시작했다. 처음 읽을 적에, 차마 웃을 수 없어 가슴아  
팠던 구절이다. 서문에 나온다.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사람들은 늙은 부부였다. 경적 소리에  
놀란 그들은 곧 몸을 피하려고 했지만...그들은 갑자기 서로 손  
을 부둥켜 쥐고 뒤뚱거리며 곧장 앞으로만 뛰어 달아나는 것이  
다. 고무신이 벗겨지자 그것을 다시 집으려고 뒷걸음 친다. 하  
마터며 그때 차는 그들을 칠 뻔했다.’

이 글은 1960년대 초반에 발표되었으니, 늙은 부부는 우리 할  
아버지와 할머니일게다. 노부부는 흠속에 묻혀 살던 농군과 그

의 아내 였을 것이다. 내 어릴 적 동네 동무 이야기도 나온다.

‘한국의 아이들은 대개 팔과 다리에 비해 배가 크다. 참외씨  
나 수박씨가 묻어 있는 벌거벗은 아이들의 그 장구배야말로 우  
리 우수憂愁의 상징인 것이다. 위확장胃擴張에 걸린 한국의 아  
이들은 푸른 하늘을 나는 새를 보아도 좀처럼 동심을 깨우려 하  
지 않는다.’

배가 고프네 뭐 동심이겠나. 쉼한 눈에 부항든 검은 얼굴일텐데  
무슨 푸른 하늘이란 말이나. 이십대 젊은 이여령은 아픈 부분을  
제대로 찢었다. 살만 해졌고 먹을 걱정이 줄었어도, 찢린 부위  
는 여전히 아프다. 못 먹어 슬픈 눈을 가졌던 내 동무는 어디서  
무엇이 되었을까.

밥딜런이 노벨문학상을 받았단다. 나도 세계도 놀랐다. 그의  
노래중, ‘Blowing in the wind’의 마지막 구절이다. “The  
answer is blowin’ in the wind” (대답은 바람속에 있네.) 노  
래를 다시 들을 적에 감정은 같은 듯 다르다. 같은 감동과 전율  
이 되살아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책도 노래도 글쓴이와 노래  
가 열추 비슷한 나이에 읽고 들어야 하는 모양이다. 하긴 다들  
수 밖에 없다. 충격은 바람이 데려간 것인가. 흠속에 묻힌 것인  
가. 그 대답은 바람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 바람이 세월도 데려  
갔으니 말이다. 바람아, 내가 알고 있느냐?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마  
가 4:39)



바람아,  
너는 알고 있느냐? 자 2016.10



#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검진 & 성형 & 전문치료 & 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상담 및 문의 보스톤코리아 617.955.9112



코수술, 코재수술 잘하는 성형외과

## 아이앤지성형외과

- 1:1 개인 맞춤 시스템 ..... 수술 전 상담부터 수술의 전 과정, 수술 후 체계적인 관리까지 맞춤서비스 제공.
- 전문의 직접 진료 시스템 ..... 상담부터 수술의 전 과정, 수술 후 경과관리까지 전문의가 진료에 직접 참여하고 책임지는 직접 진료 시스템 진행.
- 첨단 안전관리 시스템 ..... 모든 수술 전 과정에 걸쳐 첨단장비와 실력으로 회복까지 철저한 안전관리 시스템 진행.
-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 수술 후에도 지속적인 경과체크와 세심한 관리로 빠른 회복과 복귀를 위해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 끊임없는 교육 연구 시스템 ..... 선도적인 연구 활동 및 전문적인 학술활동으로 세계 각국의 성형 전문의를 대상으로 교육 및 강연.

### 아이앤지 휴람이벤트

- ✓ 이마 실리프팅 ~~180~~만원 → **100**만원
- ✓ V라인 턱선 실리프팅 ~~150~~만원 → **70**만원 HOT
- ✓ 아이앤지 코성형 ~~250~~만원 / 아이앤지 코재수술 ~~350~~만원



김지수 원장 성형외과전문의

- 원진성형외과 원장(전)
- 대한 성형외과 학회 정회원
- 대한 미용성형외과 학회 정회원
- 눈코 성형연구회 회원 지방성형 연구회 정회원
- 안면윤곽 연구회 정회원
- 모발이식 연구회 정회원
- 대한 유방성형 연구회 회원
- 대한 두개안면 성형외과학회 정회원
- 국제 미용 성형외과학회(IFRAS)정회원



섬세함과 꼼꼼함으로 100%의 예술을 만듭니다!

## 리본성형외과

- 1989년부터 현재까지 25년 의료무사고 병원
- 최첨단 의료장비 3D 성형 시뮬레이션
- 1mm의 디테일까지 완벽하게 시술



쌍꺼풀  
매몰

~~132만원~~

**99**만원

쌍꺼풀+  
눈매교정

~~330만원~~

**220**만원

눈썹거상+  
하안검

~~396만원~~

**250**만원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 무료 전화(Call for Free) ★

1-844-DO HURAM (1-844-364-8726)

카카오톡 : 010.3469.4040 / ID: huraamkorea  
huraam@huraam.kr / www.huraamkorea.com

미국내 상담문의  
보스톤코리아  
Tel. 617.955.9112



독자기고  
김철

## 북미대륙 인디언의 역사 19. 주권 회복을 위한 만리 길 (4)

### 최장거리 걷기(Longest Walk) (계속)

세 번째 Longest Walk는 당뇨병퇴치(Reversing Diabetes)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는데 2011년 2월 14일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인근의 라홀라쇼어(La Jolla Shores)에서 출정식을 갖고 총 8600km의 거리를 걸어서 7월에 워싱턴으로 왔다. 워싱턴에서는 7월 7일과 8일 양일간에 당뇨병에 관한 모임을 개최하였다. 인디언들의 생활환경이 달라짐에 따라 당뇨병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AIM의 공동 창립자인 데니스 뱅크스(Dennis Banks)도 당뇨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서 전체 인디언을 상대로 한 당뇨병 예방과 퇴치 캠페인이 절실하였다. 인디언의 당뇨병 문제는 세계적으로도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될 정도로 심각하다. 애리조나주에 살고 있는 피마 인디언들의 경우 30대 이상 성인의 절반 이상이 당뇨병에 걸려 있다고 한다.

2013년 7월 15일 일출시간에 맞추어 워싱턴 모뉴먼트에서 기념식을 갖고 1978년에 걸었던 길을 거슬러 행진하여 샌프란시스코의 알카트라스 섬으로 향했다. 네 번째 Longest Walk가 되는 셈이다. 이 행사의 구호는 ‘알카트라스로 돌아가기(Return to Alcatraz)’ 이었다. 그들은 12월 21일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 부족 자치권 신장을 위한 미국정부의 노력

존슨(Lyndon B. Johnson) 대통령은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 건설을 위하여 ‘

가난과의 전쟁(War on Poverty)’ 을 선포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경제기회개발청(Office of Economic Opportunity)’ 을 1964년에 설립하였다. 전에는 반드시 연방 정부나 주 정부를 통해서만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기구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트였다. 이 기구 덕분에 인디언 부족 정부는 인디언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도 자체 역량을 확충하고 여타의 부족과 협력하면서 전국적으로 연대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또한 부족 스스로가 우선순위를 매겨서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이 기구의 지원으로 일구어낸 대표적인 성공사례는 나바호 부족의 자체 학교 건설 프로젝트이다. 주류사회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학과목과 더불어 나바호의 전통문화도 함께 가르치는 라프록 시범학교(Rough Rock Demonstration School)가 1966년 설립되었는데 이 학교는 인디언에 의하여 관리되는 최초의 학교가 되었다. 현재는 학교의 이름이 Rough Rock Community School로 바뀌어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약 440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이 학교의 성공으로 자신감을 얻은 나바호족은 뒤에 나바호대학(Navajo Community College, 지금은 Diné College로 불림)까지 설립하였다. 이 기구가 하던 일을 다른 정부 부처로 이관하고 이 기구는 1981년에 업무를 종료하였다.

알카트라스 섬 점거사건 이후 인디언의 주권과 권리회복을 위한 정부의 조치가 계속 이어졌다. 인디언 금융법(Indian Financing Act of 1974)과 인디언 자치 및 교육법(Self-Determination and Education Act of 1975)의 제정으로 인디언담당국(BIA)이나 주 정부를 거치지 않고 인디언 자치기구가 연방정부와 직접 접촉하여 의료와 교육 분야 등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978년에 제정된 ‘인디언아동복지법(Indian Child Welfare Act)’ 에 따라 인디언 어린이의 복지와 보호는 부족의 자체 법원에서 결정하도록 고쳐졌다. 같은 해에 통과된 인디언종교자유법에 따라 피요테의 사용도 합법화되었다. 이 밖에 관련법 제정과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인디언의 주택건설을 지원하는 조치도 만들어졌다.

### 인디언의 경제자립을 위한 몸부림

인디언의 현안 과제 중 가장 큰 문제는 심각한 빈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디언보호구역 내에서는 일자리가 별로 없으므로 실업률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인디언들은 부족 주권의 특수성을 활용하여 카지노 사업을 개발했다. 카지노 산업은 연방 법이 아닌 주 법에 의거 규제를 받는 만큼 인디언은 주 정부의 간섭을 피해서 마음대로 인디언보호구역 안에 카지노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대도시나 관광명소 인근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은 카

지노 사업에서 큰 재미를 보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뉴욕에서 그리 멀지 않은 코네티컷주에 1986년 퍼쿼트 인디언에 의하여 설립된 ‘폭스우드(Foxwood) 카지노’ 이다. 그런데 인디언들이 너무 많이 카지노를 설립하는 바람에 경영여건이 전에 만큼 좋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예로 폭스우드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모히건 인디언은 1996년에 ‘모히건 선(Mohegan Sun)’ 카지노를 또 세웠다.

또 한 가지 자립을 위한 경제기반 확충수단을 관광자원 개발에서 구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는 그랜드 캐년 인근에 살고 있는 나바호족과 후알라파이족(Hualapai)의 경우를 들 수 있다. 필자가 이 지역을 2014년 9월에 두 번째로 방문한 후 이 문제에 관하여 주간신문 보스턴코리아([www.bostonkorea.com](http://www.bostonkorea.com))에 기고한 바 있었는데 해당 부분만 발췌하여 옮기기로 한다.



〈그랜드 캐년의 서쪽에 있는 이글 포인트(Eagle Point)〉

(다음 호에 계속)

##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150 화랑세기花郎世紀, 5세 풍월주風月主 사다함斯多含(2)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5세 사다함185] 은 구리지仇利知의 아들이다. 처음 비랑공比梁公이 벽화후碧花后를 그리워하여, 늘 후후의 뒷간에 갔다. 법흥대왕이 비랑공을 사랑하여 금하지 않았다. 과연 후후와 정을 통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구리зира 했다. 아름답기는 벽화후와 같고, 담력은 비랑공과 같았다. 자라서 낭도의 무사武事를 좋아했다. 금진낭주金珍娘主와 통하여 토함 새달 사다함을 낳았다. 새달은 이화공의 첩이다.

처음에 우리 ... 법흥대제 ... 위화랑 ... 옥진궁주 ... 제후가 ... 이에...구진仇珍을 찾았다. 다시 위화랑과 더불어 좋아하여 ... 금진의 아름다움은 비릇 옥진보다 못했다 ... 옥진은 법흥을 섬겨 아들을 낳았다. 입종立宗과... 곧 ... 숙흥종肅宗이다. 법흥이 죽었는데 입종 또한 죽었다.]

삼국사기의 사다함 가계는 간단하게 내물왕의 7세손이며, 아버지가 금찬을 지낸 구리зира고만 나와 있다. 반면에 화랑세기의 사다함 가계는 아주 상세하다. 그의 아버지는 구리зира이며, 할아버지는 비랑공이다. 비랑공의 아버지는 비지이고, 비지의 아버지는 비태이다. 이 비태가 내물왕의 증손자이다. 사다함의 할아버

지 비랑공은 마복칠성으로 마복칠성의 우두머리 법흥왕의 총애와 신임을 많이 받았다. 사다함의 어머니는 금진낭주이다. 그는 위화랑의 딸이다(어머니는 오도부인이다). 그리고 할머니는 신라에서 가장 아름다웠다는 벽화이다. 사다함의 할아버지 비랑공이 벽화후(소지왕의 후궁)를 연모하여 그녀가 항상 가는 뒷간에 기다리고 있다가 사통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이름이 ‘구리зира’ 이다. 벽화후는 날이 군의 파로의 딸이었는데 소지왕이 국경 변방으로 순행을 나갔다가 만난 후, 그녀의 미모를 잊지 못하여 변복을 하고 여러번 찾아갔다. 결국 소지왕은 벽화를 월성으로 데려왔고, 곧 소지왕은 석연치 않게 죽었다(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벽화는 김원종(법흥왕이 태자시)에게로 갔다. 결국 비랑공과 벽화의 사통은 상당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태어난 아들이 사다함의 아버지인 구리зира인데 이름은 구린내가 나지만 외모의 아름다움은 벽화를 닮았다니 ‘꽃미남’ 임에 틀림이 없고, 용맹한 화랑정신은 아버지 비랑공을 닮아서 화랑도의 귀감이 되었다. 그리고 금진낭주와 통하여 토함, 새달, 사다함을 낳았다. 금진은 1세 풍월주 위화랑(오도부인 사이의)의 딸이고, 새달은 위화랑의 아들인 이화랑의 첩이 되었다.

둘째 절은 탈자가 많아서 해독하기가 어렵는데, 가능한 글자 중에서 많이 나오는 이름들을 통해서나마 그들의 관계를 연결해 볼 수 있다. 등장인물의 면면을 보면 법흥왕, 위화랑, 옥진궁주, 구진, 금진, 입종, 숙흥종 등이다. 먼저 구진仇珍을 보면, 삼국사기 권 44, 거칠부 열전편에 기록되어 있다. “551년(진흥왕12년) 왕이 거칠부와 대각찬 구진, 각찬 비태, 잡찬 탐지, 잡찬 비서, 파진찬 노부, 파진찬 서력부, 대아찬 비차부, 아찬 미진부 등의 여덟장군들에게 명하여 백제와 더불어 고구려를 침공하게 하였다.” 이렇듯 구진은 진흥왕이 ‘화랑도정신’ 을 바탕으로 국토를 확장하던 당시 유명한 장수였다.

다음은 위화랑과 옥진 그리고 금진의 관계를 보면 옥진과 금진은 친자매이며 위화랑(오도부인이 어머니이다)의 딸들이다. 모두 법흥왕의 후궁이었으며, 옥진의 첫남편은 박영실이다. 금진은 구리зира와의 사이에서 토함과 사다함 그리고 딸 새달을 낳았다. 또한 입종은 법흥왕의 동생이며, 법흥왕의 딸 지소와 혼인하여 진흥왕(김삼맥종)과 김숙흥종(금진낭주의 아들?)을 낳았다. 원문의 옥진이 법흥왕을 섬겨 낳은 아들은 비태공이며 그의 딸 개원궁주가 개에게 물려 죽은 동륜태자(진흥왕의 아들

)의 정처였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는 입종이 법흥보다 늦게 죽은것으로 보이는데, 법흥왕이 죽기 전에 딸인 지소에게 박영실을 계부로 맞으라고 명한 것 등으로 볼 때 입종이 먼저 죽은 것이 확실하다.

185) 斯多含, 산스크리트어 Sakridagami(한 번 돌아오는 사람)를 한역한 단어인데, 다음 생애 한 번 더 환생하면 다다음 생애에서 아라한이 될 수 있다는 경지를 말한다. 열 가지 번뇌 중에서 앞의 세 가지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다음 두 가지에는 얽매임이 덜해질 정도가 되면 사다함으로 인정된다(아라한이란 불교가 초기에 성립될 당시 힌두교 전승에서 ‘완벽한 성품을 가진 깨달은 사람’ 을 뜻하는 말이었다고 하며, 어찌보면 부처와 같은 경지의 사람이지만 그 보다는 한 단계 낮은 의미로 전한다. 여래10호, 부파불교, 대승불교 등에서 상당히 더 전문적인 심오한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삼국사절요,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신라속의 사랑 사랑속의 신라(김덕원과 신라사학회, 경인문화사)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상담 및 문의 **보스톤코리아** 617-955-9112



### 검진과 시술을 한 곳에서~

## 양지병원

세종특별자치시와 함께 선진종합병원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H+ 일지병원원 350명실 학총과 함께 최첨단 의료진비 구비와 우수전문의 내복 보강으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입원 종합검진

남: 65만원 / 여: 75만원

| 출제빈도              | 출제 영역     | 대응 영역     |
|-------------------|-----------|-----------|
| 1. 1차 1차 (1차 1차)  | 1. 출제 빈도  | 1. 출제 빈도  |
| 2. 1차 1차 (1차 1차)  | 2. 출제 빈도  | 2. 출제 빈도  |
| 3. 1차 1차 (1차 1차)  | 3. 출제 빈도  | 3. 출제 빈도  |
| 4. 1차 1차 (1차 1차)  | 4. 출제 빈도  | 4. 출제 빈도  |
| 5. 1차 1차 (1차 1차)  | 5. 출제 빈도  | 5. 출제 빈도  |
| 6. 1차 1차 (1차 1차)  | 6. 출제 빈도  | 6. 출제 빈도  |
| 7. 1차 1차 (1차 1차)  | 7. 출제 빈도  | 7. 출제 빈도  |
| 8. 1차 1차 (1차 1차)  | 8. 출제 빈도  | 8. 출제 빈도  |
| 9. 1차 1차 (1차 1차)  | 9. 출제 빈도  | 9. 출제 빈도  |
| 10. 1차 1차 (1차 1차) | 10. 출제 빈도 | 10. 출제 빈도 |
| 11. 1차 1차 (1차 1차) | 11. 출제 빈도 | 11. 출제 빈도 |

**VIP 입원 종합검진**

남: 215만원 / 여: 225만원

| VIP 초청장인 기본포함                   | 남성 포함         | 여성 포함         |
|---------------------------------|---------------|---------------|
| 1. 기본 식사 1인분씩 제공 (비건도 가능)       | 1. 뷔페식        | 1. 뷔페식        |
| 2. 사진 촬영 2인분씩 제공                | 2. 기념품        | 2. 기념품        |
| 3. 현미 식사 1인분씩 제공                | 3. 라면세트 1인    | 3. 라면세트 1인    |
| 4. 음료수 2인분 (커피, 차, 과일, 간식, 디저트) | 4. 음료수 2인분    | 4. 음료수 2인분    |
| 5. 주차비 2인분 (주차 1인, 버스, 노숙인 주차)  | 5. 주차비 2인분    | 5. 주차비 2인분    |
| 6. 화장실 10분                      | 6. 화장실 10분    | 6. 화장실 10분    |
| 7. 객실 1인                        | 7. 객실 1인      | 7. 객실 1인      |
| 8. 부엌 식사 2인분 (부엌, 주방, 주방수업)     | 8. 부엌 식사 2인분  | 8. 부엌 식사 2인분  |
| 9. 4인분 식사 (2인, 2인, 2인, 2인)      | 9. 4인분 식사     | 9. 4인분 식사     |
| 10. 뷔페 세트 2인분 (2인, 2인, 2인, 2인)  | 10. 뷔페 세트 2인분 | 10. 뷔페 세트 2인분 |
| 11. 뷔페 세트 2인분 (2인, 2인, 2인, 2인)  | 11. 뷔페 세트 2인분 | 11. 뷔페 세트 2인분 |

**당일 종합검진**

~~55만원~~    ~~65만원~~  
남: 50만원 / 여: 60만원

| 발행 유형                              | 매체 유형                                        |
|------------------------------------|----------------------------------------------|
| 1. 동부 (해)의 2. 전민적 조판국<br>3. 신민적 조판 | 1. 신민적 조판국 2. 전민적 조판국<br>3. 신민적 조판 4. 신민적 조판 |

## VVIP 입원 종합검진

VIP 종합결전 기본형목 & 추가형목 (FET CT)  
 보나피에티 < 보디카 > < 보루 >  
 \*모시어면 심층분석, 조교한선언제

남: 350만원 / 여: 370만원

VVIP, VIP 등급업친 고객 : 확업서비스 제공

① 인건비용 절감 : 인건비용도 1시간 요강 5시간당에서 3시간  
 ② 인건비용의 부담 : 세무자의 내외 상·하계산 부담 가능  
 ③ 조, 회, 공·회 직원 관리 용이함

★ 검사시간 및 혜택

- 일반 공개공연: 8:30am~12:30pm (목요일)
- 일반 특별공연: 3pm~입장구분해 1pm(1회/2일)  
17시~19시(목요일, 토요일)
- VIP 특별공연: 3pm~입장구분해 1pm(1회/2일)  
17시~19시(목요일, 토요일) / 공연장외
- VVIP 특별공연: 3pm~입장구분해 1pm(2회/2일)  
17시~19시(목요일, 토요일) / 공연장외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

**중앙대학교병원**

- 전광감시비율 1:1 사전 알람 송신
- 1:1 액세스 / 1회용 전자책 시스템
- 해킹방지용 봉인식 신원확인 - 조조주
- 음성엔진 내에선 모든 검사 사항
- 원격제어 내기권 당일 통시전자 시청
- 최적화된 영상 전송의 구조와 기술 및 패턴

## 기본검진 프로그램

후원 기탁년기일 특별할인 : 12월 31일(토)까지

[illegible]

## 정밀검진 프로그램

**▶ 영상**

**▶ 신개념유형 영상종류**

1. **초화가형형**: 50대형 / 안경형 + 10대 / 30대형 / 노후가형형 100만원 → 80만원
2. **심장형형**: 50대형 / 10대형 + 신개념유형 / 신개념유형 / 신개념유형 100만원 → 90만원
3. **복합형**: 50대형 / 10대형 + 신개념유형 / 신개념유형 / 신개념유형 150만원 → 135만원

**▶ 영상종류**

1. **영상형**: 50대형 / 10대형 / 신개념유형 / 신개념유형 / 신개념유형 / 신개념유형 / 신개념유형 200만원 → 180만원
2. **신개념유형형**: 신개념유형 / 신개념유형 / 신개념유형 / 신개념유형 / 신개념유형 / 신개념유형 / 신개념유형 300만원 → 270만원

## 숙박(다이아몬드)점진 프로그램

● 후원 기탁기간 : 12월 31일(토)까지

[illegible]

신청 244,771명 / 마감일 : 12월 31일(토)까지

[illegible]

김수남

\* 무료 전화(Call for Free) \*  
**1-844-DO HURAM (1-844-364-8726)**  
 카키오독 :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m@hura.com.kr / www.huramkorea.com

미국내 상담문의  
보스톤코리아  
Tel. 817-955-9112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 蚊 (문)

율법의 더 중요한 바 의(義)와 인(仁)과 신(信)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악대는 삼키는도다.

You have neglected the more important matters of the law—justice, mercy and faithfulness.

You should have practiced the latter, without neglecting the former. You blind guides! You strain out a gnat but swallow a camel. - 마태복음 23:23-24.

이병호 국정원장은 10월 19일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전력난(電力難)이 아주 심각하다 밝혔는데 TV조선의 보도는 더 심각하다는 실상이란다.

지난 해 10월 26일 북한당국은 전기를 흥청 망청 쓰다 걸리면 사형 당할 거라고 주민들에게 엄포를 내렸단다. 비생산부문 전력 공급은 끊었다.

11월에는 탄광채석 작업이 중단되었고 별목까지 금지 돼 주민들은 난방조차 없이 겨울을 나아한다.

“추위 죽을 지경이오. 땀 걱정, 전기 걱정, 물 걱정, 먹을 걱정까지 걱정 안 할 일이 없으니” 지난 1월 5차 핵실험 이후 대외 교역이 타격을 받으면서 물, 전기, 물자 부족 사태는 더욱 심해지는 상황이다.

이병호 국정원장의 북한 전력난 보고에 이어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수도, 전기가 끊기자 주민들이 시 당 위원회의 물려가 물, 전기를 달라며 집단 항의하는 사례” 에다 굶주린 군인들의 탈공장에서 강냉이를 훔치다 경비원에게 맞아 죽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지난 2월 북한 접경지역 군인은 “어쨌든 우리는 이제 돈이 제일이라는 것밖에는 생각하는 게 없습니다.”

핵(核)실험 두 달 뒤부터는 중국이 물자 지원을 끊을 거라는 소문이 돌아 장마당에서 사재기 열풍이 일어났고, 결국 검찰소와 경제 감찰과가 나서 사재기 물품을 몰수 조치했단다.

“전기를 함부로 쓴다” 해서 사형 시키는 나라는 아직 없다. 북한의 전력 용수 난에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픈 반응을 보인다. 북한주민이 생활이 개, 돼지에 못 미친다는 사실에 가슴 졸이며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 남북통일이 이루어져 잘사는 나라가 되기를 기원하는 여론이 인터넷을 달군다.

또한 ① 김일성 김정일 부자(父子)의 동상에는 밤새도록 전기 켜놓고 인민들의 생활에 전기 쓰면 사형? ② 북한 인민 몇 사람이 남을고? 또는 ③ 문재인씨 북한 전기, 물이 필요하단데 한 말씀.....

③ 부문의 인터넷 여론 반응이 100건을 넘어서는 관심들이 쏟아졌다.

“문재인 전 대표 국민 우습게 보지 말라”는 여론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송민순 회고록” 파문과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그 질문은 안 하기로 했지요?” 라며 대답을 피했다.

2007년 노무현 정부가 “북한 김정일 정권에 의견을 물어본 다음 유엔(UN) 북한인권 결의안에 기권했다” 는 송민순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내용과 관련해 그간 문 전 대표가 직접 내놓은 대답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가 유일했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등 당시 청와대 회의 참석자들은 자신들의 기억을 바탕으로 일제히 “회고록이 틀렸다” 고 주장했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文) 전 대표만이 유독 며칠에 걸쳐 벌어진 그 때 일을 기억 못한다고 하는것에 고개를 끄덕일 국민이 몇 사람일지 의문이다.

문 전 대표가 정치인이자라면 이 문제의 과장이 이렇게 커질 이유가 없을 텐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기에 국민은 ‘북한에 물어본 것이 사실인지 궁금한 것이다.

문 전 대표는 유권자들의 이 궁금증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나, 문 전 대표는 북에 물어봤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 그 이유를 당당하게 설명해야 옳다.

문 전 대표는 그러는 대신에 “여권이 최순실, 우병우 문제를 남북문제로 덮으려 한다”

고 했다.

문 전 대표가 걱정 안 해도 박근혜 정부의 의혹은 남는다.

국민이 두 눈 뜨고 지켜보고 있어서다.

문 전 대표는 남 얘기하기 전에 자신에 대한 의혹부터 대답해야 한다.

야권 일각에서조차 문 전 대표를 향해 “비겁하다” 는 지적을 들어야 한다.

문 전 대표가 이 중요한 문제를 피하고 도망다니면 다닐수록 그의 대북안보관에 대한 의심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도 그는 ‘기억력 부족’ 을 핑계로 이번 파문을 해쳐 나가겠다고 마음먹은 것 같다. 아마도 이렇게 시간만 보내면 당선 될 수 있을까?

해서 언론엔 “이제 그만 문제 삼지 말라”

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그러나 그 행태가 문 전 대표가 싫어한다는 이 정권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문 전 대표는 “당시 정황을 보면 내가 기권 의견을 내야 할 것 같은데 당시 참석자들은 초기에 내가 찬성이었다고 하니...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 고 말하며 직접 해명에는 소극적이라.

문 전 대표의 이런 태도에 대해 여권에서는 “결정적 반박 증거가 나오는 것이 두려워 ‘기억이 안 난다’ 고 한다” 며 비판하고 있지만, 문 전 대표 측은 여전히 “(문 전 대표가) 사안의 전면에 나설 일은 없다” 며 무대응 기조를 유지한다.

蚊 문 : 모기 문. 벌레(虫 : 충)가 글(文 문)을 한다는 아이러니가 표시된 글자다.

“虫 : 벌레 충” 은 口:人所以言食 - 인소이 언식 - 사람의 입은 ‘말도 하고 음식도 먹는 기능’ 이 “口: 입 구” 와 “厶: 我也 나 사” 다. 사람의 입(口)이 말하고 먹는 ‘두 기능’

이 마치 버리지와 같다는 뜻.

“文 : 法也 법 아” 해서 법문이다. 이 文자는 ① ㄱ : 義闕 의결 -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활하시는 대결(大關) 즉 “하나님 부자(父子)께서 생활하시는 거처를 뜻한다.

해서 말을 줄이면 “하나님 식구(文가) 버리지(虫)처럼 생활 한다” 는 뜻으로 “모기 문(蚊)” 으로 비유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을 사도 바울(The Apostle Paul)이 이 같이 전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 And being found in appearance as a man, he humbled himself by becoming obedient to death-- even death on a cross! - 빌립보서 2:8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主)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 And every tongue acknowledge that Jesus Christ is Lord, to the glory of God the Father. - 빌립보서 2:11

모기(蚊)에 고리를 건 문(文)재인 대통령 후보는 가톨릭(천주교) 신자여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겸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지켜볼 수밖에.....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보스톤코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무제한 시청 월:

**\$39.99**

이동 고객 특별 할인

타 방송사에서 티보 플레이로 갈아 타는 분에 한해 월 \$30로 특별 우대해 드립니다

KBS, MBC, SBS, SBS Plus, tvN, XTV, Mnet, O'live, OCN

The Best OnDemand, TBO

##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 장소 : 뉴릴라이어블 마켓

45 Union Sq. Somerville, MA 02143 TEL. 617-623-9620

행사 기간 : 11월4일(금)~11월6일(일), 3일장

행사 문의 : 617.623.9620

| 젓갈류                                                           | 반찬류                                                                 | 나물류                                            | 멸치류                                                                       | 떡종류                    |
|---------------------------------------------------------------|---------------------------------------------------------------------|------------------------------------------------|---------------------------------------------------------------------------|------------------------|
| 명란젓, 청란젓, 조개젓, 어리굴젓, 가지미 식혜, 낙지젓, 갈치숙젓, 멍게젓, 오징어젓, 황태회무침      | 무말랭이, 고들빼기, 도라지 무침, 더덕무침, 매실장아치, 양념깻잎, 양념고추, 된장깻잎, 된장고추, 마늘쫑, 방게무침등 | 취나물, 곤드레, 부지깽이, 건도라지, 토란대, 표고버섯, 무청시래기, 무말랭이 등 | 다시멸치, 볶음멸치, 지리멸치, 멸치국물용 가루                                                | 숙떡, 안흥찐빵, 모시잎송편, 모시잎개떡 |
| 건어물                                                           | 해초류                                                                 | 생선류                                            | 기타                                                                        |                        |
| 황태포, 황태채, 북어채, 황태머리, 흥진미채, 마른오징어, 건새우, 노가리등, 가문어, 디포리, 반건조오징어 | 참미역, 미역귀, 돌자반 김, 김밥용 김, 즉석구이 등, 말린 톳                                | 삭힌 홍어회, 굴비, 알배기 도루묵                            |                                                                           |                        |
| 건강식품                                                          | 장류                                                                  | 잡곡                                             |                                                                           |                        |
| 삼계탕용 재료, 매실원액                                                 | 고추장, 된장, 막장, 고로쇠 국간장, 청국장, 다시마 국간장, 고추가루                            | 메밀부침가루, 메밀국수, 은행마죽, 버섯더덕마죽, 들깨가루, 엿기름, 엿       | 찹쌀약과,<br>100% 표고버섯가루<br>100% 다시마가루<br>100% 도라지가루<br>감자옹심이, 감자전, 쑥유과, 대봉곶감 |                        |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352)

### “믿는 도끼에 말 등 찍힌다”

웰스파고(Wells Fargo)는 미국에서 제일 큰 은행입니다. 역사도 160년 이상이며 직원 수도 260,000명이나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대기업임이 틀림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은행'입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은행'이 한 마디로 대형 사기를 쳤습니다. 고객의 허락 없이 새로운 계좌를 만들고 신용카드 등을 만든 숫자가 무려 2,000,000입니다. 이런 잘못으로 해고된 직원 수가 5,000명이 넘습니다 (5,300 Wells Fargo employees fired over 2 million phony accounts, CNNMoney, September 8, 2016). 해고된 직원은 특이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객들에게 미소와 친절을 베풀며 고객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직원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5,000명 이상이나 법에 어긋난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개인적인 욕심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이유는 회사에서 설정한 제도 때문입니다. 회사가 설정한 목표를 직원에게

강요합니다.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회사에서 진급, 봉급, 보너스 등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불법인지는 알지만 다른 선택이 없기에 이런 큰 잘못을 한 것입니다 (Workers tells Wells Fargo horror stories, CNNMoney, September 8, 2016).

새로운 어카운트가 나도 모르게 만들어졌지만, 나에게 발생한 피해 자금은 작은 액수이므로 무시해 버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평생 모은 은퇴자산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웰스파고에 직원들을 위한 은퇴플랜(401k)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회사에서 제공한 은퇴플랜 투자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Excessive 401(k) fees, WellsFargo, November 2015). 회사가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은퇴플랜을 제공한다고 하면서 직원들의 은퇴 투자 돈에서 이익(Revenue Sharing)을 취한 것입니다. 결국, 회사는 직원들과 170만 불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웰스파고에 일반 투자자를 도와준다는

재정설계사가 15,000명이 넘습니다. 회사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과도한 목표(Sales Target)를 설정하고 직원들에게 목표를 채우라고 독려합니다. 하기가 재정설계사 본인도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몸담은 회사에도 돈을 벌여줘야 하기가 최선을 다합니다. 문제는 고객의 자산을 본인들이 싫어서 소송한 투자종목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투자자는 재정설계사가 미국에서 많이 알려진 대형 금융회사에서 일한다고 하면 무조건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미국에는 웰스파고, 제이피몰건, 메릴린치, 등과 같은 대형 투자회사가 있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투자자문회사가 있습니다. 필자의 회사처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모든 투자회사가 대형 투자회사들보다 2015년 시점으로 규모가 더 커지고 있다는 통계(Brokers Set to Turn Free Agents, WSJ, January 9, 2016)입니다.

웰스파고와 같은 대형 금융회사에서 재정설계사들이 빠져나와 독립적인 투자회

사를 설립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대형 금융회사에서는 고객의 이익보다는 회사를 우선해서 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기업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재정설계사 대부분은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법적인 요구(Fiduciary Duty)가 없습니다.

웰스파고 최고 경영진은 이 모든 것이 직원들의 잘못이고 자기네 책임은 전혀 없다고 말하며 오히려 보너스로 \$124 million을 받아갑니다 (\$124 million payday for Wells Fargo exec who led fake accounts unit, CNNMoney, September 12, 2016).

일반 투자자는 금융회사가 나를 위해서 100% 일할 것이라 막연히 믿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금융산업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이 알려진 대형 재정설계 회사라고 무조건 믿는 것은 위험합니다. 모든 금융회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입니다. 투자 비용을 시작으로 모든 것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해한 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생 일하며 모은 소중한 돈입니다.

#### Michael Lee

National Independent Agencies, Insurance Broker

- Licensed in Health, Life, Series 6, Series 63, Property & Casualty

Norcom Mortgage, Mortgage Originator

- Residential Mortgage Loan 전문

mlee.insurance@gmail.com, mike.lee@norcom-usa.com

## Health Insurance 1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한국과 비교 시 다른 점이 참 많습니다. 모두가 가입해야 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되고 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경우가 제한적이기도 하며 직장에서 커버를 해주거나 개인적으로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Carrier와 Plan도 참 가지각색이며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할 때, 필요할 때 가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매사추세츠에서는 2006년부터 Romney Care로 현재와 비슷한 법으로 의료보험을 장려했지만 2010년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흔히 Obama Care 또는 Affordable Care Act라고 알려진 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금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모든 의료보험 플랜이 매년 한 번의 정기검진을 별도의 부담금 없이 제공하도록 바뀌었고 무료보험 가입 대상자가 어린이, 임산부, 실업자 등까지 폭이 넓어진 부분입니다. 복잡하기도 한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를 조금이나마 이해가 수월하도록 종류와 특성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조금/장려금을 받고 가입할 수 있는 Masshealth(Medicaid)와 ConnectorCare Plan이 있습니다. 이 두 가

지 경우는 가족 수에 따라 Federal Poverty Level을 기준으로 충분하지 않은 수입이 인정되는 등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주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Masshealth는 premium의 100%를 지원해주고 ConnectorCare Plan은 부분적으로 지원합니다. 이 두 가지는 인정되는 상황일 경우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프로그램이지만 정부에서 보조금만 지원할 뿐 의료보험 서비스는 외부에 위탁하기에 주치의가 이 특정 plan을 받지 않는 이상 coverage 관련 불리하거나 불이익을 당할 경우 수는 적습니다. 가족 구성원 수나 상황에 따라 인정되는 수입 등이 다르기에 mass.gov에서 확인을 하거나 mahealthconnector.com에 신청하며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신청서 작성 시 모든 부분을 정확히 기재하셔야 하며 신청 시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즉시 승인이 가능하지만 몇 달이 걸리는 심사 기간 중 필요한 서류를 필요로 하거나 거짓으로 드러나면 혜택을 받은 지난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외 일반가입자들은 두 가지의

기간을 두고 사설업체를 통해 가입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Open Enrollment(2016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그리고 Special Enrollment입니다. Open Enrollment은 누구든지 의료보험을 들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Health Connector Marketplace를 통하거나 Insurance Broker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carrier, plan, premium이 다양하므로 잘 맞는 플랜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친숙한 name brand의 회사라고 더 좋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믿을 수 없는 회사는 아닙니다. 매사추세츠 내 의료보험사들은 Blue Cross Blue Shield, Fallon, Harvard Pilgrim, Health New England, Minuteman, Neighborhood, Tufts, Network, Assurance로 모두 믿을 수 있는 회사들이며 예를 들어 Neighborhood는 Partners HealthCare 및 Mass General과 함께 연관되어있고, Network은 Tufts와 관련이 있는 등 회사 이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이 들어봤을 법한 Blue Cross Blue Shield 같은 경우 이름을 덜미로 같은 커버리지를 훨씬 비싸게 책정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보험회사와

보험료는 가입자의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기에 주치의가 특정 회사나 plan을 받지 않는지 알아보신 후 가능한 옵션들을 비교하시기를 권장합니다.

Open Enrollment 기간 이외에 Special Enrollment 기간을 통해서도 의료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개인적 life event를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만 25세가 넘어 부모님 의료보험에 함께 할 수 없는 경우, 새로운 주로 이주하는 경우,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 결혼, 임신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비지니스의 경우는 특정 기간에 관련 없이 가입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브로커와 상담을 하셔서 준비상황을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특히 스몰비즈니스 개인사업자일 경우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 있지만, 사업체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기에 두 가지의 옵션이 있을 수 있다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다음 이슈에는 의료보험 커버리지 관련 본인에게 맞는 플랜을 선택하는 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Olive** Since 2008  
2008년부터 전문적인 광고홍보영상 서비스를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홍보영상에 우리 특성을

한국어편의 한국방송 및 화상영화  
내 용대로 골라보는 합법 IPTV **TBO**  
티보플레이

합법 한국방송 티보플레이에서  
명품 교양채널 **MBN**을  
**실시간으로 만난다**  
이제 **MBN**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티보에서 시청하세요



김주하앵커의  
**MBN 뉴스8**  
진심을 담아 진실을 전하는 뉴스



# MBN 런칭 기념 가입할인 혜택!

• 신규가입 고객 ~~\$39.99/월~~ → **\$29.99/월**

• 케이블 TV에서 티보플레이로  
전환하시는 분께 드리는 혜택!

**\$29.99/월** + 1달 추가 무료 이용  
+ 1년간 유료영화, 성인영화 무료

\*케이블 전환 고객님은 전달요금 빌링지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TBO** PLAY  
티보플레이

KBS MBC SBS tvN OCN JTBC MBN Olive Xtv

## 티보플레이 지역별 가입안내

서울 02-253-835-1004 대구 054-257-2525 광주 061-819-3115-4182 LA 213-999-7090  
부산 051-942-901-4112 울산 052-247-9111 인천 032-220-445-1535 경기도 031-209-768-1743  
이천 031-879-684-0514 오하이오 216-230-7773 버지니아 703-942-6822  
보스턴 617-955-9112 NY 917-855-9555 New York, New Jersey 917-488-1072  
트렌트 905-832-3333 밴쿠버 604-420-1088

상당할 가입문의 무료전화

**617-955-9112**

LA 가입문의 213-999-7090  
본사주소 3435 Wilshire Blvd #2915, LA, CA 90010

## 앤젤라 엄



## 앤젤라 엄 (Angela Suh Um)

보스턴 아카데미 컨설팅 그룹(Boston Academic Consulting Group) 대표

앤젤라 엄은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본사가 있는 보스턴 아카데미 컨설팅 그룹(Boston Academic Consulting Group, Inc.)의 창립자이자 수석 컨설턴트입니다. 앤젤라 엄은 하버드 학부를 졸업하고 하버드 케네디스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하버드와 MIT에서 수석 입학사정관(Senior Admissions Officer)을 역임하였습니다. 보스턴 아카데미는 12학년 학생들의 대학 지원과 6학년에서 11학년 학생들의 교육 가이드 및 카운슬링을 전문으로 하는 유수의 교육 컨설팅 회사입니다. 상세 정보 Tel: (617) 497-7700, Email: info@bostonacademic.com 을 통해 문의하시거나 Homepage: www.BostonAcademic.com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No portion of this article shall be published, re-produced, or otherwise used in any form without the express written consent of the author.

## 최고 명문 대학 입학 전략

## “대학 진학을 위한 GPS : 컬럼비아와 프린스턴”

지난 여러 차례의 글을 통해서 미국의 "아이비 플러스"(Ivy-Plus) 10개 명문 대학(전통의 8개 아이비리그 대학 + 스탠퍼드, MIT) 중 몇 개 대학의 최신 입학 현황을 살펴 보았다. 이 시리즈를 마치면서 컬럼비아와 프린스턴의 현황을 분석해 보고, 마지막으로 미래의 대학 지원자들을 위한 전략과 제안을 몇 가지 하려고 한다.

**컬럼비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은 컬럼비아 대학이 지난 여러 해 동안 프린스턴이나 MIT, 혹은 브라운보다 더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이었다는 점이다. 컬럼비아는 아이비리그에서 규모가 작은 대학 가운데 하나로서 입학 정원이 1,400명을 조금 넘는 정도이다. 올해 컬럼비아에는 만기지 않을 정도로 많은 36,292명이 지원하여 역대 기록을 경신하였다. 지난 2010년 컬럼비아의 지원자 수가 26,178명이었는데, 불과 6년 만에 지원자가 만 명이 넘게 증가하였다. 미국의 고등학교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컬럼비아 지원자 숫자가 이토록 증가한 것은, 이 학교의 인기와 더불어 해외, 특히 아시아로부터의 지원자 증가, 그리고 고교 졸업생들이 경쟁적으로 한 사람당 너무 많은 대학을 지원하는 경향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필자는 학생들이 많아

야 8-10개 대학 정도에 지원할 것을 권한다.

뉴욕시의 심장부에 자리 잡은 컬럼비아 대학은 굉장히 인기가 높은 아이비리그 대학이다. 올해 전체 지원자 가운데 6%인 2,193명만이 신입생으로 합격할 수 있었다. 이들 신입생 중 일부는 전통적 교양 과목을 가르치는 컬럼비아 칼리지(Columbia College)로 진학하고, 다른 일부는 후 공대(Fu School of Engineering and Applied Science)에서 공학을 전공하게 된다. 컬럼비아는 "얼리 디시전"(Early Decision) 제도를 채택한 학교로서 신입생의 약 45% 정도가 조기지원을 통해서 충원된다! 컬럼비아 같은 대학들은 이처럼 조기지원을 통해 입학 정원의 상당 부분을 충원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어떤 대학에 조기지원 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며, 만약 컬럼비아가 학생이 원하는 첫 번째 대학이라면 이 제도를 잘 이용해야 할 것이다.

**프린스턴:** 프린스턴의 경우에도 이 대학 역사가 오래가 입학 경쟁이 가장 치열한 해였다. 기록적인 29,303명의 지원자 가운데 단지 1,894명만이 합격함으로써, 6.46%라는 역대 가장 낮은 합격률을 기록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랄 만한 사실 하나: 지원자 중에서 12,000명이 넘는 학생이 학점(GPA) 4.0이라는 만점을 받았다.

이것은 심지어 학점 만점의 학생들만 따져도 이들 중에서 2천명 이하로 합격생을 고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사정은 미국 내 상위 20개 대학 대부분에 해당된다. 지원자 가운데 고교 수석졸업자들의 수가 대학의 입학 정원보다 더 많다. 이것은 고등학교 성적만이 명문 대학 진학의 전부가 아니라는 엄연한 사실을 모든 학생들에게 깨우쳐 준다.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단순한 성적 이상의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한다. 과외활동, 국제 경험 등 독특한 체험, 선생님과의 관계, 인터뷰 그리고 전반적인 인격 등을 깊이 있게 살펴 본다.

프린스턴은 1,237명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대기자명단(Waitlist)을 발표하였다. 문제는 최근에 대기자명단에서 실제로 합격한 학생이 드물다는 사실인데, 어떤 해에는 한 명도 없었다. 프린스턴은 인종 구성이 다양한 학교 중 하나인데, 합격생 중에서 50% 이상이 자신을 유색인종이라고 밝혔다. 프린스턴은 또한 국내와 국제 학생 모두에 대해 "니드 블라인드(Need-Blind)" 정책을 적용하는 대학인데, 입학 사정시 학생의 재정 형편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학생의 장학금 신청 여부가 합격을 결정할 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와는 반대로 많은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브

라운, 펜, 컬럼비아 등) 이 니드 블라인드 정책이 국내 학생들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을 공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장학금을 신청하는 국제 학생들은 크게 불리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프린스턴에 매우 뛰어난 국제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몰리고 있으며, 올해 합격생 가운데 11% 이상이 전 세계 66개국 출신들이다.

올해의 대입 사정 결과와 수치들을 대충만 살펴봐도 미국 내 명문 대학에 입학하려는 고교 졸업생들의 경쟁이 갈수록 더욱 치열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대학들은 공통점도 많지만, 각 대학마다 심사 제도와 방향이 독특하고 다르다. 더구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원자 상황에 최선으로 대처하기 위해 각 대학의 입학 정책은 매우 유동적이고 해마다 변한다. 이렇게 때문에 변화에 맞춰 올바른 대학 지원 결정을 해야 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더욱 더 혼란스럽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자신이 지원하려는 대학과 관련된 최신의 입학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그것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자가 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여 자신에게 최적화된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화시키는 것이다.

## Song Law Firm의 법률칼럼 법정에서 강하고, 고객에게 편안한 "Song Law Firm"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대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 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보스턴 사무실 전화: 617-489-1327

## 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지적재산법]

## 내가 만든 특제 불고기 소스, 특허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최근 마리텔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김구라씨가 국제라면특허 지닌 "라면장인"을 초대하여 라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라면장인"은 자신이 개발한 라면 육수를 한국 등에서는 특허 신청을 했지만 미국에서는 특허 신청에서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맛있다고 하는 내 요리법을 과연 미국 특허를 등록해 놓으면 어떨까?", "미국에서도 불고기가 인기인데...내 특제 불고기 소스를 특허를 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요리를 조금이라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흔히 가질 수 있는 생각일 것입니다. 과연 요리법은 미국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특허를 줄 수 있는 대상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법에서 특허는 "새롭고 유용한 절차, 기계, 생산물 혹은 사물의 결합 형태 혹은 그것의 새로운 혹은 향상된 상태("new and useful process, machine, manufacture, or composition of matter, or any new and useful improvement thereof")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5 U.S.C. 101). 또한, 발명

품이 Novel(새로운/진기한), Non-Obvious(뻔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35 U.S.C. 102 & 35 U.S.C. 103).

그렇다면 조리법이 위의 정의에 해당되는 대상일까요? 조리법은 흔히 들어가는 재료, 재료들을 어떻게 섞고 요리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료는 구성물로 볼 수 있고 요리하는 방법은 절차로 볼 수 있으니 특허를 낼 수 있는 대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리법이 "Novel(새로운/진기한)"한지 "Non-Obvious(뻔하지 않은)"한지에 대한 판단에서 난관에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음식들이 늘 있어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직화를 이용하여 고기를 구워먹고 얼마 안 되었을 때부터 소금을 뿌리거나 양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불고기의 고대 형태는 맥적이라는 간장에 절인 고기 종류로 신라시대 귀중한 손님이 오면 제공하는 요리였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간장이 아니더라도 각종 소스를 이용하여 밑간을 하는 요리법이 흔하고 간장을 이용하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비슷한 조리법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새롭다/진기하다"라고 하

기에는 너무 흔합니다. 저희 집 불고기가 옆 집 불고기와 차별성 있게 엄청나게 맛있다고 해도 그게 "novel"한 수준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맛있게 하기 위한 비법으로 설탕의 양을 늘린 다든지, 건강을 위해 설탕 대신 매실청을 쓴다고 해도 결과는 "뻔한 맛"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요리법이 절대 특허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재료를 결합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요리를 했는데 결과물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이라면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식품에 대한 특허 출원이 분명 있습니다. 단, 현대 사회에서는 그러한 음식은 보통 부엌에서 만들어지기 보다는 실험실이나 식품기업의 연구소에서 나옵니다.

그렇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요리법 자체에 대한 특허를 할 수 없더라도 영업비밀(Trade Secrets)으로 다루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꽤 많은 식품회사들이 이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가장 유명한 예로 코카콜라의 콜라 제조법, KFC의 양념 비율, 그리고 Bush's Baked Beans의 요리법 등

을 들 수 있습니다. 콜라 발명가는 콜라 제조법을 공개하지 않고 직원들에게도 훔치 않게 되더라도 공개할 수 없다는 각서에 서명을 받고 일을 하도록 합니다. 또한, 코카콜라라는 상표권을 등록하여 영업권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영업비밀로 다룬다 하더라도 특허처럼 완벽한 보호를 주지는 않기 때문에 만약 어떤 사람이 혼자 고민하여 콜라와 비슷한 것을 만들어 낸다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펩시가 생기고 콜라와 비슷한 음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또한, 특허는 연방법으로 보호하지만 영업비밀(Trade Secrets)은 주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에 따라 더 강하게 혹은 약하게 적용이 됩니다.

마리텔에 나왔던 라면장인을 만날 수 있다면 우선 조리법은 영업비밀(Trade Secrets)으로 유지하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비공개 원칙서약서(Non-Disclosure Agreement)를 작성하여 같이 일하는 분들에게 서명을 받은 후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를 등록하여 판매를 시작하시기를 권해드리고자 합니다.

# SONGLAWFIRM

고객이 **신뢰**하는 법률 브랜드  
**송동호 종합로펌**

[songlawfirm.com](http://songlawfirm.com)



송동호 대표 변호사

법률업은 일반 비즈니스와 달리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변호사의 판단 하나는 고객 케이스에 신의 한수가 되기도 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의 변호사들은 신중함의 중요성을 늘 생각합니다.  
고객 여러분이 저희의 신중함을 발견하고 신뢰하게 되기를,  
케이스 하나 하나에 장인 정신으로 다가갑니다.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법률 브랜드, **송동호 종합로펌**은  
오늘도 고객의 케이스를 신중하게 고민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뉴저지지사 소속 변호사 및 Summer Associates

## 기업 고객

국제법  
금융법  
노동 및 고용법  
보험회사 관련 소송  
부동산  
상업 및 M&A  
소송  
이민법  
임대인, 임차인 관계법  
지식 재산법  
프랜차이즈법

## 개인 고객

가정법  
노동 및 고용법  
부동산  
사고 상해  
성법  
세금, 상속, 유언  
소송  
이민법  
임대인, 임차인 관계법  
지식 재산법  
다국, 자국 법원 관련 업무  
파산  
형법

T | 617.489.1327 MA@SONGLAWFIRM.COM

MA OFFICE 125 Cambridge Park Drive,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songlawfirm1  
 songlawfirm LLC  
 songlawfirm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20% 현금, 영주권, 크레딧 700+  
상가건물,콘도,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제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런드로맷(Laundromat) 창고  
주유소,식당,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제  
합성 리스텔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 북서쪽 투자상가건물 11유닛, 연수입 \$110,000

워터아운/월담 드롭오프 연매상 \$150,000 좋은 렌트

보스톤 남쪽 컨비니언스 + 로터리, 연매상 \$900,000 + 로터리 커미션(\$70,000)

체스넛힐 드롭오프, 연매상 \$250,000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4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다운타운 보스톤 컨비니언스 + 델리, 연매상 \$650,000  
Beer&Wine 면허증, 주방 확장 가능

뉴햄프셔 동양식당 + 풀리커, 연매상 \$300,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드롭오프, 연매상 \$155,000 좋은 매매가격 \$65,000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159,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케이프코드 동양식당 연매상 \$160,000 높은 순수익

보스톤 서쪽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500,000 고급동네

보스톤 북쪽 세탁소 셔츠유닛, 연매상 \$99,000 좋은 위치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36,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새 기계

동양식당 로드아일랜드 프로비던스 대학가 근처, 연매상 \$450,000

네일살롱 여러장소 연매상 \$160,000 - \$800,000

보스톤 서쪽 드롭스토어 2곳, 연매상 \$300,000 과 \$25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뉴햄프셔 세탁소+런드로맷 연매상 \$110,000 18년만에 은퇴, 매매가격 \$35,000

여러가지 컨비니언스 스토어 소유, 문의바람

보스톤 북쪽 건물; 2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가격 \$980,000

보스톤 Full Plant+드롭, 연매상 \$710,000 35년 경영,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드롭가게 연매상 \$193,000 고급동네

동양그로서리 연매상 \$800,000 Beer&Wine 면허증소지, 로터리 (복권)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톤 서쪽(I-495)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500,000 고급동네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50,000+ 새 기계들, 부유한 동네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및 성적관리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준비, 섬머및 교외 활동

### 아카데믹 프로그램

**SAT I (new)**  
**SAT Subjects/AP 수업**  
최고 전문강사들의 수업  
실전문제 중심수업  
주말수업(상시참여 가능)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가능

**전과목 개인과의 가능**  
오랜기간에 걸쳐 학생과 학부모님들로부터  
인정받은 최고의 강사들이 수업 합니다.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각종 경시대회 준비  
AMC, National Spanish/French/  
Latin Exam

### 2016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마감일:11월 11일)

- 기간: 11월 11일(토요일) - 27일(일요일)
- SAT I Class: 12월 1월 시험 대비 집중 프로그램, 유능 강사진, 실전 문제 풀이 중심 및 꼼꼼한 관측, 각 과목별 난이도에 따른 시간 배분
- SAT II Subject Class: Math IIC, Physics, Chemistry
- AP 및 경시대회 준비 개인 수업

|            | SAT For Junior High School Students | SAT For High School Students |
|------------|-------------------------------------|------------------------------|
| 8:00-8:30  | 단어 test                             | 단어 test                      |
| 8:30-12:30 | Class(reading/verbal)               | SAT Critical Reading Class   |
| 12:30-1:30 | 점심식사                                | 점심식사                         |
| 1:30-3:30  | Writing Workshop                    | BAT Writing Class            |
| 4:00-6:00  | TOEFL Class                         | BAT 2 Subject Class          |
| 6:00-7:00  | 점심식사                                | 점심식사                         |
| 7:00~      | Private tutoring/study hall         | Private tutoring/study hall  |

상담전화: 339.234.5255~7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79 Great Rd. #220, Acton, MA 01720  
Tel.339.234.5255~7 / Fax.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bostonedu.org